#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7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379 호



신개발품 전자칼라연등 佛心院 (서울조계사 入口 우측중심 1층 ☎ 02)725-0250(代)


법석 조대 **유각 스님** 대만 중대선사 방장



"매일 10분만이라도 고요히 정좌해 자신을 돌아본다면, 항상 지족知足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선칠禪七을 집중적으로 닦아 일체를 내려놓아放下 망념을 그치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 자신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소재를 찾는다면, 심중에 한 광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 수행 · 교학체계 가닥잡기 착수

## 조계종, 스님 · 학자 1000명 대상 간화선 진단 등 설문

### 조사결과 바탕 10월 학술세미나

'간화선 수행법과 지도체제는 이대로 좋은가'

금강경과 전등법어를 소의경전(개인이나 종파가 근본으로 삼는 경전)으로 한 교학체계는 문제가 없는가'

조계종이 이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며 수행 · 교학체계 정립에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이를 위해 선원, 강원, 본말사 등의 스님과 불교학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두달여 전부터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실상 조계종단의 수행 · 교학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어떤 수행법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경전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시스템(체계) 구축에 복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조계종의 유일한 수행법이자 최고의 수행법으로 간주돼 온 간화선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위 '제3수행법'으로 불리는 다른 수행법들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위빠사나나 아봐타 등 '제3수행법'이 과연 불교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방편인지를 철저히 검증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인식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법화 지장 염불 신앙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전등법어 외의 경전이나 논장, 선장 등에 대한 교학지침을 승 · 재가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번 설문조사가 끝나는 10월경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론', '간화선과 다른 수행법과의 관계', '제3수행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주제로 '조계종 수행체계 정립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학술대회 이후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체계 정립에 들어갈 방침이다.

14년간 영국, 인도 등 해외에서 불교학을 공부한 미산스님(백양사 운문선원)은 "간화선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합한 교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승 · 재가가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상생의 오체투지** 철마선원 선원장 수경스님을 비롯해 종호, 묘수, 지산, 원성 스님과 운문사 학인 스님 40여 명, 가톨릭 문규현 신부와 제가불자 60여명은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역을 출발, 오후 5시 조계사에서 회향식을 갖는 등 6시간 동안 3보1배 정진을 하며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에 대한 간절한 원을 세웠다. 참가자들은 3m거리의 아스팔트에 3천 번 이상 오체투지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진= 고영배 기자

## 천태종립 금강대 내년 3월 개교

### 초대총장 박봉식 교수, 3개학부 · 등록금 전액지원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이사회(이사장 도용 천태종 종정)는 6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초대 총장에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박봉식(프로필 4면)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9명의 교수진도 확정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에 세워지는 금강대는 3만7천500여평 터에 1단계로 연면적 3천70평의 5층 강의동이 6월 22일 준공되었고 오는 10월 3천500여평의 5층 기숙사를 비롯 본관, 강의동 등도 차례로 완공될 예정이다.

금강대는 개교 첫해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와 통역학부(영어학 일어학 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3개 학부 5개 전공에 총 100명(전공별 20명)을 선발,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도 무료 제공한다.

이경숙 기자 gricel@buddhapa.com

## 불교문화 체험하며 신심 키우기

###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는 미래 불교의 주인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미륵종찰 법주사와 놀이시설이 가득한 유스타운,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밝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 정: 2002년 7월 30일(화) ~ 8월 1일(목) 2박3일
- ◆장 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 일대
-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300명)
- ◆참가비: 7만원
- ◆준비물: 점심 도시락(장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 ◆문의전화: (02) 736-7800
-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 발: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 · 봉은사

-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협 찬: (재)보덕학회, 신수회
- ●후 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3보 1배 정신' 계속돼야

2002년 7월 18일. 서울 한 귀퉁이에 비가 내렸다. 그날, 서울 하늘은 뜨거웠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땅바닥은 더 뜨거웠다. 그야말로 '불타는 집'이었고 그 위로 한 줄기 비가 내렸다. 그 빗줄기는 스님들이 흘리는 땀방울이었다.

'북한산 관통도로'를 저지하기 위해 스님들이 거리로 나섰다. 그렇지만 거리의 '투사'는 아니었다. 가사 장삼까지 여법하게 갖춘, 위엄 넘치는 부처의 제자들이었다.

10시, 서울역 광장.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수경 스님을 비롯한 400여 대중들은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고, 하나의 국토가 청정하면 일체 국토가 청정하다"는 말로 시작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산 살리기 3보1배(三步一拜)'를 시작했다. 서울역에서 LG건설(관통도로 시공사)을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3km의 거리를, 세 걸음마다 한번씩 큰절을 올리는 참회와 기도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3보1배 동참자는 모두 59명(비구스님8, 비구니스님37, 재가불자14). 그들이 내딛는 첫 걸음은 인간의 탐욕을 참회함이었고, 두 번째 걸음은 스러져 가는 뭇생명에 대한 연민과 위로였으며, 세 번째 걸음은 뭇생명을 살리겠다는 서원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올리는 한번의 절은, 참회와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은 장삼의 긴 소매자락까지 흥건히 적셨고, 그 땀의 메시지는 어떤 구호보다도 강렬했다. 금속성의 메마른 구호가 아닌, 코끝을 시리게 하는 그 정직한 몸의 언어는 사람들의 가슴으로 곧장 날아들었다. 지나던 차들도 속도를 낮추었다. 사람들은 꼼꼼히 호소문을 읽기 시작했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북한산을 파헤쳐서는 안되지." "왜, 돌아가면 안돼?"

오후 5시, 조계사 마당. 여섯 시간에 걸친 생명의 기도가 끝났다. 탈진한 수경스님과 한 비구니 스님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경전 속에서 뛰어나와 세상과 호흡하는 부처님 말씀을 '본다'.

그날, 3보1배는 온갖 이기와 탐욕에 물든 현대 문명의 '화려한 남루'를 보여 주었고, 세상의 정화를 위한 불교의 노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신음하는 것은 북한산만이 아니다. '3보1배'는 계속돼야 한다.

윤제학(취재 2부 부장)

## 북한산 회룡사 · 흥법사 구간

# 관통도로공사 중지명령

서울지법 북부지원

16일 법원이 회룡사와 흥법사를 지나가는 북한산 관통도로 구간에 대한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선 변경이 없을 경우 사공사의 공사 재개가 어렵게 됐다.

북한산 회룡사 등 19개 사찰이 지난해 11월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중지 가처분'과 관련,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병윤)는 16일 북한산 회룡사 흥법사 등 사찰주변의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산 회룡사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많은 승려들이 동안거 하안거 등의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패산 관통터널 공사로 인해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룡사를 통과하는 터널구간과 도로 교량이 법당 위로 지나가는 흥법사 경내지와 소유토지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불교계는 이에대해 대환영을 표하고 대안노선을 협의하기 위한 검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속도로측은 "회룡사와 흥법사 경내지에 대한 공사만 어려워졌다"며 "공사 중지가 기각된, 나머지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는 불교계도 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 · 11면

강유산 기자 shanmok@buddhapa.com

##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의 공적 기능**

1. 사찰이 종교적 기능 외로 갖는 공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문화적 기능 ②역사적 기능
   ③교육적 기능 ④환경보호 기능 ⑤기타
2. 사찰이 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①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②대국민 홍보
   ③시설보완 ④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⑤기타

**설문 참여:** 7월 2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0호 9면에 실습니다.


#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사 설

### 조계종학 정립방안 마련해야

조계종 불학연구소에서 '조계종학' 정립을 위한 설문을 실시 중에 있다고 한다. 수행과 교학체계와 지침이 정립되지 않은 탓으로 어떻게 수행하며 대중을 교화해야할지 그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종단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사실 조계종단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역사적, 교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통불교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더더욱 교단의 성격을 모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제종융합의 성격 속에서 종법상의 종지종풍과 종단의 종교적 현실이 괴리감을 지닌 채 유지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불학연구소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수행과 교학체계 정립은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몇 십 년, 아니 몇 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만큼 중차대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불학연구소가 설문조사 이후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진행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스님과 재가자들의 '자기 반성적 성찰' 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간화선이나 소위 말하는 '제3수행법' 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공정히 평가하고, 꼭 필요하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수행환경권 인정한 법원결정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제4공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16일 내려졌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4민사부는 결정문에서 회룡사와 홍법사의 소유 및 점유 토지 부분의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른 지역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결정은 곧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의 재검토를 촉구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문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찰의 수행환경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회룡사 소유 토지의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하며, 회룡사가 민족문화 유산이자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로 많은 승려들이 동안거, 하안거 등의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패산 터널 공사로 인하여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행환경을 침해하는 도로 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사찰은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현행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계획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해 많은 사찰이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는 사찰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미쳐 깨닫지 못해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수행은 불교의 근간이다. 법원이 이제나마 수행환경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기회에 사찰의 수행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불교계 관련 기관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찾지 않는 권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위빠사나 行禪부터 해봅시다"

## 수덕사서 불교학 전공자·기독교인 등 150명 수행체험

### 불교학연구회 "명상과 불교수행" 주제 워크숍

### 참가자들 "실천불교학 모색 뜻깊은 자리"

"좌선을 하기 전에 위빠나사의 행선(行禪)을 먼저 해봅시다."

13일 충남 예산의 덕숭총림 수덕사 황하정루 2층. 불교학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 원불교 정녀, 개신교인 등 150여명(불교학전공자는 110명)이 보리수선원 원장 붓다락키타 스님의 고요한 음성에 따라 한 발 한 발 걸으며,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좇아 이리저리 따라가는 생각들을 알아채고 있었다.

불교 학자라면 당연히 수행의 전문가여야 하겠지만, 우리 불교학계의 현실은 이론과 실수(實修)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가지런하지 못한 실정. 그래서 이날의 수행법 체험은 자칫 관념속에 매몰되어 체험을 간과하기 쉬운 불교학자들의 심성에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인연을 뿌려주었다.

13~14일 1박2일간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스님)가 '명상과 불교수행' 을 주제로 마련한 2002년 여름워크숍에서는 위빠사나와 함께 염불선과 간화선 실수를 귀신사 회주 용타스님과 수덕사선원 입승 무애스님의 지도하에 실시했다.

20여년간 동사섭법회(同事攝法會)를 지도하며 염불선의 대중화에 앞장선 용타스님은 "'나' 라는 이미지를 지우면서 현전하는 '텅빔' 을 관조하고 '아미타불' 하고 염(念)하는 것이 염불선 공부의 한 요령"이라며, 금타-청화스님(성륜사 조실)으로 이어온 한국 염불선 수행의 특징의 하나로, 금타스님의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 에 따른 염불선 수행법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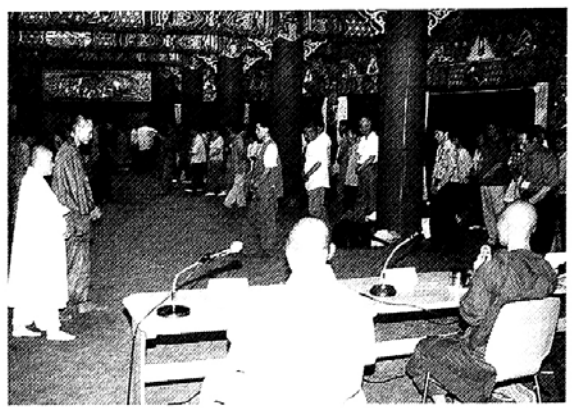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 공양후 열린 좌선 실수는 무애스님의 활발한 목소리만큼이나 신선하게 진행됐다. 참선의 차세를 간단하게 지도한 후, 무애스님은 "옛 1700 공안에 송장,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일갈하고, "죽은 공안 즉, 사구(死句)에 매달리지 말고 생활 속에서 생명력있는 활구(活句) 참선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명예이사와의 만남 시간에서도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과 감로사 회주 혜총스님,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도 한결같이 "실참실수가 바탕이 된 살아있는 불교학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실참(實參) 실수를 외면해 공허한 불교학으로 오인된 불교학계가 오래된 틈을 깨고, 이른바 '실천 불교학(Practical Buddhology)' 을 모색한 보기드문 자리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해주스님 인터뷰 4면>

수덕사=김재경 기자



◇불교학연구회 회원들과 재가자들이 13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붓다락키타 스님의 지도아래 위빠사나의 행선을 체험하고 있다.

# 한·중국 불교교류 활성화

## 중국 종교국 고위간부·불교협회

## 조계종 초청…잇달아 방한 우의다져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 종교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정부 종교국 고위공직자들이 9월 2일 조계종 총무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또 조계종 초청으로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부회장, 장림 부비서실장 겸 국제부 주임, 보정 국제부 한국담당 스님을 비롯 8개성 불교협회 회장과 서기장, 중국 종교국 담당자 등 17명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수석부회장의 인솔로 방문기간 동안 총무원장 정대스님 예방, 직지사, 해인사, 불국사(석굴암), 신흥사, 낙산사 등을 방문하여 승가교육시설 등 한국불교의 현황을 둘러보고 각 사찰주지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 '현대' 만평

김 영 민



깨달음에 지름길은 없다

### 8월5일 대둔사 산중총회

### 8월16일 불국사 보궐선거

조계종 22교구 해남 대둔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선)는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8월 5일 개최한다.

대둔사 주지후보자격은 승랍 25년이상, 연령 45세 이상의 승려로, 7월 26일부터 28일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승등록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또 조계종 11교구 불국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타)는 8월 16일 제12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개최한다. 불국사 종회의원 입후보자 등록은 8월 6일부터 8일까지이다.

김원우 기자

### 9월10~14일 조계종종회

### 선거법등 이월안건 처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11일 종회사무처에서 제 42차 의장단,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위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154회 임시중앙종회를 9월 10~14일 열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154회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등 이월된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 영산재·단청장 등 중요무형문화재

## 대학수료 인정 전통예술학사 학위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영산재, 단청장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대학 교육을 마친 것으로 인정돼 내년 2월부터 별도의 학점 취득 절차 없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전통예술을 전통음악 무용 무예 연희 공예 조리 주조 등 7개 분야 119개 전공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누구나 전통예술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은 올 10월 학위를 신청한 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면 내년 2월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222명 중 4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도제식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전수받고 있는 고졸이상의 문하생들도 내년 3월부터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 요건 충족시 전통예술학사(140학점)나 전통예술전문학사(80학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권형진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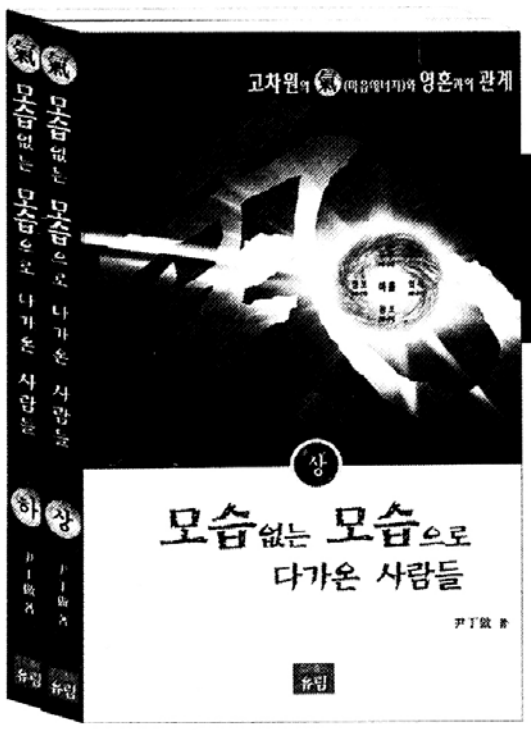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 자 : 尹 丁 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 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놨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上,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 마음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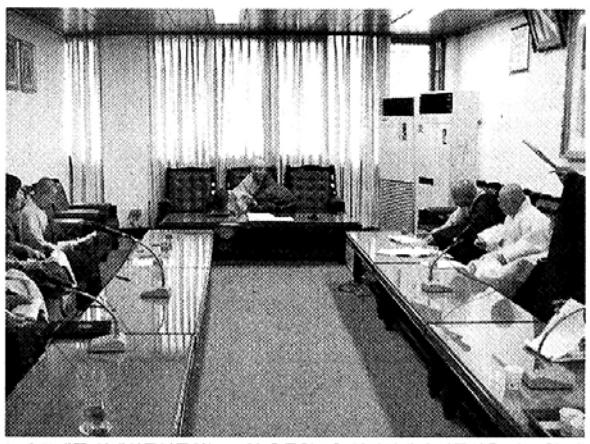
도서출판 슈림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 가사 색깔 농도·재질 일률적 통일

##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18일 발족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의제실무연구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종진(법계위원회 위원)·철우·무관(이상 계단위원회 위원)·무상(법주사 부주지)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기획·문화국장, 교육원 사무국장, 복식연구가 김경숙씨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는 1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발족한 실무연구회는 첫 회의에서 '법계에 따른 의제 구분과 시행', '승복 제작 및 유통의 관리방안 마련' 이라는 두 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법계에 따른 의제 구분과 시행은 △종단을 상징하면서도 법계를 구분할 수 있는 휘장 패용 △가사색깔 및 재질 통일 △대가사로 가사형태 통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가사 통일화 작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연구회 구성원들은 현재 법계와 관계없이 착용되고 있는 가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가사의 색상을 통일하는 한편, 조계종 스님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휘장(마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특히 10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가사 조수를 4급부터 대종사까지 법계에 따라 7·9·15·19·21·25조 등 여섯 가지로 통일하고, 가사색의 농도와 재질도 일률적으로 통일키로 했다. 휘장의 경우도 법계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해 부착토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현재 혼용되고 있는 반가사 및 온가사를 온가사로 통일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승복 제작 및 유통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종단 차원의 관리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승복 시장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종진스님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잘못 접근할 경우 오히려 승복점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 의제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급~대종사까지 6가지로 잠정 결정
### 휘장모양 등 법계따라 다르게 부착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의제법 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깊이 있는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종헌종법에 의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면 의제법 개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연구회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등 의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의제실무연구회가 가질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의제개혁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단 직속의 '의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의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령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무연구회는 8월28일 2차 회의를 갖고 첫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심도 깊게 검토할 방침이다. 실무연구회의 제반사항은 법계위원회에 보고되며, 법계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의제개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승가 의제 개혁은 의제실무연구회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또 법계위원 등 종단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종진스님 인터뷰 4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조계종학' 체계 정립 시도

## 수행·교학 관련 설문 무엇을 담았나

### 간화선 등 각 수행법 재검토 '논란예상'
### 소의경전에 경장·율장 추가 문제 물어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이번 설문을 통해 '조계종학(曹溪宗學)' 정립의 필요성을 가늠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학연구소가 임의로 명명한 '조계종학'이라는 용어는 '조계종의 체계적 불교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계종지에 입각해 계정혜 삼학을 포함한 조계종의 수행체계 및 교학체계를 일컫는다. 따라서 '조계종학' 정립은 간화선과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종지종풍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엄청난 작업이기도 하다.

불학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설문은 '조계종학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필요성' '간화선 수행 방법론' '제3수행법 어떻게 볼 것인가' '소의경전 개선 필요한가' 등 크게 네 가지 주제 아래 모두 5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설문내용을 압축해 제시하고, 그 질문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본다.

▲'조계종학' 정립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용어는 적절한가?

=이 질문은 단계적으로 수행과 교학을 밝아나가는 체계가 필요한가를 묻는 것으로, 수행·교학체계 정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조계종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학'이라는 조어(造語)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조계종의 수행 및 교학체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음을 반증한다.

▲수행에 들어가기 전 불교 세계관(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인생과 세계를 보는 관점) 정립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수행법이 근기에 맞게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나?

=간화선 수행방법론에 초점을 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해 종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간화선이 상근기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배양시키는 수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간화선 수행에 있어 깨달음이라는 '본질' 보다 수행자체의 '기교'로 흐르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화선에 대한 교학적 이해(불교 세계관 정립)와 함께 정확한 수행법 제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수행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간화선 수행이 현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는가? 또 수행정도를 점검할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어떻게 입문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며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은 현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까지도 자연스럽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불교학자들은 수행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제시돼야 하며, 이는 지금까지 이뤄져온 선지식 중심의 수행풍토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간화선 수행자들의 사례별 분석으로 '이 정도면 어느 단계'라는 계량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화가 이뤄질 경우 간화선은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행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견해다.

▲이른바 '제3수행법' 중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수행법이라면 조계종의 수행법으로 수용해도 좋은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들 수행법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조계종은 '제3수행법'을 간화선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화선만을 유일한 수행법으로 간주해온 종단의 현실에 비춰보면 파격일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간화선 수행자들의 엄청난 반발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선 것은 재가자뿐만 아니라 스님들 사이에서도 간화선 이외의 수행을 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제3수행법'에 대한 명쾌한 입장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의경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그 방식은.

=그동안 자주 제기돼 온 '소의경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실제 설문에서는 어떤 경전을 소의경전에 추가해야 하는지, 강원 전통과목에 주요 경장·율장·경장을 추가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는 "원시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법화·화엄·관음 신앙이 혼재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수행형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학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 "봄·가을 스님 재교육 실시"

## 혜승 스님 고운사 신임 주지



조계종 16교구 의성 고운사는 16일 70명의 구성원중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로 혜승 스님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19일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주지 임명장을 받은 혜승 스님은 1936년생으로 도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56년 해인사에서 정영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0년 봉선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57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사미과, 65년 은해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73년 조계종 중앙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95년 의정부시 사암연합회 회장, 97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을 거쳐 의정부시 문화원 이사, 의정부 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주지추대를 축하드린다. 소감은?

"동안 본사인 고운사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문중스님들이 주지로 추대해 주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문중스님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 자주 만나 화합과 교구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고운사는 다른 본사에 비해 복지·포교 등에 소극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20여년간 도량불사를 펼쳐 본사의 사격을 어느 정도 완비했다.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이다. 교구내 지역(안동 영주 의성 등)이 유교문화권이다 보니 경상도지역에서도 유독 불교세가 약했다. 본말사 스님들의 대중공의를 모아 불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사에서 지역포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말사주지임기를 보장해주는 등 본사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또 봄 가을로 본사차원에서 특강을 실시, 스님들의 재교육에도 힘쓸 방침이다"

##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본사로"

◈스님께서는 다년간 의정부 사암연합회장을 맡으며 환경 등 불교 현안에 대한 관심 많은 분으로 알고 있다.

"97년 의정부 사암련 회장을 하며 북한산 관통도로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 알리고 반대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건설계획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서다보니 큰 힘을 얻지 못했다. 수행환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국립공원은 꼭 보존돼야 한다. 환경훼손 되지 않는 곳은 사찰림 밖에 없다. 사찰림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허파구실을 하고 있다. 불교의 수행환경 수호는 일반국민들을 위하는 것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원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韓國佛教 臨濟正宗 창종공고

귀의 삼보하옵니다.
임제정종은 임제선사의 선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의 대중화 및 임제 선 사상 전법을 종지로 하여 창종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6(서기 2002년) 4月

종정 覺華

僧正院長 道安
宗會議長 曉性
司正院長 자연
總務院長 法眞
선관위院長 만공
教育院長 금호
布教院長 만오
文化院長 大行
修禪院長 法光
弘法教育院長 鏡空

司正副院長 智虎
總務副院長 性巖
教育副院長 禪覺
布教副院長 평담
文化副院長 草衣
修禪副院長 大空
弘法教育副院長 청담
선관위副院長 토암

全國比邱尼會長 지연
總務部長 혜정
監察部長 智空
社會部長 慧觀
財務部長 지연
福祉部長 大德
사회홍보부장 견성
교무부장 도안

울산종무원장 청월
경기종무원장 지연
경기종무분원장 성심
전북종무원장 청담
전남종무원장 청안
진주종무원장 무언
충북종무원장 지호
충남종무원장 법광
대전종무원장 도안

한국불교 임제정종 총무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2동 4-8 ■전화 : 02)395-0108

## 일 주 문



**'불교 수행…' 주제 발표**

법현 종단협 사무국장은 18~20일,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에서 '불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 주제발표를 했다.



**日 경도불교대 객원연구원**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안식년을 맞아 9월부터 1년동안 일본 경도 불교대학 객원연구원으로 머물 예정이다.

### 금강大 총장 박봉식 교수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초대 총장에 내정된 박봉식 서울대 명예교수(71세 · 사진)는 26세때 서울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서울대 제17대 총장과 부산외국어대 2대 총장을 잇달아 역임할 만큼 학계와 교육계에서 존경을 받고있는 원로 학자다. 다음은 박봉식 교수의 이력.

1951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957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1975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58-1994년 서울대 교수
1964-66년 하바드대 연경학과 객원교수
1980-84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985-87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1985-87년 서울대 총장
1991-95년 통일원 민족통일연구원 이사장
1994-95년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 법현스님 작품 '가야' 3위
### 16회 터키 국제무용제서



◇'가야'를 공연하고 있는 법현스님(왼쪽).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 ·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 12일 터키 버사에서 열린 제16회 터키 국제무용제에서 불교전통음악과 무용을 접목한 '가야'로 3위에 입상했다.

이탈리아, 이집트, 러시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 18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1위는 조지아, 2위는 멕시코가 수상했다.

수상작인 '가야'는 동국대 국악과 학생들과 범패이수자 스님 등 20여명이 출연해, 인도에서 가락국으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범패와 무용으로 작품화 한 것이다. 법현스님이 음악과 연출을, 김향금 교수(창원대 무용과)가 안무를 맡았다.

## "의제개혁 폭넓은 공감대 필요"

### 조계종 의제 실무연구회 의장 종진 스님



"의제를 바꾸는 데는 무엇보다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따라서 스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접근해나갈 것입니다."

18일 발족한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의장을 맡은 종진스님(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 · 사진)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의제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바뀐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스님들이 공감하지 않는 한 의제개혁 성공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몇 년간 의제개혁에 대한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것도 추진력 결여와 합께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가 의제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대다수 법계위원들은 율장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스님은 율장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이 승가의 본분이라는 말로 의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만들고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제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종진스님은 "실무연구회 활동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다면 의제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시간 갖고 충분히 검토 · 논의

입니다."

## "이론 · 수행 결부 '살아있는 불교'로"

### '불교학 · 實修' 만남의 장 마련 해주 스님



"최근 위빠사나 등 간화선 전통과는 다른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이 살아있는 불교 연구풍토를 확산시키고, 논리만 팽배해 있는 불교학계를 일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3~14일 예산 수덕사에서 '명상과 불교수행'을 주제로 여름워크숍을 개최해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선 실수(實修)의 장을 마련한 불교학연구회 회장 해주스님(동국대 교수 · 사진)은 수행법의 체계화 및 이론화를 통해 불교학과 수행법이 불자들에게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주스님은 "불교 수행법들이 서구 물질문명이 휩쓸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빛과 가능성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행과는 동떨어진 연구만 이뤄지다 보니, 대중들에게 소외되고 불교계를 이끄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주스님은 "스스로 수행하며 실천하는 불교학자들이 늘어나 이론과 수행이 결부된 살아있는 불교학 풍토를 조성해 불교학 발전은 물론, 수행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창립한 불교학연구회는 1998년 9월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모체가 되어 출발한 토론중심의 열린 학회. 년 6회의 월례발표회와 2회의 정기발표회 그리고 년2회 1박2일의 워크숍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덕사= 김재경 기자

### 수행 도외시하는 학계 변화 '기대'

## "군포교 새로운 비전 제시할 터"

### '군승회의' 첫 의장 장성화 법사



"지난해 11월 군불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구성된 군승회의의 첫 의장으로서 군승회의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5일 강원도 양양 호국충용사에서 열린 군승총회에서 군승회의 첫 의장으로 선출된 법승 장성화(47 중령 3군사령부 · 사진) 법사는 옛 군승단 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탈피해 체계 확립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번 의장 선출로 8개월여간 유지해 온 임시의장 체제를 정비, 원활한 군포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불사"임을 강조해온 장 법사는 군포교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군포교 전담기구로서 군불교위원회를 한차원 승격시킨 기구가 필요하다"며 군종교구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법사는 "120여명의 군승들은 군포교라는 길을 걷는 도반"이라며 군승들이 군포교에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화합된 모습으로 현장에서 군포교에 임할 것을 군승들에게 주문했다.

군승 147기로 81년 임관, 2사단, 21사단 등 최전방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한 장 법사는 국방부, 5군단 등을 거쳐 현재 3군사령부 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군종교구 같은 전담기구 필요

## "각국 청년조직 상호교류 중요"

### 세계 불교도 청년우의회 아누르트 봉바니 회장



"한국 사찰들이 24시간 늘 문을 개방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도 이런 기도정진 도량이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3~14 양일간 속초에서 열린 전국불교청년대회 참석차 방한한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이하 W.F.B.Y,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아누르트 봉바니(Anurut Vongvanij · 사진) 회장은 한국 사찰을 둘러보고 개방성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불청대회를 보고 한국불교 청년조직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여러 나라 조직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세계불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직들이 단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요하다고 강조하는 아누르트 봉바니 회장은, 한국불교의 포교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 세계불교청년포럼 내년말 한국서

"불교가 활성화 되려면 승가와 재가, 매스미디어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중 불교 미디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해 청년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W.F.B.Y가 주최하는 '세계불교청년포럼'이 내년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김성재 문화부장관 정대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김성재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종교계를 잘 아는 만큼 종무 종책을 통해 적극 협조해 달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월드컵 때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호응이 컸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16일에는 이한동 전 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정현안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 신수회 통도사서 하계수련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회장 이영자) 정기모임이 13일 울산 지선당과 통도사에서 열렸다. 김재화, 김숙희, 허준오 씨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 신수회는 월 1회 신수회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붓다뉴스 신수회 카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포교와 신행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 금산사 본말사 신도 임원 재교육

조계종 금산사 및 선운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이 13~14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열렸다. 42개 사찰 110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21세기 재가불교 지도력 △효과적인 신도조직화 방안 △신도회 조직 운영관리 등의 강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북지역 포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현판식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한정섭법사, 정대은스님, 김재일법사) 현판식이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동산불교회관에서 봉행됐다. 현판식에 이어 연합회는 운영이사 및 임원을 선임했다. △고문: 김무찰, 안경우, 박정암. △운영이사: 편백운, 석향공, 오상현, 노종문, 조재완, 허성현, 박지일, 이재복, 장각성. △고시위원회: 오상현, 김재일, 노종문.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 | | |
|---|---|---|
|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br>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br>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br>·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br>·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br>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br>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br>·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 문화재전문위원)<br>·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 · 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 고 |
|---|---|---|---|---|---|---|
| · 불교학과(200명)<br>(정규반 주간반 통신반)<br>· 한문학과(50명)<br>· 불교미술학과(30명)<br>· 우리춤과(30명) |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 입학원서 1통<br>· 주민등록등본 1통<br>· 반명함판사진 3매 | 2002년 6월 15일 ~ 2002년 8월 3일<br>입학금 200,000원 | 서류전형<br>(합격자 개별통보) |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br>·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b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br>·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우리춤반)<br>·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

4. 입 학 일 시 2002년 8월 10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숨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 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2년도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를 순례하였고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8월 5일 ~ 7일(2박 3일)
◆ 장 소 : 전남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참 가 비 : 40,000원(염불,조끼,교재 및 식사재공)
◆ 교 통 편 : 개인별 미황사 5일 오후 2시까지 도착
◆ 신청방법 : 전화 신청후 은행계좌 입금
국민은행 : 023-21-0667-309 : 염불만일회
농 협 : 053-02-128104 : 염불만일회

청화큰스님 특별 염불법문



(서울, 경기지역 출발안내)
◆ 출발장소 : 서울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2년 8월 5일(월)오전 6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 교통비포함) 65,000원을 미리접수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영도구청 법우회 향일암 순례

부산 영도구청 법우회(회장 류춘희)는 16~17일 전남 여수 향일암을 순례했다. 향일암에서 새벽예불을 모신 법우회는 일출을 관람한 뒤 순천 선암사로 이동, 참배했다. 이번 순례에는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동참했다. 류춘희 회장은 "이번 순례에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 석불선양회 흥양리 마애불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4일 강원도 원주 치악산 흥양리마애불을 찾아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를 마친 후에는 흥양리마애불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환경정화운동을 펼쳤다. 50여 참가자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원주 소쩍새마을을 방문, 슬리퍼 250켤레, 건어물 80kg, 성인용 기저귀 1600매 등 2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 도시철도 법우회 활성화 논의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18일 5호선 왕십리역 역무교양실에서 법회를 열고 활성화 방안과 철도불자 환경살리기 캠페인 등을 논의했다. 법우회는 회원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9월중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청 불자들과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직장불교 활성화 일구는 '서포터즈'

## '가족모임' …유대·친목 강화 견인차 자임

## 법회·성지순례 참여, 공양물·식사 준비

직장불자들의 가족모임이 직장불교회 활성화는 물론 화목한 불자 가정을 일구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누구 못잖은 강한 신심으로 신행활동을 펼쳐 모범이 되고 있다.

법회, 성지순례 등 직장불교회의 신행활동에 동참하는 것도 기본. 행사 때마다 공양물과 식사 준비 등 궂은 일까지 도맡아 직장불자들의 원만한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수련회, 회원들의 경조사 상조, 자녀교육 등 직장불교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불교회들은 가족이 함께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별도로 가족모임이 구성된 곳은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와 월성원자력본부 반야회, 울진원자력본부 문수회 등.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가족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는 법우회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는 평가까지 얻고 있다. 2000년 결성 이후 매월 한차례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법우회와 함께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 후원, 철도안전운행 캠페인, 환경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승만부인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직장불자들을 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회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도 성북승무사무소 법회에 계속 참여할 정도다. 법우회 정찬연 총무는 "승만부인회는 법우회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가족모임으로, 법회나 행사 때마다 양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월성원자력 반야회 가족모임인 마야부인회도 반야회와 함께 매월 한차례 법회를 얻고 있으며, 자체 법회를 매주 갖는다. 참선반, 자원 봉사반 등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마야부인회는 경주 불국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직원 자녀와 인근 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해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적사찰인 경주 기림사 행사 때에는 공양간, 법당의 궂은 일까지 노력봉사를 아끼지 않아 기림사 신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울진원자력 문수회 가족모임인 승만회와 한일합섬 한일법우회의 한법상조회 등이 재적사찰 봉사, 경조사 상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성원자력 마야부인회 황신자 회장은 "직장불교와 포교 활성회를 위해 가족들이 보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금융단불교회 하계수련

## 장경寺서, 천수경 100독 등 신심다져



◇16~17일 남한산 장경사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는 금융단 불자들.

전국금융단불교회(회장 이탁수)는 16~17일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내 장경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20여 회원과 가족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독, 예불, 108배, 장경사 주지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의 법문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6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오후 9시 장경사에 모인 금융단불자들은 수련회를 철야로 정진하며 신심을 다졌다. 수협중앙회 김윤하 불자는 "일상에서 지었던 업장들을 이번 수련회에서 모두 참회하고 정화된 듯한 환희심을 느낀다"고 감회를 밝혔다.

법명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마련되는 수계의식은 최근 입회한 회원과 법명이 없는 불자들의 참석율이 저조해 다음 수련회에서 갖기로 했다.

이탁수(우리은행) 회장은 "공덕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공덕을 짓기 위한 정진이었다"며 "이번 수련회에서 냈던 발심을 자신의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연구원 국불회 '별빛기행'

## 산행중 별과 대화·독경·좌선 병행

국토연구원 국불회(회장 윤주원)는 26~27일 충북 괴산 속리산 자락의 각연사로 이색적인 성지순례 '별빛 기행'을 떠난다.

이번 순례의 주요 프로그램은 야간 산행을 하며 나누는 별빛과의 대화, 천수경 독경과 좌선도 병행한다. 새벽예불과 108참회, 주지스님과의 차담 등을 통해 회원과 가족들의 신심을 키운다.

국불회는 또 지장보살 성지인 음성 미타사와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에 들러 불교와 화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한편 한전본사 반야회(회장 이인규)도 27~28일 경주 남산에서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인 '달빛기행'을 갖는다.

달빛기행은 보름달 밝은 밤길을 걸으며 경주 남산에 산재한 불교유적을 참배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의식 간사는 "수련회나 성지순례, 불교유적답사 등의 고정된 형식을 탈피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좋은 소재"라며 "직장불교회의 신행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의원·직원 불자회 통합

## 회장 하순봉의원, 불자의원등 시도별 배분

한나라당 소속 의원불자회와 직원불교신도회가 통합돼 불교신행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8일 당무회의실에서 이회창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당소속 불자의원 간담회를 갖고 의원불자회와 직원 불교신도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또 통합 불자회 회장에는 하순봉 최고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함종한 전 직원신도회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불자의원들은 16개 시도별로 불자의원과 불자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을 배분, 불교관련 지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불교계 목소리 국회·당에 전달"

### 한나라당불자회 신임회장 하순봉의원



### 각당 불자의원 만나 정각회 곧 구성

"불교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당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당내 불자들의 여론이 의원불자회와 직원신도회를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통합된 불자회장으로서 취지를 살려 불교계 목소리를 국회와 당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불자회장에 선임된 하순봉(52 국회의원) 최고위원은 불심을 닦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가 활동을 중단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한 하 신임회장은 "정각회는 정당의 이해를 떠나 불자의원들이 모여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각 당의 불자의원들을 만나 정각회 구성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북한산 관통도로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이다.

하 회장은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불신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자비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란 하 회장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서울 승가사 신도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 동아대의료원 연불회 성지순례

부산 동아대의료원 교직원 연불회(회장 박옥규)는 28일 충북 단양 구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순례에는 회원 8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연불회는 매월 한차례 성지순례를 열고 있으며 6월 30일 전북 김제 금산사 순례를 다녀왔다.

### 경산조폐창 금강회 아미타경 강의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24일 지도법사 증악스님(대구 보리사)을 모시고 아미타경 강의를 실시한다. 또 6월 26일부터 시작한 수지침, 스포츠 마사지 강좌도 회원들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8월까지 매주 한차례씩 열기로 했다.

### 우리은행 부산불자회 야외법회

우리은행 부산불자회(회장 하명찬)는 13일 영화 '달마야 놀자' 촬영지 김해 은하사에서 야외법회를 열었다.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를 믿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우리은행 부산불자회는 8월 10일과 9월 14일 부산 영주암에서 염불의식 강좌를 갖는다.


#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 학 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특별전형30% |
|---|---|---|---|---|
| 개호복지사과 | 2년 | ■주간30명 ■통신80명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br>·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br>· 주민등록등본 1통<br>· 반명함판 사진 5매 | · 각 종단 승려 포교사<br>·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
| 불교학과 | 2년 |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 | |
| | 4년 | ■통신80명 | | |
| 불교미술(문화재)과 | 2년 | ■주간30명 ■야간30명 | | |
| | 4년 | ■주간30명 ■야간30명 | | |
| 포교사과정 | 2년 | ■야간30명 | | |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8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7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9월 본과(학사)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 학 과 | 학제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br>◇건강진단서(영문)<br>◇대학 졸업자(전공불문)<br>◇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br>◇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br>◇여권용사진 10매 |
| 석사과정 | 3년 학사 졸업자 한함 | |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8월 23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석사과정 졸업자는 중의사고시 시험가능 1년인턴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 학 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
|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 3년 | 주간·야간 |
| 중학교 과정 | 3년 | 주간·야간 |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2002. 8. 23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7월-인욕의 달
· 기꺼운 불편 감수
· 탐욕과 성냄 다스리기
· 하심과 관용
· 인욕통한 몸·마음의 해탈

하심과 관용



◇모든 인욕행의 근본은 하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제나 하심하는 마음으로 차수(叉手)하며 걷는 행자들.

# 모든 인욕바라밀의 근본

'下心' 아래 하, 마음 심.

한문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물어 보아도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쉬운 한자다. 하지만 이 두 글자를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갓 삭발한 행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공부가 하심 공부일 정도로, 수행의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자들은 선배들로부터 "스님 생활 잘 하려면 하심부터 배워야 한다", "무조건 하심해라", "아만(我慢)부터 버려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모든 인욕행의 근본이 하심부터 시작되기에, 수행자들의 필수덕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인욕행(忍行)을 닦을 때,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의 몸으로 하심 공부를 했던 내용이 나온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따르면, 상불경보살은 위음왕불 상법시대 말경에 나타나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들에게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그대들을 존경하며 조금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부대중들은 그를 일러 '늘 공경하고 두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불경'이라 했다.

어떤 생각, 행동을 할 때마다 하심하는 상불경보살을 떠올린다면 인욕행은 저절로 이루고 지고, 아만심도 저절로 녹아없어져 점차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러한 하심공부는 단순히 참는 마음이나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어려운 처지나 잘못에 대한 이해와 용서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인욕을 가리키는 범어인 '크샨티(ksanti)'의 표면적인 의미가 '참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의미로 '용서하다'는 뜻을 포함한다. '크샨티'의 사역형(使役形)은 '크샤마야티(ksamayati)'로서 '내가 저지른 허물을 용서해주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실례합니다'라는 정도의 말로서 현대 인도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인 인사말이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참음과 자비로써만이 극복 될 수 있다" 〈법구경〉

증오와 분노는 오직 관용과 자비로써 극복이 가능하다. 하심 공부는 관용과 자비의 마음을 저절로 불러일으켜 인욕할 것도 없는 평정심을 이루어, 저절로 인욕바라밀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 신행 캘린더

**7월 24일 (수)**

■대한불교진흥원 '초청법회'=짜증나는 장마 속에 듣는 청량한 불법. 대한불교진흥원이 서울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자명스님을 초청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자의 올바른 길에 대해 알아보는 법회를 연다. 이 법회는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02)703-0108

■마야문화원 '절 강좌'='절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마야문화원이 절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절 강좌'를 마련했다. '절 기차게 하는 법'의 저자인 청견스님이 진행하는 이 강좌는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마야문화원에서 열린다. 강의료는 3만원.(02)722-1050

■한국체육진흥회 '청소년 국토순례'=한국체육진흥회가 '제9차 화랑정신 계승 청소년 국토순례'를 떠난다. 24일~8월 1일까지 평화의댐, 양구 선사박물관, 동학혁명 위령탑, 망향의 동산 등 총 200km를 순례하는 이 행사는 청소년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849-7077

**7월 25일 (목)**

■능인사회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캠프'=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배우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

능인사회복지관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며, 역사를 배우는 청소년 캠프를 마련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일제 만행에 관련된 비디오 시청각 교육, 역사관 관람, 정신대 할머니의 실제 증언을 듣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출발은 오전 9시 능인복지관 앞. 1박 2일.(02)571-2988



◇하남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7월 26일 (금)**

■두레생태기행 '취화선'을 찾아서=단원 김홍도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화가 오원 장승업의 삶을 더듬는 문화기행이 열린다.

이번 문화기행의 참가자들은 고성 옥천사, 상족암, 황매산 영암사지, 내산리 가야 고분군 등 유서 깊은 불교 유적도 둘러볼 수 있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초구청 앞. 참가비는 2박 3일 15만원.(02)712-5812

**7월 28일 (일)**

■용진신행회 '성지순례'=영주 부석사와 희방사를 찾아서.

용진신행회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대표적인 화엄사찰 부석사와 희방사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한국 최고의 목조건물인 부석사 대웅전(국보 18호)과 조사전(국보 19호)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줄 것이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 참가비 2만 5천원.(02)2279-1191

**7월 29일 (월)**

■양정청소년수련관 '요가강좌'='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

양정청소년수련관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발달을 위한 요가강좌를 오후 4시 30분 수련관에서 개최한다. 주위가 산만한 청소년, 생활에 자신이 없는 청소년,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강좌. 몸과 마음의 합일을 얻기 위한 고대 인도 수행법 요가를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2일까지 계속되며 참가비는 2만 5천원.(051)868-0750

# 절 심부름꾼 자처… '相안내는 후원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부산 운수사 황영순 신도회장



◇황영순 신도회장(정면으로 보이는 가운데)이 경전반 모임 도반들과 함께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다.

15일 운수사. 매주 월요일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린 도량을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팽나무를 지나면 불을 환히 밝혀놓은 방에 다다른다. 거사 8명, 보살 3명이 모여 경전을 공부하는 운수사 경전반의 공부방이다.

경전을 배우는 재가 모임인 경전반은 출석부가 없어도 출석률은 늘 100%다. 5년째 한결같이 이어온 경전 공부에 대한 열의와 함께 이 모임의 또 다른 특징은 운수사 신도회의 중요 직책을 맡은 이들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전반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신도회 조직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신도회의 황영순(45 무역업)회장, 김상두 부회장, 장병주 총무, 토요참선회 선원장을 맡고 있는 황갑규 교화팀장, 백상식 감사 등이 신도회 일과 경전을 통한 부처님법 배우기에 한 치 흐트러짐도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주역들이다. 황영순 회장 역시 이 공부 모임의 초창기 회원이다. "처음 스님의 권유로 몇몇 드반들과 뜻을 모아 경전반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부처님법을 바로 알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는 황 회장의 말처럼 경전반은 발심 하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문으로 된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반들끼리의 탁마와 깊이 있는 풀이로 이끌어준 김진일(43 한의원 원장) 거사의 도움으로 초발심자경문, 선가귀감, 증도가, 신심명, 육조단경, 금강경오가해를 공부했고 지난 3월부터는 법화경을 시작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부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쉽지 않았던 거사들은 경전속의 풍부한 가르침과 참선을 병행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비추는 밝은 빛을 키워가고 있다.

## 경전반 꾸려 '육조단경' 등 공부 계속
## 대금반·참선반 등 신도들 참여 이끌어

이렇게 매주 공부모임을 이어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신도회 조직이다.

"스님이 하시는 일에 재가자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신도회 조직이 되었다"고 황 회장은 말했다. 그러나 "저는 이름만 회장일 뿐 실질적인 일은 다른 도반들이 다 한다"며 황 회장은 모든 노고를 도반들에게 돌렸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도반들이 채워주고, 때로는 격려와 질책도 아끼지 않으니 이보다 더한 스승도 없다고 황회장은 말한다.

그러나 도반들은 황 회장을 "드러나지 않는 후원자"라고 소개한다. 장병주 총무는 "사찰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신도들이나 회사 직원들을 부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며 "직원들 급료도 동종업체 중 최고로 줄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황 회장은 공명심이나 아상을 버리고 스님과 신도들의 심부름꾼이 되길 자원했다. 그리고 운수불교대학, 신도회 상견례, 경전반, 합창반, 대금반, 참선반 등 크고 작은 사찰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는 등 신도회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운수사에는 기복신앙을 탈피, 올바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그만큼 신도회의 일거리가 많다는 말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취미생활을 사찰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사찰회보인 '운수회보'를 복간, 신도들의 교리 공부와 소식을 챙겨 전하고 있다. 운수사의 토요참선반은 주 5일제 근무에 대비해 부족함 없는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공부하는 신도회의 표상이 되고 있는 운수사 신도회의 황영순 회장과 경전반 도반들은 보다 많은 이들이 경전공부에 함께 해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접할 수 있길 발원하며 불법을 펴는 크고 작은 일들에 게으름 없이 정진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추천의 말**

유정스님 운수사 주지



신도회 화합을 이끌고 있는 황 회장은 법보시든 재보시든 보시공덕을 숨어서 행하는 분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노인들과 함께하는 삼사순례, 어려운 가정 학자금 지원 등을 모르게 해온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정도로 드러내지 않고 실천합니다. 부인인 김선옥 보살님과 아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신심있는 불자가족이 바로 황회장네 가족입니다.

황 회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언행이 일치하는 분명한 분입니다. 지역사회나 사찰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정진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천차만별의 개성 강한 사람들이 모인 사찰 신도회를 운영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도 한 번도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에 신도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인격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회장은 운수사와 대중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분입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당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 불교대학을 찾아서

## ⑦봉선사 불교대학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열리는 봉선사 불교대학은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둔다. 사진은 수업 중인 8기 학생들.

### 경전위주 교육…천수경등 10개월간 공부
### 다양한 봉사활동, 배운것 실천에 자부심
### 경전강좌 · 불경서당 따로 개설 문호 개방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금강 거사는 수요일 아침이 부산스럽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까지 불교대학 수업(오전 10~12시)을 들으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면 할수록 재밌고 더 배우고 싶은데 졸업하면 어디서 더 공부할까 걱정"이라는 김 거사는 '경전강좌'에 등록하는 문제를 고민중이다. 경전강좌는 불교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경전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올 3월 개강했다. "걸어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거사는 "분당이나 성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뭘"이라고 말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면)는 교종본찰이기 이전에 '교육불사'의 도량임을 자부한다. 조계종 신도기본교육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기본 교육을 담당하는 교양대학(91년 개설)과 전문 교육기관인 불교대학(95년 개설)을 운영해 왔고, 경전강좌와 불경서당을 따로 개설하고 있다. 불경서당은 경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봉선사 불교대학은 다른 불교대학과는 달리 경전 위주로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는 게 특징이다. 〈천수경〉〈금강경〉〈선가귀감〉〈반야심경〉〈관음경〉 등을 10개월 동안 공부한다. 봉선사가 전문 강원인 능엄학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강사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8기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박송담 거사는 "20여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뜻도 모르고 〈천수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해 왔는데, 실생활을 들어가며 가르치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해마다 두 차례 있는 성지 순례도 남다른 데가 있다.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교육 시간이다. 강사 스님들은 자료를 잔뜩 준비해 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올 4월 금산사와 미륵사지 성지 순례를 다녀온 뒤 8기생 150여 명은 우리 나라 미륵 신앙에 대해 마스터했다.

하지만 봉선사가 '으뜸가는 교육본찰'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도교육 과정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교양대학이나 불교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한다는 데 긍지를 가지고 있다. 졸업생들은 신도회나 합창단 등 신도단체 활동에 열심인 것은 물론,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찰 봉사단을 꾸릴 때는 100여 명이 지원했을 정도다.

고등학교 때까지 성당에 다녔지만 지금은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 당당히 '불교'라고 쓴다는 7기 졸업생 부원각행 보살은 "〈천수경〉을 배우고 나서야 봉사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업을 조금이라도 갚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다.

담당 법사 여산 스님은 "봉선사 불교대학은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그것이 실제 생활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끄는 데 가장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 수업 · 법회준비 · 뒷정리
### "너무 즐거운 일이랍니다"
### 8기생 이법륜화 보살



"불자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새내기"라고 말하는 불교대학 8기생 이법륜화(35) 보살은 요즘 봉사활동 재미에 푹 빠져 산다. 수업 준비나 뒷정리는 물론 일요일에 열리는 어린이 · 군인 법회의 먹거리 준비, 신도회 사무실 청소도 법륜화 보살의 몫이다. 일요일에도 절을 찾아 일주문 건립 기와불사 접수라도 받아야 한다. 지난 해 교양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작한 일이다. 법륜화 보살은 "절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몸이 가뿐하다"고 말했다.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 '후원합시다'

## 손녀 · 장애인 딸 뒷바라지 7순할머니

## "나 세상뜨면 누가…"

### 배추 · 파밭 돌며 주운 채소 팔아 생계
### 의사소통 어려운 딸 사흘 멀다 가출

"내 앞에서 죽어라. 내 죽고 없으면 불쌍한 너는 거지밖에 더 되겠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에게 조소연(74) 할머니가 내뱉는 한숨섞인 말이다. 부산 개금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아이같은 딸 김윤자(30)씨와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스런 손녀 혜진이(16)와 살고 있는 조소연 할머니. 95년, 이곳 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집걱정은 덜었다고 해도 여섯 살 때부터 부모없이 자라고 있는 손녀를 보고 있자면 가슴이 아리며 눈물이 울컥 쏟는다.

'엄마'라는 말만 뚜렷할 뿐 의사소통이 어려운 딸은 사흘이 멀다하고 길을 잃어 짧게는 하루만에, 길게는 열이레만에 돌아와 할머니 속을 태웠다. 몇 년 전만 해도 진주, 포항, 울산 등지의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일쑤였다. 길을 잃을 것에 대비해 가슴에 달아두었던 이름표를 보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할머니는 딸을 찾기 위한 전단도 준비해 놓았을 정도. "잠도 못자고 이 골목 저 골목 찾아 헤맬 때 마음 같아서는 돌아오면 흠씬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는 못나가게 해야지 싶다가도 막상 얼굴만 보면 반가워서 그럴 수가 있어야지."



◇세상물정 모르는 딸 윤자씨는 늙은 어머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처럼 어리광만 부린다.

딸도 딸이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가슴 속에 서늘한 바람이 분다.

"어미는 집을 나가버리고, 애비는 생사도 몰라요. 손녀한테는 죽었다고 했지요. 어린 것이 집안 형편을 헤아려서 뭐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는 걸 보면 대견하다가도 마음이 아파요." 착하게 자란 손녀딸은 이제 복지관 봉사활동도 나가고 커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속이 깊다. 그런 손녀를 위해 얼마 전 할머니는 월부로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다. 8만원이면 중고컴퓨터 산다고 말해왔던 손녀딸이 안스러워 무리를 한 것이다. 환한 웃음 한번 웃어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언어장애와 다운증후군을 앓고있는 자식을 낳아 숨 한번 편히 못 쉬고 살아온 나날이었다. 그래서 희망같은 손녀를 위해 앞뒤 없이 일을 저질렀던 것. 월부금 갚아나가기가 빠듯하지만 할머니는 시장에 안 가는 것을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다.

몇 십년을 배추밭, 파밭, 무밭 등지를 돌아다니며 상품가치가 없어 버린 채소들을 주워다 육교 앞에서 행상을 하며 지켜온 가족들. 허리가 아파 그 일마저 할 수가 없게 된 할머니 가족의 한달 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종의 보조금 50여만원이 전부다. 할머니의 허리 치료는 고사하고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 딸 치료와 손녀의 교육비 걱정에 몸은 앓아 있어도 마음고생은 더욱 심해졌다.

"손녀가 다 클 때까지 못살잖아요. 그러니 늘 그게 걱정이에요. 나 죽고나면 딸도, 손녀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할머니의 다른 자식들도 하나같이 형편이 어렵거나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약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올 1월 먼저 보낸 아들 얘기에 목이 매지만 남아 있는 손녀의 앞날이 할머니 눈앞을 뿌옇게 흐려놓는다.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5-12-029693-2(예금주 김윤자)

전화 : 051)894-5408

부산=천미희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 〈6〉 옥수수 굽는 아낙



### 매운 연기 마셔가며 비오는 날도 구워
### 모진 가난 속에서도 웃음 잃지않는 심성

우리 옆 동네 사원의 공터에는 날마다 자그만 시장이 열립니다. 아낙네들이 자루나 보따리를 이고 와서 길가에 펼쳐 놓는 물건들은 대부분 농산물입니다. 콩, 감자, 옥수수, 양파, 양배추, 파, 깨, 호박, 고소, 파, 고추, 가지, 호박잎, 열무 같은 것들입니다. 30 루피(약 450 원) 가지고 나가면 대여섯 식구 두 끼 먹을 국이며 찬거리로 충분합니다.

길가 시장 한 귀퉁이에는 남의 가게 처마 밑에서 옥수수를 구워 파는 아낙네도 있습니다. 수북히 쌓인 옥수수 껍질 위에 두어 살 된 딸을 앉혀 놓고, 아낙네는 숯이 된 장작불을 후후 불어가며 옥수수를 굽습니다. 매운 연기 때문에 아낙네의 눈은 빨갛고 가끔 눈물도 맺힙니다. 아낙네의 헝클어진 머리칼에는 재가 허옇게 앉아있습니다.

우기에 접어든 카트만두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아낙네는 옥수수를 굽습니다. 어린 딸은 여전히 옥수수 껍질 위에 앉혀 놓고서 비 안 올 때보다 매운 연기가 더 많이 나는 숯불을 후후 붑니다. 비 오는 날은 옥수수 굽는 냄새가 평소보다 더 구수하게 코를 자극하므로 옥수수가 잘 팔립니다. 그래서 아낙네는 비 오는 날일수록 더 열심히 숯불을 후후 불었나 봅니다.

저도 비 오는 날 처음으로 구운 옥수수를 샀습니다. 두 개에 5 루피(약 75 원)였습니다. 5 루피는 카트만두의 시내버스 요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네팔 담배 두 개피 값입니다. 저는 10 루피를 내고 다섯 개를 달라고 해 보았습니다. 아낙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달라고 보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작고, 까맣게 탄 데가 많은 것이었습니다.(그래도 그 옥수수가 제일 고소했습니다.)

그 얼마 후, 산책을 나갔다가 비가 올 듯 하늘이 컴컴해져서 서둘러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그 아낙네가 내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옥수수 자루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땔나무 한 묶음을 들고서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위태롭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머스떼(당신에게 귀의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그녀도 '너머스떼' 하며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조금 수줍은 표정이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웃었습니다. 모진 가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녀가 몹시 부러웠습니다.


# 선 무 도 화 랑 수 련 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1개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무용, 다도)
▶ 동 참 금 : 학생(1일 – 2만 원, 1개월 – 60만원) 일 반(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수 련 비 입금계좌 :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 기 준
▶ 준 비 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우산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 과 표

| | | | |
|---|---|---|---|
| 4시 |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 13시 | 독서와 사색 |
| 5시 | 좌 선 | 14시 |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
| 6시 | 조깅, 등산 | 16시 |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
| 7시 | 아침공양(발우 공양) | 18시 | 저녁공양 |
| 9시 | 오전수련 | 19시 |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
| 11시 |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 19시 30분 | 저녁수련(일반인) |
| 12시 | 점심공양 | 21시 | 점호 및 취침 |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 수중릉(봉길해수욕장)성지순례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재,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스님, 사범등 지도진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및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 대학원 졸업생)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 2002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후기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2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

① 모집학과

| 학 과 | 교 육 내 용 | 모집인원 | 비 고 |
|---|---|---|---|
| 기본 교육과정 |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 · 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 20명 | 6개월 |
| 전통교육과정 |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 20명 | 1년 |
| 연구과정 | 요잡, 작법, 안차비 등 | 10명 | 1년 |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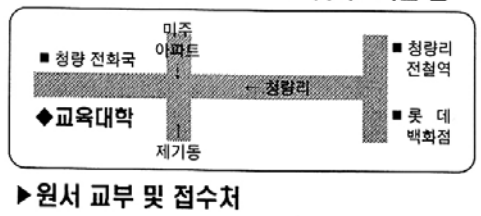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2年 7月 15日 ~ 8月 19日
▷ 개 강 : 2002年 8월 20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그림 · 문병성

박영재 교수의

# 첨단 과학과 불교 ⑦

## 자동차에 관한 두 견해

## 수행자 자세로 대중교통이용-환경보호

## "온몸 車가 되니 빠르고 늦음이 자유자재"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산물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환경오염' 문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에 따른 환경보호와 환경관련 법규 대응 및 21세기 자동차시장의 선점을 위해, 초저연비 · 저무공해 자동차 기술을 범국가적 사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만든 연료전지 차 '네카르5'는, 2002년 5월 20일 서부 캘리포니아주 주도인 새크라맨토를 출발, 6월 4일 최종 목적지인 워싱턴에 도착함으로써,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역이용한) 연료전지 차로는 사상 첫 미국대륙 횡단에 성공했다. 이로써 무공해차의 상용화시기를 2010년으로 20년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 차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했는데, 한번 넣으면 4백80km가량 주행하였으며, 최고시속 1백50km까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정상적이던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사망케 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평균 약 25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5만 명이 부상당하고, 1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역학에너지 보존법칙(운동에너지+퍼텐셜에너지=일정)'을 이용해 보자. 운전자가 각각 시속 54km, 72km, 108km(각각 초속 15m/s, 20m/s, 30m/s)로 수평으로 주행하다 충돌했을 경우를 수직운동으로 바꾸어 몇 층 높이에서 추락할 때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각각 시속 54km, 72km, 108km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속도에 대한 공포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높이가 h인 건물의 꼭대기에 질량이 m인 사람이 서 있을 경우 퍼텐셜에너지(=역학 에너지)는 mgh이다. 여기서 g(=9.8m/s*s)는 중력가속도이다. 반면 이 사람이 뛰어내려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할 경우, 퍼텐셜에너지는 모두 운동에너지(=역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mgh=mv*v/2$ (=일정)이란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높이는 $h=v*v/(2g)$이기 때문에 높이는 각각 11.5m, 20.4m, 45.9m이다. 그런데 건물 한 층의 높이는 약 3m정도이므로 각각 대략 4층, 7층, 15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에 관한 두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환경문제는 비록 멀지 않은 장래에 무공해차가 상용화는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기에는 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온 국민이 수행자적인 마음자세를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동을 벌여 환경보존에 기여해야할 때라고 판단된다. 필자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차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한다. 그전까지는 출근할 때 무조건 자가용차를 타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다 한 학기에 한두 번 저녁 때 술을 한 잔 할 일이 생겨서 버스나 지하철을 몇 번 이용한 뒤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재미가 들렸다. 그러면서 몇 번 이들을 이용하다보니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더 빠를 때도 많고, 운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 그동안 수행에 몰두할 시간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시간을 맞추어 갈 일이 있는 모임은 지하철을 타면 어김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물론 한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닐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두 정거장 걷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특히 좌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다리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걸을수록 좋다.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문제는 앞에서 물리학적으로 위험 수치를 충분히 쉽게 제시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마음자세로 속도를 높일 때마다 충분히 앞차와의 안전거리(평소 시속 100km일 때는 앞차와 100m거리 유지!)를 늘려나가면, 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무문관(無門關)' 제 8칙에 차(車)와 관계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월암(月庵) 화상이 한 스님에게 "해중(奚仲: 수레의 시조)이 수레[車]를 무수히 많이 만들었는데 양쪽 바퀴를 떼고 축까지 뽑으니 무엇하려고 하는 건고?" 하고 물었다. 이 이야기는 수레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던 시대에 살던 월암 스님이 제자들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낸 화두이다. 따라서 수레를 오늘날의 차로 알고 이 화두를 공부하면 된다. 사실 차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조금만 정신차리면 값진 선 수행을 할 수 있는 데, 차에 관한 모든 것은 이 한 화두에 다 집약될 수 있다. 자! 덤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짜증나는 행락철, 월암 스님의 배짱을 일시에 꿰뚫어 다음과 같은 경계를 체득해 보시기 바란다.

온몸이 차가 되니(통신시차通身是車)
느리고 빠름이 자유자재로구나(완급자재緩急自在)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 이렇게 들었다

##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미군 장갑차에 짓밟힌 꿈**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효순(14, 조양중 2), 심미선(14, 조양중 2)양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다,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운전자 마크 병장)에 압사당해, 채 피우지 못한 꿈들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군측은, 정상적인 훈련 중에 생긴 일이고, 안전수칙을 지켰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한미합동조사반을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정작 사고현장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며, 취재하던 인터넷 방송 기자를 폭행, 불법 감금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위측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공식사과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단 구성 △양주 미군훈련장 폐쇄 △유족에게 피해배상 실시 △불평등한 SOFA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 중요한 얘기들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14살 꽃다운 여중생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다. 그러나 마크 병장 등은 사고 다음날에도 자숙은커녕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떠들어, 같이 근무하던 카투사들이 격분,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나이, 성별, 종교, 빈부, 피부색을 떠나,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위없는 존재다.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상응부경전〉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법구경, 129〉

##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⑲**

### 지금 여기에 뚜렷한 것

## 만사가 본래 명백한데 무슨 말을 붙일까

바로 지금 눈 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이 듣는 것인 이 사람은, 곳곳에서 막히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三界)에 자유 자재하여 모든 차별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바뀔 수가 없다.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說法)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에게 설법하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에게 설법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에게 설법하니,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한 생각을 떠난 적이 없다. 이르는 곳마다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투과하니 온갖 것들이 한결같다.

한 마디 말도 붙을 자리가 아니다. 한 생각도 붙을 자리가 아니다. 말을 세웠다 하면 이미 벗어났음을 느낀다. 생각을 굴렸다 하면 벌써 엉뚱하게 빗나가 버렸음을 안다. 한 마디 말도 붙이지 않고 한 생각도 내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분명하고 담담하고 후련하고 흔들림 없고 아쉬움 없고 안온할까? 알 수 없고 생각을 붙일 수 없는 자리라서 온갖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고 말을 붙이지도 않고 알음알이도 없지만, 다가오는 인연에 응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조금의 장애도 없다. 도리어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붙이고 알음알이로 헤아릴 때가 훨씬 더 힘들고 장애가 많음을 안다.

여기 생각도 말도 붙을 수 없는 자리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이 자리의 힘이 충분이 강해지고 보면, 본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한 점의 남김도 없이 모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은 오로지 한결같을 뿐이다. 말이 붙을 수 없는 이 자리에 한 마디 말이 있고, 생각이 붙을 수 없는 이 자리에 한 생각이 있으며, 보고 듣고 느끼고 의식하는 것이 모두 이 자리에서 한결같을 뿐이다.

이 자리라고 할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면서도 말이 없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각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진실은 너무도 뚜렷하고 명백하게 체험되어서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 의식적으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의식의 습관적 조작이겠지만, 그러한 의식의 조작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안다. 사실 부정과 긍정, 수용과 거부는 의식의 조작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분명하고 명백할 뿐 분별하고 판단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눈 앞에서 벌어지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생각되고 의식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고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지만, 한 생각도 그곳에 개입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의 불편이나 갈등이나 의심이 없다. 바로 지금 눈 앞에서 한결같이 명백한데, 다시 무슨 말을 붙이고 무슨 생각을 굴리겠는가? 본래가 그러할 뿐인데, 스스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7. Enlightenment
After overcoming temptation, enlightenment is complete. For forty-five years, Sakyamuni wandered and taught anyone who was interested in his understanding of reality.

유혹을 물리친 후 깨달음이 완성됐다. 석가모니 부처는 45년 동안 유랑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가르쳤다.

8. Entering Parinirvana
At the age of 80 the Buddha passed away between two sala trees and many disciples and animals gathered to moum his passing. In elaborate paintings, there is a colorful shower of relics from the burning casket. Around the body are crowds of both heavenly and earthly moumers.

석가모니 부처는 80살이 되자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었다. 많은 제자와 동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석가모니 부처의 죽음을 그린) 정교한 그림에서는 다양한 색채의 사리가 쏟아져 나오고, 주위에는 천상과 지상의 애도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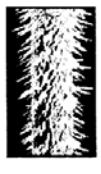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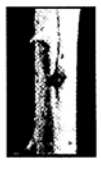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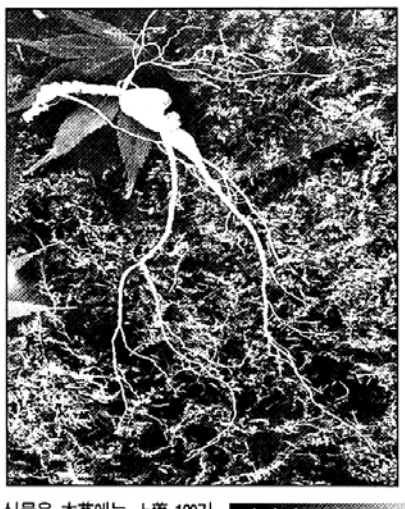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虔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則速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 목어 미국에 대한 단상



미국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반미적 감정을 더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다분히 감정적인 반미에 눈하나 꿈쩍하지 않을 나라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다. 몇년 전 한달간 미국을 여행했을 때다. 너무도 넓은 땅, 풍요로운 자원…. 여행하면서 괜히 심통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자원과 국토에 대해 놀랐던 것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워싱턴 시티에서 역사박물관에 들렀을 때였다. 흑인 폭동,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의 과정 등, 그들 역사의 아프고 추한 모습들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자료들은 미국의 모든 법률과 제도들이 하나도 거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자유로운 삶의 이상을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구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개성 강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부딪치면서 하나 하나 세워온 질서의 자취들…. 짧은 역사지만 자신들이 투쟁과 노력을 통해 건설한 것에 대해 가지는 경건한 느낌을 많은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듯 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가장 큰 저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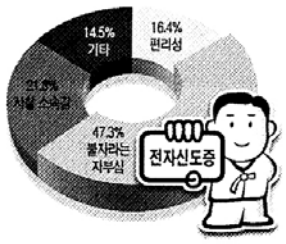
미국에 비한다면 너무도 긴 역사 속에 전통과 문화를 물려받은 우리. 그러면서도 전통의 급격한 단절 속에서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근현대사의 굴절 속에서 해방조차도 우리들의 힘으로 얻지 못하고, 계속 열강의 장기판에 피동적으로 휩쓸린 우리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느끼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조상들의 피땀을 느끼기엔 너무 큰 단절이 있고, 오늘의 제도와 문화를 내가, 우리가 세웠다고 하기엔 너무도 거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경건한 열정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다.

쉽게 얻은 것, 우리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혼란들, 그 가운데 이루는 조그만 성과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일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제헌절을 지내며 든 생각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 불자의 생각

### 전자신도증




카드 한 장 만으로도 경제생활이 가능한 시대, 이제 카드는 경제적 수단의 개념마저 뛰어넘고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에 신행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신도증의 기능이 결합된 '전자신도증'에 대한 매력도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 "갖기 원한다" 응답 68.6%

72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붓다뉴스 설문에서 49명(68.6%)이 전자신도증을 갖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전자신도증의 가장 큰 매력은 편리성(16.4%) 보다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47.3%). 사찰에 대한 소속감 고취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21.8%였다. 임연태 기자

## 불자 세상보기



이희재
광주대 교수
철학과

# 입시위주 교육 '교실붕괴' 초래

우리나라의 관습은 집안어른, 교사, 선배 등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왔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위계질서가 있고, 그런 위계질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구사회의 평등과 인권은 어른이나 교사, 선배 등의 위계질서를 떠나 상호간의 인격존중을 요구하는 일종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권위나 청소년의 권위가 올라간 대신 노인이나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 등은 오랜 전통과 새로운 가치사이의 충돌 가운데 권위적인 요소가 사라져 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학교는 약간은 혼돈상태에 있다. 교사는 전통적인 권위와 존중을 학생들로부터 기대하는 반면, 학생들은 서구적 인격존중과 평등성에 바탕을 둔 탈권위의 자유로움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교육, 타율적인 강제수업이 아닌 그야말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교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희망사항은 대학입시라는 절대 지상의 명제 앞에 무력한 명분이 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학부형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의 수업도 부족하여 특별과외를 시켜서라도 점수만 올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 전체교육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치열한 입시전쟁터의 이런 교실분위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소수일 것이 자명하다. 부모와 교사의 방침을 순응하고 소위 명문대학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각오를 하는 부류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얼마전 경기도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중 4명이 '학교를 그만 두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중학생 25.4%, 고교생 25.7%가 '공부하는 게 무조건 힘들고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시전쟁터가 돼버린 교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학교가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두 아들의 둔 학부형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모범생인 큰 아들은 이런 한국적 교실분위기에 잘 적응하여 서울소재의 대학에 입학했다. 다른 집처럼 고액과외를 시키지도 않았고 공부에 대한 어떤 강요도 없었는데도 잘 적응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친구와 어울리기 좋아하는 둘째 아이에게는 고등학교의 교실분위기는 괴로움이다. 교과 성적이외의 일로는 거의 평가받을 수 없는 그에게는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마저도 불투명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예절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나의 교육방침의 요점은 간결하다. "선생님은 옳다"라는 것이다. 때때로 아이들이 학교 교사를 평가할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간결하다. "선생님은 옳다"라고 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교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학교는 이미 학교가 아니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학부형의 폭력,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 오늘 우리들의 교실이 너무도 황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사실 그것은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입시위주의 교육이 있는한 학교에 대한 불만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부가 6월 15일부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회장 ㅈ거)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신고제 시행에 따른 종교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개선을 요구하는 종교계의 의견을 소개한다.

### 10인 미만 시설도 관청서 관리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해 97년 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1년 조사시 637개소로 파악됐다. 기존 시설부족, 신고시설의 입소기준 엄격, 재정부족, 시설 이용의 자유 등이 미신고 시설을 상존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신고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미달돼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 있어 대형 안전사고, 인권유린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전면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6~8월 실태조사와 조건부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 2005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내에 조건부 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설장 자격 획득,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과감히 퇴출 조치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기준 완화, 10인 미만 시설 근거 마련, 시설장 자격기준 완화, 비상 재해시설 기준 통일 등의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10인 미만 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공공요금 일부, 개·보수비, 복지 전문인력 지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아동시설 등 수요에 비해 수용능력이 부족한 시설과 주단기보호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시설운영주체 입장 고려돼야

**지거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대부분의 미신고 소규모 복지시설들은 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복지활동의 씨앗 역할을 해 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미신고시설 지원·관리 방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대책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관리 중심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시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신고를 꺼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은 현재 약 40여 곳으로 파악된다. 규모면에서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250여명에 이를 만큼 각양각색이다. 이들 불교계 미신고시설들이 정부의 미신고시설 신고제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불교계 미신고 시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할 경우 그린벨트내 시설과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은 철거해야 한다. 게다가 정기적인 보고, 감사 등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 추가 인력이 필요해진다. 종단에서는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현황 파악과 신고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단이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성화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주체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영세한 시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제시, 민간의 참여와 의견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재정 등 개선 위한 지원 필수

**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으로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보호함으로써 신고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복지욕구를 보완·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신고시설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것은 점차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별적 복지의 문제를 민간부분이 스스로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적, 운영적, 수요자적 측면에서 공식적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공식적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대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복지시설은 시설규모의 영세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오는 재정의 한계와 이로 인한 시설 설비의 미비와 프로그램 수행 한계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시설운영으로 인한 시설 안정성과 시설의 미비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시설의 증개축,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일반시설의 입소기준 현실화 및 신규 시설 설치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등을 통한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단 노력 등이 필요하다.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무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빼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5박6일)

전화 031)867-4131 , 011-214-4135 ,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서경다도연구회

"비구니스님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취 지

서경다도연구회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수행정진하는 비구니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는 비구니스님들을 모셔서 한달에 한번 茶회와 茶연구로 인한 교류를
통하여 부처님의 정법으로 수행정진하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알리는 다도시연

〈 다담선 : 茗禪茶會〉〈 중국다도 : 김영숙〉

일 시 : 7월 26일 (금) 오후 4시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문 의 : ☎ 031)984-8541
발기인 : 동조(보륜사) 정언(죽림사) 종묵(화성사) 승헌(혜진선원) 성은(홍법사)
정민(석불사) 목산(정불암) 혜성(백련사) 혜조(정룡암)

## 제4차 JTS국제워크캠프 열려

새벽 4시 반 기상, 드디어 첫 삽을 뜨는 날. 둥게스와리 마을로 일을 하러가는 날이다. 지난 이틀간에 걸쳐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입제식과 강의, 실습교육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현지 마을 리더들을 따라 연장과 주먹밥을 들고 떠나는 워크캠프팀들, 사워장을 짓고 우물을 보수하고 담장을 쌓아올려야 한다.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며,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아올리고 미장까지 해야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 해보는 것들이다. 목표한 공사들을 다 마칠 수 있을까.

# 대학생 49명 印마을 지원



◇JTS 국제워크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마을에서 '마을 개발사업' 중에 틈을 내 물가촉천민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있다.

### 유치원 교육 · 아이들 목욕 · 이발 봉사
### 문화공연 관람 · 보드가야 대탑 참배

그러나 참가자들은 스스로에게 놀란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던 의심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해낸 성과들을 보고 자신감으로 바뀐다. 그들이 하는 일이 벽돌을 쌓아올리는 일이지만 그것은 벽돌이 아니라 희망이 쌓아지는 것이다. 서로의 불편함은 조금씩 참아가면서, 토고 느끼고 사랑하는 과정. 워크캠프는 참가자들에게 '관계'의 문제를 일깨워주었다.

하루의 마감인 '마음나누기' 시간. 각 조별로 각자가 그날 하루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털어놓는다. 그들은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JTS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일대에서는 한국인 청년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제4차 JTS 국제워크캠프가 열렸다. 서류와 면접, 사전교육을 마치고 선발된 49명의 대학생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2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 15박 16일 일정의 워크캠프 행사에 참가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JTS의 국제워크캠프는 매년 7월 국내의 청년대학생들을 모집, 인도 현지 마을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주로 육체적 노동으로 공동시설을 짓고 고치는 일을 진행한다. 각 마을에 설치된 캠프 안에서는 조원들끼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마을유치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동네아이들을 모아 목욕이나 이발을 해주고, 마을 리더들을 통해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기도 한다.

올해 JTS 국제워크캠프에서는 둥게스와리 일대 5개 마을의 개발사업을 지원했다. 현지 마을 리더들은 워크캠프 전에 인도 JTS를 통해 각자의 마을에 필요한 공동작업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로 지면과 비슷한 높이의 우물 담을 보수하는 작업과 마을 유치원들의 담장과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울타리 쌓기, 우물가에서 옷을 입은 채 샤워를 하는 부녀자들을 위해 필요한 샤워장 시설의 신축 등이 진행됐다.

JTS에서는 17명의 자원봉사자가 캠프진행요원으로 활동하고 6명의 마을리더들이 각 캠프팀을 지도하는 속에 각 조별로 예정된 공사들을 마쳤으며, 마지막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드가야 대탑을 참배하는 것을 끝으로 캠프를 해산했다.

JTS는 7월의 자체 워크캠프 이외에도 IWO(국제워크캠프기구)의 상설캠프를 1, 2월에 설치하고 있으며 KOPION(세계청년봉사단)을 통해 6개월 장기 자원봉사자들도 받고 있다.

인도 보드가야= 김동훈 통신원



◇캄보디아 스님들이 프놈펜 왕궁내에 만든 모형 '앙코르 와트' 사원을 쳐다보고 있다.

##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에 앙코르와트 사원 모형

1113년에서 1150년 사이 약 37년만에 완공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Angkor Wat).

가로 1.3 km 세로 1.5 km의 거대한 해자(垓子, 성 밖을 둘러 파서 못으로 만든 곳)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사원이다. 해자의 폭은 200m, 그 길이는 5.5km 나 될 정도로 앙코르와트의 건축 양식은 세계의 불가사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앙코르 와트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내에 모형으로 세워져 불자들을 맞고 있다.

전쟁기간 중 200만명이나 살해된 '킬링 필드'의 땅 캄보디아에 최근 6개월간, 29.2%의 관광객이 늘어날 정도로 불교국가의 명성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907년 '영국 · 아일랜드 불교협회'가 창립된 95년만에 앤공주가 영국 왕실을 대표해 처음으로 불교사원을 공식 방문했다.

## 앤공주, 英 왕실 최초 불교사원 방문

### 부처님께 꽃 공양, "서구인들 불교에 관심가져 기쁘다"

영국의 앤(Anne) 공주가 왕실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불교계를 방문했다.

앤 공주는 10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불자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런던불교사원을 방문. 런던불교사원의 주지이자 영국불교협회 회장인 메다가마 바지라그나나 테로(Dr. Medagama Vajiragnana Thero) 스님과 신도들의 환영을 받았다.

소녀 불자들의 염불 속에 사원 건물에 들어선 앤 공주는 꽃을 받아들고, 대웅전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렸다. 각국에서 온 25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불자들은 앤 공주 앞에서 전통 불교무용을 선보였다.

이날 앤 공주는 자신이 '어린이 구호재단(Save the Children Fund)'의 후원자로서 태국, 몽고, 티베트 등 여러 불교국가들을 자주 방문해,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국에서 불자들이 평화롭게 살아서 행복하며, 많은 서구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영국 불교도들이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명상을 가르쳐 범죄를 짓지 않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앤 공주는 새로 건립중인 불교회관의 주춧돌과 현판식을 제막하며 영국 불교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국 불교는 1907년 '영국-아일랜드 불교협회', 1924년 '영국 선불교협회', 1926년 영국 마하보디협회의 설립에 이어 1928년 영국불교사원이 창건되면서 9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32. 원효, 의상에 세가지 의문 풀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승려상이며, 학자, 화엄종의 개조, 신라의 삼국통일이후 피폐해진 인간관을 화엄의 실천으로 융화시킨 인물이며 교육자였던 의상(義相, 625-702)스님은 702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의상의 문하에는 3천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있었으며 10대덕(十大德, 悟眞, 智通, 表訓, 眞定, 眞藏, 道融, 良圓, 相源, 能仁, 義寂)이라고 불리우는 열명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계승해 해동 화엄종의 실천적인 전통을 이어나갔다. 특히 부석사계 화엄종에서는 구산선문을 여는 대낭혜 무염선사와 지증도헌선사 등의 대선사들을 배출함으로써 선으로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점은 선과 화엄의 융합을 통해서 화엄의 교리를 종교적 실천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의상과 원효는 동시대를 살면서 수행과 학문의 길을 함께 걸어간 스님들이며 심지어는 당시 불교문화의 발신지였던 당나라에 함께 유학을 떠나려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우리 불교사의 공간에서 화엄사상을 말하려면 먼저 의상과 원효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해동화엄의 종조라고 불리우는 의상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 동시대 살면서 수행 · 학문 함께
### "원효, 의상 만나 의문 해결"
### 균여계통 화엄학승 의상 존중

두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의상은 철두철미하게 대학승으로서, 불교승가의 사표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갔지만 원효는 입당(入唐)중의 깨달음으로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오직 알음알이이다.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으니 나는 오랑캐들에게 특별한 배움을 구하고 싶지 않으며 당나라에도 가지 않겠다(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我不入唐)"라고 선언한 뒤 매우 독창적인 저술과 준엄한 수행으로 대중앞에 나선 인물이다. 즉 우리는 두 스님의 인간상에서 체제안의 질서와 체내 밖의 무애를 완성한 두 라이벌의 모습을 살 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라이벌들에게서는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서로를 일깨우면서 한 시대를 드높은 불교정신으로 장엄하는 고승들의 잔잔하면서도 장려한삶이 느껴진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의상은 소백산맥의 봉황산 기슭의 부석사에 주석하면서 화엄경을 강의하는 등 해동 화엄종의 기초를 닦는다. 인품과 학덕으로 빛나는 그의 주변에는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신라의 수많은 영재들이 모여들었다. 의상은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펴는 일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화엄 10찰이라고 불리우는 해동 화엄종의 본산들이 전국의 명산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최치원은 〈법장화상전〉에서 "해동 화엄대학은 10산에 있다(海東華嚴大學之所 有十山焉)"고 분명히 기록한다.

당시 의상은 젊은 날의 도반이었던 원효스님에게 불교인식론의 진수를 해명해 주기도 한다. 원효가 의상을 만나 세가지 의문을 풀었다는 기사를 〈법계도기총수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문헌은 원래 고려 대장경의 보유판으로 판각되어 해인사에 전해져오다가 최근에야 학자들의 조명을 받고 있어 완벽한 한글번역은 없다. "〈대기(大記)〉에 이르기를 '고사(古辭)'에 원효법사가 의상법사를 만나 의심을 푼 것이 3가지이다. 그 하나는 시각(始覺)이 본각(本覺)과 같아 범(凡)도 되고 성(聖)도 된다는 뜻이요, 둘은 습과해종종심(習過海種種心)의 뜻이요, 셋은 이능전(能詮)과 소전(所詮)이 모두 언증지처(言中之處)에 있다는 것이다. 원효법사의 뜻은 곧 하교(下敎) 중에 법체가 실유한다는 실유법체(實有法體)라고 생각했으나 이 글을 보고 곧 능전소전이 모두 언중에 있으나 법체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무법실체(無法實體)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 기사를 싣고있는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隨錄)〉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 주석과 강의를 집대성하고 있는 문헌이며 저자는 불명이다. 다만 고려 균여(均如)의 〈지귀장원통초〉가 인용되어 있어서 편찬연대의 하한은 균여이후이며, 균여계통의 화엄학승들에 의해서 편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로서는 균여계통의 학승들 또한 의상이 원효의 의문을 풀어주는 한 수 높은 교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학회 회주


# 육六임壬래來정情비秘법法

◎ 혁 신 판 (全12卷) 활인전문천역자용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 활인천역자(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 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 · 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 · 시식 · 부적 · 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월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 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히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 효 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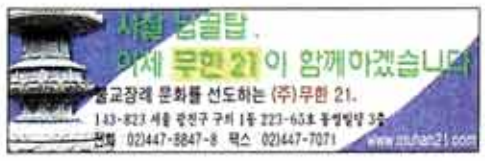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입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비디오강의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가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임학당효사숙 입강안내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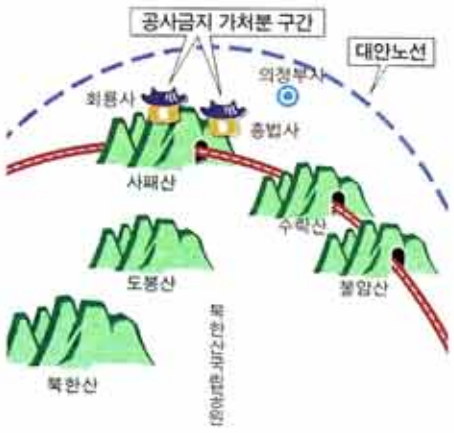
※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팅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뭇생명의 터전을 허물지 마라" 철마선원은 북한산을 할퀴고 간 건설공사 현장을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다.




◇철마선원을 지키고자 모인 전국 강원의 학인들.

# "자연을 죽이면 인간도…"

# 북한산 뒤덮은 분노의 함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하기위해 세운 교각이 경기도 양주군 송추 부근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 사이로 관통도로가 예정돼 있는 사패봉이 보인다.

사방을 휘감은 철조망들. 터널 건설을 반대한다는 걸개그림을 매단 10m짜리 목조 망루. '자연을 죽이면 인간도 죽는다'라는 붉은 글씨의 현수막들. 반쪽이 베어져 나가, 벌겋게 토사를 드러낸 산허리가 쓰러질 듯 위태롭다.

포장만 안 되었을 뿐 길이 훤히 뚫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원각사 계곡.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인적 드문 북한산 입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북한산을 지키려고 철마선원(선원장 수경스님)이 버티고 있다.

철마선원은 신원파악이 되어야 안으로 사찰 내로 들어올 수 있다. 북한산을 파헤치고 굴을 뚫겠다는 '개발 마구니' 들이 철마선원을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8개월 째 북한산 살리기 정진기도를 하며 이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오후 7시. 평소보다 훨씬 늘어난 60여 명의 사람들이 철마선원을 수호하고 있다. 이날 아침 600여명의 용역깡패가 쳐들어온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항수단이 없는 스님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2개 중대가 파견돼 있는 모습은 사태의 위급함을 절로 느끼게 한다.

## 수행환경 파괴 위기 직면

이처럼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1년 11월 15일. 건설시공사가 대대적인 나무벌채에 들어가면서부터다. 불교계는 이때부터 간이법당을 세우고 천막농성을 하며 온몸으로 도로공사를 저지했다.

공사영향권 내에 있는 북한산 소재 30여 개 사찰들이 소음과 먼지 피해, 지하수맥 단절, 건물 파손, 신도 통행 불편 등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 파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주요한 피해를 살펴보면 진동 피해(송추 원각사, 지하수맥 변화(회룡사, 소음과 비산먼지(덕천사, 흥법사, 원각사, 천인사, 보현사, 대원사, 약수선원, 경내지 수용(흥법사, 천인사, 보현사) 등이다.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이런 대규모 공사가 추진됐다는 사실에 불교계는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예산 2조 3천억3백84억원(국고 9천6백68억원, 민자 1조4천16억원)으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서 남양주 별내면 화접리까지 34.9km(국립공원 통과길이 4.6km, 터널 4.1km), 8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며, 현재 구리→하남→안양→부천→일산까지 놓여있다. 이 도로를 뚫기 위해 LG건설 등 9개 건설회사들은 98년 서울고속도로(주)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 공사가 완공될 경우 북한산 자연환경은 크게 손상되고, 따라서 수많은 동식물이 사라질 것은 자명한 이치다. 동식물의 죽음은 곧 인간의 죽음이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북한산이 훼손될 경우 서울은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막 도시가 될지 모른다. 또한 북한산에 깃들어 천년 동안 지속되던 30여 전통사찰도 스님들이 떠나버려 폐사찰이 될 것이다.

## 불교계 환경수호 강한 의지

불교계와 건설업체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월 18일. LG건설 직원에 의한 비구니스님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성난 불심은 '자연환경을 수호하라'는 조계종 원로회의의 유시로 표출됐고,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달아 개최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환경시위인 '자연보존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대회'가 3월 5일 조계사를 달구었다. 3월 31일 북한산 살리기 나무심기 행사, 4월 9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들의 송추 방문 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월드컵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 후 북한산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감돌기 시작했다. LG건설과 건설교통부가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재개의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하루 8억원씩 손해가 난다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안 불교계는 6월 26일 조계사에서 다시 한번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해 공사중지와 대안노선 검토위 구성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일 청와대에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연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 서울광역신도회, 포교사단 등도 6월 26일부터 '북한산 살리기 환경수호단'을 결성해 철마선원을 지키고 있다. 17일부터는 전국강원연합회 학인들마저 교대로 상경해 철마선원을 외호하고 있다.

## "대안노선 검토해 우회해야"

서울지방법원은 16일 회룡사등 19개 사찰이 제기한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구간 공사중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불교계는 사찰 수행환경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관통노선이 지나가는 주요 구간인 회룡사와 흥법사에 대한 공사가 금지됐기 때문에 현 공사는 불가능하다"며 "대안노선 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노선검토위를 구성해 최적의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마선원장 수경스님은 "이번 판결은 합법적으로 설계됐다는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불교계와 환경운동 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각판결을 내린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 재개를 놓고 불교계와 건설업체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북한산 관통구간 7.5km 중 240m에 대한 공사만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서울고속도로 이영선 영업팀 부장은 18일 "우회도로를 건설할 경우 9천5백여억원의 정부재정지원이 불가피하고, 교통정체 현상도 해소도 힘들기 때문에 구간 변경이 어렵다"며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 재개의 뜻을 굽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한 "26일 철마선원 등에 대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불교계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사찰측과의 협상에 우선 주력하겠지만 토지 보상협의, 토지 수용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룡사 성견스님은 "시공사쪽이 토지보상이나 수용 문제를 협의해 온 적이 없으며, 제안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에 종단과 협의해야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사 뜻대로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로이터 등 외국 언론도 주시

이번 공사중지 판결로 인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은 누가 폭넓은 국민여론의 힘을 업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불교계와 건설업체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TV 토론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언론은 물론 로이터와 AP를 비롯한 해외언론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어 불교계는 한층 힘을 얻고 있다. 불교계는 정치권을 통해 공사 연기와 대안노선 검토 등의 약속을 얻어내고 이 문제를 차기정권에 이양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3·5 범불교도대회에서 "도로 건설은 차량증가를 부채질할 뿐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산이 결국 훼손된다면 또다른 국립공원의 훼손도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불교계가 북한산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원되기 어렵기에 불교계는 모든 세대의 소중한 근원인 북한산을 잘 보존해 후대에 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글=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지키고 있는 경찰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시민환경 단체 회원들이 16일 여의도 LG본사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의 중지를 촉구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 경전읽기

### 법화경 ㉮ 종지용출품 제15

#### 땅에서 솟은 보살들

범본(梵本) 〈법화경〉 제14장 '구도자(菩薩)들이 대지(大地)의 갈라진 틈새에서 출현했다'는 것을 〈묘법연화경〉에서는 '종지용출품제십오(從地涌出品第十五)'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종지용출품'에서는 첫머리에 6만 갠지스강의 모래(恒河沙) 만큼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구도자(菩薩)들이 땅속에서 돌연히 출현하여 이 사바 세계에서 〈법화경〉을 지키고 간직하며 넓히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 법회에 동참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땅 속에서 솟아난 구도자들에 대해 당연히 놀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이 구도자들이야말로 내가 옛날부터 교화한 사람들임을 밝히지만, 사람들은 성도한지 불과 40여 년밖에 되지 않으신 석존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께 그 까닭을 해설해 주소서 하고 간청한다.

이것이 이 15장의 줄거리인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품은 의문은 다음의 '제16장 여래수량품'에서 밝혀진다. 그러므로 이 15장은 구지런히 정진하며 이 〈법화경〉을 지켜 간직하고 읽어주고 외우며 쓰고 베껴서 공양할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참으로 이 국토에서 널리 〈법화경〉을 설할까 합니다"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그만두자, 선량한 남자들이여, 그 뜻은 고맙지만 그대들이 〈법화경〉을 지키고 간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거느리는 이 사바세계에는 6만 갠지스강 모래 수만큼이나 되는 위대한 뜻을 세운 구도자가 있으며, 그 하나 하나의 구도자에게는 각각 6만 갠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어, 이 여러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뒤에 〈법화경〉을 지켜 간직하고 읽어주고 외워주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바세계 전체의 땅이 모두 진동하면서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한량없는 천 만 억의 큰 뜻을 세운 구도자들이 동시에 솟아 나왔다. 그 구도자들의 몸은 황금색으로 서른 두 가지의 위대한 사람이 갖는 모습(大人相)을 갖추었으며 무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법화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사바세계는 만주슈리

## 땅 갈라지며 '큰 뜻 구도자' 솟아
## 무명깨고 일어난 부처님 제자들

성상에서 다음 '여래수량품'의 도입부에 해당하며 또한 '여래수량품'을 설하기 위한 복선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을 성립사상(成立史上)의 관점과는 달리 그 형태상으로 보면 '제14장 안락행품'과 '제15장 종지용출품'과의 사이에서 둘로 나누는 것이 중국이래의 전통적인 해석이다. 특히 천태지의(天台智顗)가 전반(前半) 14품을 적문(迹門), 후반(後半) 14품을 본문(本門)이라고 부른 이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본(本)'·'적(迹)'이라는 글자의 뜻은 '근본'과 '흔적'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장자(莊子)〉 '천운편(天運編)'에 나오는 '적(迹)', 즉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적하는 까닭', 즉 그것을 생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있는 근원적인 바탕(本)이라는 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 15장에서부터 〈법화경〉의 본문(本門)에 들어간다.

이 15장의 첫머리에서는 타방(他方)의 국토에서 온 6만 갠지스강 모래 수보다 더 많은 구도자, 즉 보살들이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도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文殊)·사만타바드라(普賢)·아바로키테스바라(觀音)·마이트레야(彌勒)와 같은 관념상의 보살이 아닌 사바세계의 사람들에 의해 교화되고 구제되어야 한다. 즉 지구 속에서 솟아 나온 구도자들, 무명을 깨고 일어난 사람들은 석존의 제자이기 때문에 석존의 가르침을 넓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 사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생과 연(緣)이 깊어서 〈법화경〉을 넓히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새로 등장하는 네 사람의 위대한 구도자(四大菩薩)란, 모두 행(行)을 위주로 하는 구도자이므로, 앞으로 〈법화경〉을 설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할 구도자는 행을 통하여 구제해야 하며, 훌륭하게(上行), 끝없이(無邊), 청정하게(淨), 그리고 꿋꿋하게(安立) 행(行)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할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누구라도 한결같이 훌륭하게 끝도 없이 항상 맑고 깨끗하며 꿋꿋하게 굽히지 않고 〈법화경〉을 설해야 할 것이다. 즉 세간 법에 물들지 않음이 마치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아야 한다.

▩무설정사 조실



◇유각스님은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다'며, 사회 각 계층의 직업에 맞게 참선을 가르쳐 중국 선종의 중흥을 꾀하고 있다.

# "하루 5분 참선



## 유각스님

1980년대 초 타이베이현(臺北縣) 만리향(萬里鄕) 개자산(芥子山)에 농부차림의 한 스님이 있었다. 초라한 초가집에 홀로 살면서 헤진 옷, 거친 음식으로 고행을 마다 않고 소박한 은거생활을 즐겼으니, 그가 바로 유각(惟覺) 스님이었다.

수년 후 산업도로가 생기면

### "수행하면 원한·투쟁 사라

30대 초반, 유각 스님은 대만 시방대각선사에서 일심으로 정토(淨土) 수행에 매진해, '아미타불'을 하루에 10여 만번이나 염(念)했다. 법당의 향등(香燈) 소임을 맡아보던 그는 매일 새벽 2시, 다른 스님들이 아직 잠자고 있을 시각에 대웅전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 휴식 시간에도 홀로 대웅전에서 기도 정진하는 등 남모르게 공부했다.

원두(園頭)라는 번잡하고 힘든 소임을 맡았을 때도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머리에 삿갓을 쓴 듯, 시선을 1m 범위 밖을 넘지 않은 채 6근(根)을 거둬들여 전심전력 공부했다. 이러한 부지런함과 분발심으로 드디어, 염불법문 중의 최고 경계인 실상염불(實相念佛)에 계합하고 정토의 궁극적인 본질인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체증(體證)했다. '삼천대천 세계가 내 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정일여(禪淨一如)의 도리를 요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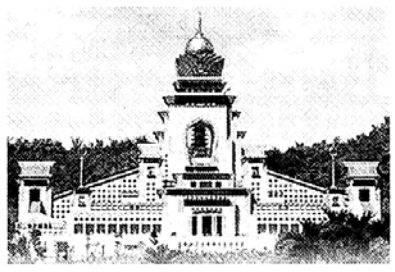
수행상의 진보가 나타나자 노화상은, 한층 분발하기 위해 폐관(閉關), 산문을 나서지 않고 수행하는 것) 정진을 결심한다. 마침내 시방대각사를 떠나 의란 길상사, 신죽 원명사, 홍콩 대여산 등지에서 폐관 정진했다. 1970년대 말기에 홍콩에서 대만으로 돌아와 대북현의 석정(石碇)과 평계(平溪), 대북시 신의로의 한 강당에서 강사로 지내기도 했다. 뒤에 몇몇 거사들이 발심해 만리 영천사가 있는 현지에 조그만 땅을 사서 그에게 공양했다. 노화상은 이곳에 간소한 초가집을 짓고 청정 수행을 계속했다.

1985~6년 사이, 양명산국가공원내에 산업도로 건설이 시작됐다. 마침, 이 도로는 유각 스님의 초가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스님이 홀로 거처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이때 비로소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 의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처음 노화상을 접한 상수제자들에 따르면, 당시 노화상은 마치 농부처럼 보였으며, 소박하면서도 중후한 생활은 남이 보기에 고난에 가까운 생활이었다. 몸에 걸친 옷은 남루하기 그지없어 꿰매고 꿰맨 납의(衲衣)였고, 일상의 음식들은 직접 기른 고추와 오이, 배추 등 채소들이었다. 거사들이 유각스님의 이런 어려운 생활을 보다 못해 음식물을 공양할라치면, 하나도 들지 않고 탁자 위에 봉지도 뜯지 않은 채 며칠씩 그대로 놓아두기 일쑤였다.

인연이 무르익어, 법을 구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스님은 기연(機緣)이 성숙되었음을 감지하고, 드디어 영천사를 창건했다. 1987년 4명의 제자가 출가해 영천사의 첫번째 대중이 형성되었고, 재가 거사들도 300인이 됐다. 스님은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3개월만에 옥불전 한 채를 완성했다. 이 곳에서 승속 제자 20명과 함께 영천사의 제1차 '선칠'을 개최했다.

이 작은 규모의 선칠이 중국 선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했다. 1992년 49일간 연속된 7번의 선칠은 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노화상의 근기에 맞춘 가르침과 선법은 극히 활발하고 원융해, 결코 고정된 형식이 없었다. 때로 방(棒), 몽둥이



◇93년 설립된 중대불교학원에서 정진중인 학인들.

◇출가자 1천여명과 재가신도 수십만명이 수행하는 중대선사(中台禪寺) 전경.

### 유각스님 수행법 깨달음 위한 세가지 약…

수식관(數息觀), 화두 참선, 중도실상관(中道實相觀)은 유각 스님이 강조하는 세 가지 법문이다. 스님에게 있어, 이 세가지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뛰어난 세 가지 약재이다. 말하자면 수식관은 보약이요, 화두 참구는 설사약이며, 중도실상관은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이다. 이 세 첩의 약방은 서로 섞어서 묘용을 일으키고, 개별적으로도 복용이 가능해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튼튼히 하는 기능을 갖는다.

▣ 수식관

식의 목적은 망상을 다스리고, 선정 안에서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처음 번뇌가 많은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고 하나, 둘, 셋…아홉, 열 호흡을 헤아리며 숫자에 마음이 머물게 한다. 이윽고 마음이 안정되면, 심신이 평정되고, 편안해진다. 매우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 선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신체를 이완시켜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화두 참구

화두(話頭)에는 세가지 단계가 있다. 즉 마음을 끌어 일으키고(提念), 마음을 비추어 보며(照念), 참구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호를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고 세 번 외운다. 염불한 이후에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 방금 염불한 이 물건은 무엇인가(念佛的是誰)? 만약 이 염불이 마음 속에 있다면, 잠 자고 있을 때 이 염불은 왜 염하지 않는것인가? 만약 이 염불이 마음 안에 있다면,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또한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의문 덩어리(疑團)'가 일어난 후 '아미타불'의 '아'자에 집중한다. '아'자는 어떤 곳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그 말머리(頭)를 찾아내, 즉시 마음을 모은다. 염불의 화두에 마음을 집중할 때, 화두 안에서 하나의 의정(疑情)이 일어난다. "점점 화두 안에서 '무엇인고(誰)?'하는 의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만약 1차로 '아'자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2차로 다시 한번 '아-' '무엇인고-?', '아-' '무엇인고-?'를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이 밖의 반연(攀緣)을 쉬하지 않고 내면을 비라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일생의 사건이 모조리 비춰져 무심이 사라진다. 우리 일생의 선악과 시비가 파노라마 처럼 드러난다. 그러나 이 경계에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계는 허망한 환상으로서 진


# 영혼 결혼식

[중매에서 천도식까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은 평생 한(恨)을 안고 눈물로 보내게됩니다. 허망함과 비통한 마음으로 결혼도 못하고 갔으니 천상에서나마 짝을 지어주어 혼례를 올려주면 극락왕생 한다하여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고자 하지만 짝을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가짜 영가나 상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대충 하거나 몇 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한(恨)을 안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가족협회 에서는 6년 전부터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많은 광고를 하여 전국에서 접수하신 남자, 여자영가들의 나이, 학력, 집안 등을 따져 사주로 궁합을 본 후 양가 집안끼리 연결하여 1부 결혼식, 2부 살풀이를 겸한 부부천도식 까지 올려주므로 부모님들이 만족해하시어 장안에 소문이 났으며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영령들을 포함해서 약 300쌍이 영혼의 인연을 맺어 극락으로 천도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 「KBS2 - TV VJ클럽」이라는 프로에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부모 형제 님과 사찰에 계신 스님들께서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1개월간 여자영가 결혼식 비용 무료로 해드립니다.

**문의 02)835-9797**

**자료제공 : 한국 가족협회**

#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지 보현스님)에서는 현대의 선·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오는 병상증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홈페이지 www.skin-reform 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안 내

-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 **교 육 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솔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회
-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재직증명서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583-1080, 02)521-1415
H · P : 016)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는 분은 제외

#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실 이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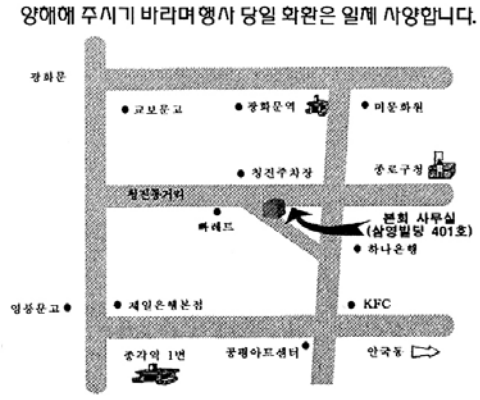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생명나눔실천회가 새 사무실을 이전하여 뒤늦게나마 아래와 같이 조촐한 개소식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 일동은 불은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실 이전식 —**

1. 일 시 : 불기 2546년 7월 29(월) 오후 4시
2. 장 소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8번지 삼영빌딩 401호
   (약도참조)
   (전화번호는 02-734-8050으로 동일합니다.)

※ 외윈님들에게 별도의 초청장을 발송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 당일 화환은 일체 사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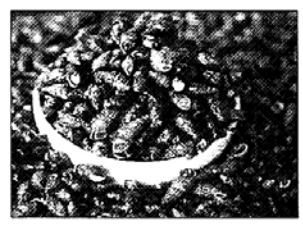

#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능히 안심입명"



서 도로를 지나던 사람들이, 우연히 스님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풍모가 범상치 않은 이 수행자에게 법을 청하며 절복(折服)하기 시작했다. 숲에 은거하던 수행자는 제자들의 입과 귀를 통해 그 명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것이 유각 스님이 세상으로 나온 인연이다.

대만 중대선사 방장)

## 인 국가·사회엔 안정·질서"

과 할(喝, 소리지르기)을 하거나 말 거동으로써, 또는 묵언과 말막음 )으로써 고든 학인들의 공부가 나날 진보됐다. 선칠 기간중에 노화상은 식관(數息觀), 화두 참구, 중도실상 (中道實相觀)의 3가지 법문으로 학 들의 참선을 지도해 각자의 심성에 할하도록 했다.

그동안 노화상이 친히 선칠을 주관한 이 약 100회에 이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학인들이 수십만명이나 된다.

영천사 도량의 시설이 수용한계를 넘어서자, 유각 스님은 3년전 남투현(南投縣) 중대산에 세계 최대규모의 중대선사를 건립해, 이 도량에서 더욱 많은 학인들과 불자들을 지도하게 됐다.

노화상은 두타행을 마치고 중생 교화에 나선이후, 승속을 막론하고 '선칠'을 통해 선종의 정수를 익히도록



관 화두참선 중도실상관

아니기어 단지 우리의 제 8식에 저 식 종자에 불과하다. 우리의 제8식 식 종자가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 패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자기의 진 한 본래면목(本來面目)이 드러난다. 는 참구는 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생 내지는 무량겁 동안 저장해 온 윤 식 종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즉신성취 身成就) 하도록 한다.

■ 중도실상관

실상(實相)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 다. 실상은 우리 마음이 도달하는 무 無念)과 무주(無住), 무위(無爲)의 경 를 가리킨다. 중도(中道)란 양 변에 착하지 않고, 가운데를 취하는 것이 실상이란 실재로 존재하는 모양을 한다. 중생들은 모두 양 변에 집착하고 마음은 모두 망상 가운데 들어있다. 이 것은 허망한 모습이며, 실상이 아니다. 만약 허망한 상(相)을 떠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실상이다. 선념과 악념은 실상의 경계에서 볼 때 모두 한바탕의 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하나는 악몽을 꾸지 않는 것이다. 먼저 좋은 꿈을 꾼후 악몽을 꾸지 않도록 해 완전히 좋은 마음만 갖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꿈에도 집착하지 말고 최후에는 꿈이 없는(無夢, 즉 無念)의 단계로 들어가니 이것이 바로 실상이다.

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선으로써 악을 버리고, 다시 버림으로써 선을 버린다." 실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도달하는 무념, 무주, 무위의 경계를 가리킨다.

<선칠(禪七) 유형>

## 7일간 좌선…아집 소멸·識이 지혜로
## 청정불심 닦아 지혜얻는 수행방법

선칠이란, 7일간의 참선 공부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 아집을 제거하고 식(識)을 지혜로 변환시킴으로써, 사람마다 가진 청정한 불심을 현전(現前)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 선칠**:마음 집중(定心), 마음 맑히기(淨心), 마음 밝히기(明心)의 수행으로, 심성의 변화를 통한 교육이념을 관철토록 한다.

**기업(企業) 선칠**:마음 밖의 빛나는 구슬(明珠)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간직한 보배 구슬(寶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일단 한번 얻는다면, 비로소 진정한 부귀를 얻는 것이다.

**사법(司法) 선칠**:선과 악을 짓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시비를 밝게 판단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다.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의 본체이며 자신의 본래면목이다.

**건축 선칠**:마음 밖의 건물은 더 높이 더 많이 지을 수 있지만, 모두 무너질 것을 전제로 한다. 본심을 얻는다면, 비로소 자신의 영원불변한 보옥(寶屋)을 지을 수 있다.

**의료 선칠**:타인의 인생에서 만난 생로병사를 통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생주이멸(生住異滅)을 관찰한다.

**복전(福田) 선칠**: '평일에 부지런히 복덕을 쌓고, 금일에 선정과 지혜를 닦아 진정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3위일체의 수행이념이다.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은 "능히 선의 도리를 깨달아 정확한 인생관을 정립, 매일 5분, 10분, 20분 혹은 1시간만이라도 정좌해 자신을 돌아보고 관찰한다면,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얻어 항상 지족(知足)하고 즐거울 것"이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참선을 권한다.

"참선을 하면 사람들 사이에 원한과 투쟁이 없어져 가정과 국가사회의 안정과 평화, 질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선칠을 집중적으로 닦아 일체를 내려놓아(放下) 망념을 그치고, 생명의 근원을 쫓아 자신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소재를 찾는다면, 심중에 한 광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소위 '불법(佛法)이 세간법(世間法)과 따로 있지 않다'는 말처럼, 유각 스님은 그동안 사회 각계층의 직업에 맞게 서로 다른 성격의 선칠을 분리해서 실시해 왔다. 이는 참선을 닦은 참석자들이 장차 불법의 지혜를 삶의 현장에서 운영해 세간의 사업을 원만히 하는 동시에, 사회 풍기에도 보이지 않는 교화의 영향을 미치도록 함에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스님은 매회 분야별 선칠에는 저마다 적합한 뜻을 갖도록 교화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유각스님은

중국 사천성(四川省) 영산현(營山縣)에서 출생한 유각 스님은 소년시절에 유가교육을 받아 4서5경, 제자백가를 읽어 학문적인 소양이 풍부했다. 불교경전을 열독하더니, 어느 날 의연히 출가의 뜻을 품었다. 스님은 1963년, 30세 되던 해 대만 기룡 시방대각선사(十方大覺禪寺)에서 당

## '禪·淨土수행' 요달…TV방송사 갖춘 선종도량 건립

시 중국의 최고 고승인 허운(虛雲) 대사의 법맥을 이은, 영원(靈源) 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법명 지안(知安), 자호 유각(惟覺)을 받았다. 이어 64년 시방대각선사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철저한 정진으로 수년만에 염불법의 최고 경계인 실상염불(實相念佛)에 계합하고 '삼천대천 세계가 내 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체증(體證)했다. 선정일여(禪淨一如)의 도리를 요달한 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숲속의 초가집에서 폐관(閉關) 정진, 화두와 중도실상관을 타파하고 중생교화에 나섰다.

1987년 영천사 창건당시, 출가제자 4인과 재가제자 300인이 오늘날 출가제자 1천여명과 재가 제자 수십만명으로 늘어났다. 스님은 외로운 초가집 한 채에서 대만내 말사 62곳, 미국내 말사 3곳, 불교 케이블TV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선종 도량을 건립, 사회의 풍기를 변화시키며 인심을 정화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우스님

"리비아→이집트→요르단을 거쳐,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어제, 타려던 버스를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 돌아서는데 그 버스가 폭발하여 한 순간에 재가 된 모습을 보았소이다.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생사의 갈림길이 이런 것이구나' … 빨리 이곳을 벗어나 터키로 떠날 예정입니다. 처음 계획대로 아프리카를 육로로 횡단하면서(7개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때론 몸이 아파 트럭에 실려 병원에 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몇 번 넘겼소이다. 소원대로 고생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어쩌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막의 별빔 때문인지, 아니면 편한 삶이 내 몫이 아니었는지… 좀 더 여행할 생각입니다. 무식한 배짱과 간덩이 부은 덕분에 씩씩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 예루살렘에서 현우 합장"

도반 현우스님이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내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다. 스님은 몇 년 전에도 인도 스리랑카 네팔 및 동



남아시아를 1년동안 배낭여행했다. 앞으로는 남미를 여행할 계획이란다. 경제력 넉넉한 여행이 아니다. 스님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며 여행을 한다. 여행 내내 염불하고 화두참구하면서 다닌다. 수행의 힘으로 여행이라기 보다는 고행(苦行)을 하는 것이다.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먼저 이 말부터 내놓았다. "철저히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방법을 익혔고, 수행자가 너무 안주해서는 안되며, 수행의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아상(我相)부터 꺾어야 하고,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원력을 세워 정진하겠다고 새삼 발심했지요." 스님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한다.

현우스님은 강원 도반이지만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만남이 잦지는 못하다. 그러나 잊지 않고 챙겨주는 절친한 벗이다. 학인시절, 우리는 방학을 이용해 전국으로 만행을 다녔다. 15년이 흘렀지만 시간의 강 너머에 당시 '젊은 풋중'들의 충천했던 객기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물속에 살면서도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인도의 시인 카비르 말처럼 사바세계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영원한 방랑자인지도 모른다. 스님들은 진리를 찾아 속세를 벗어나 불계(佛界)로 나온 여행자다. 그런데 그 불문(佛門)의 여행지에서 또 3차원의 세계(진리)를 찾아 떠나니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재동자의 설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행자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거친 풀을 헤치며 불법의 진리를 깨치고자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을 '발초참현(撥草參玄), 즉 만행·행각이라 한다. 〈사십이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문은 나무 밑에서 한 밤을 묵되, 절대 이틀을 머물지 말라'고 하셨다. 애착과 탐욕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하신 말씀이다. 애착에 대한 경계이든,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만행이든 간에 그 근본에는 마음의 심인(心印)을 궁구하는데 있다.

젊은 스님들이 만행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어른 스님들께서는 걱정하신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식이든 만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들이 선각자였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스님들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중 다운 중'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스님들도 여행(만행)을 통해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수행의 발판을 다지며 중생제도에 대한

### 세계로 만행 다니며 재발심
### 안주 거부 끊임없는 고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님네에게 있어서 여행, 곧 만행은 수행의 연장선상이다.

'하루종일 봄을 찾아 짚신이 다 닳도록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뒷뜰에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게송은 어느 비구니스님의 오도송이다.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 내재된 불성을 자각하라'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았던 고행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매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시행착오라는 통과의례를 거침으로써 성숙한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의 직업이 다양하듯 스님들의 수행방법도 다양하다. 강원을 졸업한 이래 근 10년이 넘도록 나는 학업의 길에 서있고 현우스님은 여행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선방에서 정진해 왔다. 스님은 선방 장판때가 묻을 만큼 묻었으니 눈감고 모르는척 해도 될 일을 기꺼이 나서서 한다. 노스님 시봉에, 한철 공양주에, 남들이 꺼려하는 소임까지 도맡아 했다. 어느 결제철에는 묵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허리가 아파 뒷방 신세를 지면서도 육신의 고(苦)를 이겨낸다고 하루 천배씩 절(拜)도 했다. 나는 스님에게 '수행이 아니라 고행을 한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가슴 한 언저리에는 도반에 대한 대견함과 스님과 함께 하는 우리 승가(僧家)에 대한 환희심이 벅차오른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

부처님 호흡법 특별수련

◆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 ◆ 염불, 독경 호흡법
◆ 참선 호흡법 ◆ 와선 호흡법
◆ 행선 호흡법 ◆ 자동 단전 호흡법
◆ 선제조 도인 호흡법

들숨 시 어깨나 가슴이 들먹 거리며 올라가고, 배가 들어 가는 호흡은 슬퍼 울 때나, 놀랐을 때 하는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재앙을 부르는 호흡입니다. 특히, 염불이나 동경 시 주의해야 합니다.
명치 끝 배꼽 주변, 중단전, 단전부분이 딱딱하고 뻣뻣하고 누르면 아픈 통증이 있을 때 호흡 수련을 하면 심신에 이상이 오니 절대 주의 하시고 특별 지도를 받으시면 짧은 시일 내에 극복 됩니다.
머리로만 수행하면 가슴이 막혀 상기병이 되니 몸이 망가지고, 몸으로만 수행하면 머리가 뻣뻣해져 마음 다스림이 잘 되지 않으니 심신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호흡에 맞춰 절 하는 법, 염불, 독경처럼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알파파 상태에서 엔돌핀, 토파민, 생장 호르몬과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심신 건강에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자동 단전 호흡법을 체득하시면 氣의 막이 생겨 눈꺼풀, 속눈섭, 눈동자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머리는 맑고, 눈은 시원하며, 몸은 따뜻해지는 수승화강을 20분 이내에 체득하게 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 일 시 : 언제나 수시로(8월 한달간 : 3일전 예약)
■ 준비물 : 세면도구, 편안한 복장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송곳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영품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목초수액시트 가격인하
잠자는 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발바닥에 붙여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화재의 상품 목초 수액시트!!!
요도선물 용최적 골드 150매 판매중



발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4,000원 → 30,000원 / 30매(은행): 일반 85,000원 → 60,000원 / 60매
50,000원 → 40,000원 / 30매(골드) 160,000원 / 150매
50,000원 → 45,000원 / 30매(일본산) 99,000원 → 85,000원 / 60매

※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온몸이 차거나 저리거나 팔 다리가 쑤시는 불편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 산후조리 및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수술 및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분
•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
•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신 분

자매품 : 일반목초액 500cc 20,000원,식용 목초액 900cc 120,000원
목초비누 3개 30,000원

www.GAJA.TV 송금후 1~3일 택배로 배달
판매원 : 가자라이프 상담(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국민: 010-01-0617-701
예금주 : 이수일

# 부채에 담긴 삶과 멋



◇우리의 전통부채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담아내며 그 멋과 여유를 더한다. 이호신 作 '마니산 정수사2' (부채그림)

## 일상생활 · 의례 · 장식 · 서화소재로 활용

## 낮잠 든 손자 더위 쫓아주던 사랑 담긴 부채

## 얼굴가리개 · 신분과시용 · 농사도구 등 다양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개 삼아 낮잠을 청할 때면 할머니는 커다란 부채로 손자의 더위를 쫓아내어 주셨다. 시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사랑이 함께 전해져 더욱 더 시원하게 느껴졌던 그 부채 바람.

선풍기 에어컨에 밀려 부채질 하는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멋과 여유가 담긴 부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해 왔다.

부채는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순수 우리말이다. 한자로는 선(扇)이라고 한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둥근 부채를 단선(원선)이라하는데 둥글다는 뜻으로 방구 부채라 하였다.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는 우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간편한 것은 접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이외의 특별한 용도로 모양이나 재료를 다르게 하여 만든 부채를 별선이라 불렀다. 우리나라 부채는 가는 대살에 종이 또는 헝겊을 발라 만들었는데, 전북 전주, 전남 남평(나주) 등지에서 생산된 부채를 최고로 친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례용 장식용으로도 쓰이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다. 전통혼례 때 신랑 신부의 얼굴가리개 용으로 쓰는 쌍학혼선 모란혼선 등이 의례용으로 쓰인 가장 대표적인 예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나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아 얼굴가리개로 쓰인 차면선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큰 부채인 대륜선 등도 있었다. 화가나 문인들은 부채에 그림이나 시 구절을 써 넣어 집안에 보관하거나 장식하기도 하였다.

신분 과시용 부채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벼슬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선추를 늘어뜨린 흑첨접선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용 부채인 드림부채는 곡식의 티끌을 날려 보낼 때에 사용했으며, 지붕 없는 가마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용도로 쓰인 대과초선이라는 것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단오날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했는데 이를 단오부채라 불렀으며, 각 지방의 관리들도 특산품으로 부채를 진상하고, 친지들에게 선사하는 풍속도 있었다.

스님의 모습을 그려 넣고 원색으로 채색한 부채는 삼불무선이라 했으며, 산수화를 그려 넣은 산수화접선, 설경을 그려 넣은 설경합죽선 등과 선녀머리모양을 본떠 만든 선녀선, 학 날개를 곁친 모양의 학선, 해와 달 꽃과 나비를 그려 넣어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일월화접선 등 다양한 부채들이 전해 온다.

문화담당= **이은지 기자** elee@buddhapia.com

## 스님 · 목사 · 문인 '생명사랑' 한목소리

# 산사음악회 '풍경소리 I'

###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
### 증심사서 소리로 '화해' 모색

스님과 목사, 문인들이 생명사랑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산사 음악회 '풍경소리 I'이 24일 오후 8시 증심사 주차장에서 펼쳐진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대표 일휴 증심사 주지 스님 임의진 강진 남녘교회 목사)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이번 음악회는 종교 간의 화해와 생명사랑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강원도 산중에 거주하며 '꽃묘' '시오리길' 등 생태적 음악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김두수 씨가 초대가수로 출연하며, 참교육학부모회 소속 아름나라 어린이합창단이 자연과 생명 나눔, 사랑과 평화를 담은 노래를 부른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음악과 더불어 문학과의 만남도 준비할 예정인데, 장흥에 머물고 있는 소설가 한승원 씨가 문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음악회의 사회는 문화공간 '참꽃피는 마을' 공동대표와 전국녹색연합 편집위원인 임의진씨가 맡았다.

## 이색전시회 The Dog展

### '犬性' 인간 위선 풍자

'개(犬)도 불성이 있는가?'

조주스님은 제자의 물음에 '무(無)'라는 한마디로 답했다. 불성이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오랜 세월 선가의 화두로 내려온 이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개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동물이다.

이러한 '개'를 재미난 상상력을 발휘하며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전시회 'The Dog 展'이 열린다.

노순석 작 '견성(犬性)'(사진)은 겉으로는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흘레붙은 개가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이며, 복날 개를 잡아먹고 포한갑에 젖은 사람들을 개가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최석운 작 '복날' 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현대미술에서 표현되는 개의 여러 가지 의미를 독창적으로 형상화 한 이번 전시는 개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투영시키는 매체로, 세태를 꼬집어 내는 존재로써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02)736-4371

## 심진스님 국악가요 3집

### '일면불 월면불' 등 10곡 수록




심진 스님이 국악가요 '바람 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를 내 놨다.

1991년 1집 '그대를 위한 시', 94년 2집 '옥아의 꽃신'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3집 앨범에는 '일면불 월면불' '인생별곡' '청산에 올라' '법' '님의 침묵' 등 한국적 정서에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국악가요 10곡이 수록돼 있다.

경기도 광릉 봉선사에서 정진중인 심진스님은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음악 선곡에서부터 앨범 디자인에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부족하지만 노래로 포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이상 나의 노래가 포교의 한 장로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 소식

### 만해축전 8월 2~5일 설악산 백담사서 열려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며 만해사상과 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열리는 2002 만해축전이 8월 2일~5일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펼쳐진다.

올해 만해축전은 대통령상이 신설된 '전국고교생 백일장'을 비롯해,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끄는 '시인학교', 한 여름 밤의 시 낭송회 '야단법석' 등이 잇달아 열린다. 또 '현대과학문명과 문학' '불교문학' '시조문학' '만해학'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제4회 만해상 수상자였던 시인 오세영교수(서울대 국문과)의 시비 제막식도 갖는다.

특히 3일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정대 스님)가 제정한 제6회 만해상(심사위원장 이수성) 시상식이 열린다. 만해상 평화부문에 강원룡 목사(평화포럼 이사장), 학술부문에 강만길교수(역사학자 상지대 총장), 시문학 부문 신경림 시인(동국대 석좌교수), 예술부문에 박찬수씨(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등이 수상한다.

이밖에도 이해주 교수의 살풀이 공연과 축전 전야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불교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 국제환경미술전 열려 8월 26일까지 한가람미술관

공존과 상생을 예술적 테마로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적 시각과 생태보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국제환경미술전이 열린다.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옥외공간에서 열리는 '무당개구리의 울음' 전이 바로 그것. 이번 전시는 국내외 작가 31명이 참가해 '도시와 사회환경' '자연환경' '순환하는 자연' 등을 주제로 회화, 판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등 100여점의 작품을 통해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것이다. (02)580-1515.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오랜만에 강화도를 찾았다. 그동안 공사 중이던 해안도로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어 강화대교에서 바로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환상적이었다. 강화도 답사는 전등사와 보문사 같은 유서 깊은 사찰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진다.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숨어있는 절 정수사(淨水寺)를 좋아한다. 섬의 남쪽 끝에 다소곳이 자리잡은 이 절은 너무나 아담하고 소박하여 정겹기 그지없다.

절로 올라가는 주변 계곡에는 마니산에서 굴러 떨어진 돌들이 많은데, 그 다양한 모습은 오백나한을 연상시킨다. 대웅전 앞마당에 서니, 건너다 보이는 인산의 능선이 부드럽기 그지없고, 그 흐름이 잦아드는 서해바다의 풍광도 일품이다. 신라 때 회정대사가 마니산 참성단에 참배하러 왔다가 이곳의 지형을 보고, 가히 불제자가 삼매정수(三昧精修)에 들만한 곳이라고 여겨 창건했다(639년)고 한다. 과연 포근하면서도 툭 터인 전망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길지라 할만하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보전은 크지는 않지만 그 생김새가 매우 특이하다. 전면에 봇마루를 덧붙였는데, 옆에서 보면 균형이 맞지 않아 기우뚱 기운 것처럼 보인다. 전망이 이렇게 눈에 선한데 부처님께서도 실내에만 앉아있기 지루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앉을 툇마루가 필요했고, 지혜롭게도 비록 대웅보전이지만 앞에 툇마루가 증축된 것이다. 내가 정수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대웅보전의 꽃창살이다. 4짝의 문으로 구성된 이 사분합문은 각각 다른 모양의 화병 속에 모란과 연꽃 등이 가득 핀 모습이 조각되어 있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 정수사와 함허스님

### 강화 남쪽 끝 위치 … 아담 · 소박
### 대웅전 꽃창살 화병속 연꽃

### "옛날엔 하느님의 콧구멍 뚫고
### 오늘은 산승과 허공을 치네"

남의 집을 방문하면 먼저 그 집의 주인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 대웅보전의 부처님께 인사드린 후엔, 이곳을 중창시킨 조선시대의 함허기화 스님(1376-1433)을 찾아간다. 스님의 부도는 요사채 뒤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있다. 나는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이 부도 앞에 앉으면 정말 명당이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 마니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몽긋한 봉우리를 만들고 아래로 꺼지는데, 양지 바른 그 봉우리 위에 스님의 부도가 있는 것이다. 조선 초 유학자들의 억불정책에 맞서 불법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스님은 희양산 봉암사를 중수하고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스님의 사리는 다섯 군데 부도로 나뉘어 모셔졌으니, 그 중의 한 곳이 이곳이다. 생전에 〈금강경오가해〉를 즐겨 강의한 스님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다. 부도비 앞에 서서 망망한 서해 갯벌을 바라보며 손에 든 부채로 이마에 맺힌 땀을 식히다보니, 스님의 시 〈부채〉가 생각난다.

옛날에는 하느님의 콧구멍을 뚫고
오늘은 산승과 더불어 허공을 치네
오고 갈 때마다 터지는 허공의 할!
'휘휘' 소리에 가득 차는 바람

■문학평론가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6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 비구 '250계 연구' 우리말 풀이



## 총 4권중 첫째권, 체계적인 해석 시도
## 바라이법 문제점 · '승잔' 용어 어원 밝혀

비구계의 연구 I 바라이법에서 승잔법까지

히라카와 아키라 지음 / 석혜능 옮김

"계로써 스승을 삼아라. 계는 너희들의 훌륭한 스승이니라"

〈비구계의 연구 I -바라이법에서 승잔법까지〉(민족사)는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인 250계에 관한 연구서인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박사의 〈이백오십계의 연구〉 전 4권 가운데 첫 번째 권을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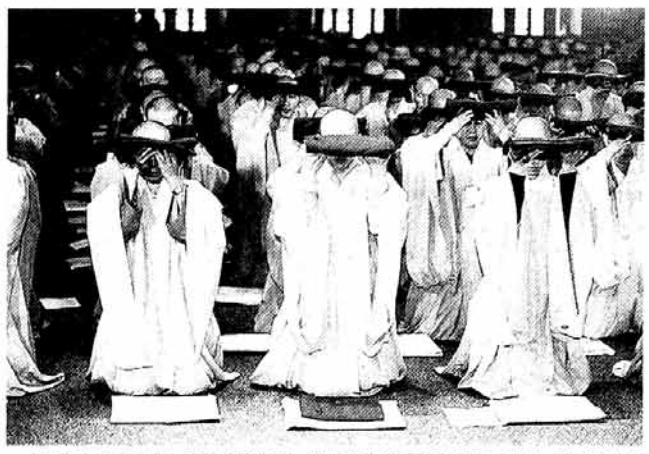
책에서는 바라이법(波羅夷法) 4조와 승잔법(僧殘法) 13조를 다루고 있는데 지은이는 비구가 지켜야 할 250가지 계율의 연구에 앞서 산스크리트어본, 팔리어본, 티베트어본, 한역본으로 된 계본을 두루 섭렵해 체계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책은 바라이법과 승잔법의 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엮어졌다. 서장 '이백오십계와 바라제목차'에서는 율장 전체에 걸친 '이백오십계'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1장 '계서의 연구'는 이백오십계경의 첫머리에 놓인 '계서'의 의의를 고찰했다. 또한 이백오십계와 바라제목차의 관계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해 바라제목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것이지만, 이백오십계라는 용어도 학술용어로서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은이는 여기서 "팔리어로 씌어진 상좌부 율장 외에 근본설일체유부의 티베트어역 율장, 5종의 한역 율장 등 일곱 가지 완전한 율장이 현존한다"고 말한다.

2장 '바라이법의 연구'에서는 이백오십계와 바라이의 관계, 바라이법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승잔'이라는 용어의 어원을 밝히고 있는 3장 '승잔법의 연구'에서는 승잔법 13조의 한 조목 한 조목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바라이법이 그것을 범하면 자동적으로 승가에서 추방되는 것과 달리 승잔은 승가가 그 죄를 심사하여 죄를 판정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 죄는 참회에 의해서 맑아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옮긴 혜능 스님은 "율원의 학인들 뿐 아니라 모든 승가 대중들이 계와 율을 보다 바르고 깊이 이해하여 청정한 승가를 구성하고 수행 승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율장의 연구는 필수적"이라며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등으로 된 계율서를 우리말로 옮김으로써 보다 쉽게 율을 접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또한 "오늘날 일부 승단에서 계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시대 적응력이 떨어지고 불평등 요소가 많다고 하여 계와 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사실상 절대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승가는 계와 율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생활하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지은이는 앞으로 '부정법' 2조와 '사유법' 13조의 연구를 담은 2권과 '중학법', '감증법' 등의 해석을 담은 3권을 펴낼 예정이다. 값 2만5천원.



◇'계'란 불자로서의 삶을 지탱해 주는 질서이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사진은 수계식에서 가사정대를 하고 있는 모습.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잡아함경 부처님 상담사례 묶어

### 붓다의 상담, 꽃향기를… 권경희 지음



부처님께서 카필라바투국 나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 석씨 마하나마가 찾아와 여쭈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어울려 살다가 부처님과 부처님 법, 그리고 승단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하나마에게 말씀하셨다. "큰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 밑동을 자르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겠는가"

"기우는 쪽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너도 그와 같으니라. 너는 오랫동안 불법승을 생각하고 닦아 익혔다. 비록 목숨이 다하더라도 마음은 오랫동안 바른 믿음에 쇠고 계율과 보시, 지혜에 조였기 때문에 미래에 천상에 나게 될 것이다." (잡아함경 제33권 930)

'잡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상담사례를 묶은 〈붓다의 상담, 꽃향기를 훔치는 도둑〉(권경희 지음, 도피안사)에서는 종교지도자로서의 부처의 모습보다 자상한 아버지이자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아들을 잃고 실성해 벌거숭이도 돌아다니는 여인에게는 옷을 입혀 주고, 몸이 비만해서 불편해 하는 국왕을 위해서는 살을 빼는 법을 가르쳐주며, 병에 걸려 신음하는 제자를 몸소 찾아가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한다. 이렇듯 수많은 상담 내용을 담고 있는 '잡아함경' 속의 상담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2500여 년 전에 설한 불경에 이미 현대 상담심리학적인 개념과 다양한 형태의 상담기법이 집합돼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은이는 '잡아함경'에 수록된 1362개의 경전 모두가 어린이부터 노인, 국왕, 성직자, 부녀자, 살인마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상담사례라고 말한다.

부처의 상담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듯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와 방편 사용 △위엄 있는 용모를 통한 감화 등 부처님의 상담자적 기질 때문이라고 보았다. 현대의 상담자들이 이러한 상담자적 기질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기법과 상담 형태적 특징 등으로 나누어 담았다. 값 3만원.

### 일상사 · 깨달음 · 삶과 죽음의 고통 등
### 어린이 · 살인마 · 국왕 등의 질문에 대답

## I AM THAT 슈리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지음



'내가 있다'라는 자각의 수행법을 펼쳐온 슈리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의 대담을 정리한 책 〈아이 앰 댓〉(탐구사)이 새로 나왔다.

1897년 봄베이 소농의 아들로 태어난 슈리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는 34세 때 그의 스승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를 만나 수행의 길을 걷게 된다. 37세에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구도자들을 가르치다 1981년 84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이 책은 질문자들과 마하라지의 대담 녹음을 풀어 옮긴 것으로, 두 권으로 나뉘어져 오던 101개의 대담을 정리하고 다시 편집한 것이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죄와 덕의 구분은 누가 하는가', '욕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등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존재의 깨달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마하라지는 "'내가 있다'는 궁극적인 사실이고 '나는 누구인가'는 궁극적인 물음"이라며 "'내가 있다'는 자각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탐구를 통해 내면으로 집중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탐구를 꾸준히 해 나가면 무의식적으로 해 오던 일이 의식적이면서도 활동적으로 변하며, 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마하라지는 '의식'을 '자각'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으로 규정하며, 의식을 넘어선 영원한 자각으로서의 실재에 이르는 과정을 논하고 있다. 값 2만원.

## "육신에 대한 집착 어떻게 끊는가"
## 슈리 마하라지와의 101개 대담 정리

## 발원문 선집 덕진 엮음



〈발원문 선집〉(정토사)에는 덕진 스님이 20여 년 종안포교의 현장에서 발원한 발원문 50여 편과 현재 널리 봉독되는 조사들의 발원문이 함께 실려 있다.

1장 '매일기도발원'과 2장 '법회발원', 3장 '생활 속의 각종 발원', 4장 '불교 명일 및 국경일, 민속 명절 발원' 등 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원문을 만날 수 있다.

10일 정토사 삼천불전에서는 정토사 신도회 주최로 '발원문 선집 출판 기념회'가 열리기도 했다. 값 6천원.

## 어머니 당신이 그립습니다 일당 지음



## 김일엽스님 아들의 자전적 소설

김일엽(1896~1971) 스님의 아들 일당 김태신씨가 자전소설 〈어머니 당신이 그립습니다〉(문학과의식)를 펴냈다.

소설은 김일엽이 1920년대 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도쿄 행 열차에서 규슈제국대학 법학과에 다니던 오다 세이조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랑으로 이어져 아들까지 낳았으나 오다 집안의 반대로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 김일엽은 아들을 일본에 남기고 귀국한 뒤 불문에 귀의했고, 그 아들은 왕실화가 이당 김은호의 양아들로 자라 동경제국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화가로서 명성을 쌓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 14년 전 출가, 일당(日堂)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일엽 스님과 일당 스님으로 이어지는 한 개인의 가족사와 더불어 개화기 이후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값 9천원.

## 지금 이순간 경이로운 순간 틱낫한 지음 최혜륜 옮김



틱낫한 스님의 게송을 모은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를 닦고 차를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외워볼만한 게송과 그 뜻을 쉽게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이란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임을 쉽고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값 9천원.

'이를 닦고 입을 헹구며,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할 것을 서원한다. 내 입이 바른 말을 함으로써 향기로울 때, 내 가슴 속 정원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난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 · 편자 | 출판사 |
|---|---|---|---|
| 1 | 화(Anger) | 틱 낫 한 | 명진출판사 |
| 2 |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 임 근 동 | 솔 바 람 |
| 3 | 꽃은져도 향기는 그대로 일세 | 명정 정성욱 | 예 문 |
| 4 | 시선 | 원 성 | 이 레 |
| 5 | 영가천도 | 효 림 | 효 림 |
| 6 |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 류 시 화 | 김 영 사 |
| 7 | 보왕삼매론강의 | 김 현 준 | 효 림 |
| 8 | 파아나두라대논쟁 | 석 오 진 | 운 주 사 |
| 9 |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 전 재 성 | 한국해일티정연합회 |
| 10 |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 서 화 동 | 은 행 나 무 |

도서 안내:(02)737-0695


명리학의 骨格을 확실하게 세워준다



滴天髓衡義 第上卷

滴天髓衡義

적 천 수 형 의

역학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적천수)가 비로소 완전정복 된다.

적천수 원문 완전 수록 역학계의 혜성 유성 선생이 적천수, 적천수 천미, 적천수 징의를 理氣로써 저울질 하여 그 심천을 살피고, 허실을 짚었으며, 오류를 찾았다. 또한 주를 달고, 임상실례를 첨가함으로써 이 한권으로써 누구나 쉽게 명리학의 기초부터 실전의 뼈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공유성 지음
신국판 / 양장본
788페이지
정가 40,000원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昇 譯杜國輔/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尤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16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국판/양장본/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응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초씨역림(焦氏易林)

● 크라운 판 700쪽 / 정가 60,000원

초씨역림은 중국 2,000년을 내려온 최고의 비서이다. 일반적으로 주역은 64괘 384효로 그 동효가 6효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초씨역림은 원괘(原卦) 64괘를 다시 64변하여 괘가 모두 4,096괘로 경우의 수가 완전히 나오는 것이며, 또한 괘사를 문장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바로 길흉을 파악할 수 있다. '초씨역림'은 대정작괘법(大定作卦法)에 의하여 평생 사주를 연년(年年) 세세(歲歲)로 계산하여 일생의 길흉화복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초씨역림'에는 명리학이나 주역, 여타 학문으로는 나오지 않는 길흉이 정확하게 나오므로 특히 역학상담자들에게는 필수 교과서가 된다.

무료 강의 안내

'초씨역림'의 역자이시고 역학 전과목을 강의, 수많은 역학상담사를 배출해온 '전통과학아카데미'의 유방현 원장님이 **초씨역림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저자로서의 배려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한달간** 초씨역림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명리학'과 '육효학'을 무료강의**합니다.

또한, 희귀한 역학자료도 제공하며 전화상담사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취업기회도 보장해 드립니다. 무료 강의 기간은 2002년 말까지입니다.

■ 총판과 강의 : 전통과학아카데미
■ 위 치 : 신설동 전철역 5번 출구 중소기업은행 옆 약 50미터
■ 전 화 : 02)929-4646



◇현존하는 자수 가운데 최고(最古)의 것으로 추정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사각수리향낭.

## 월정사 성보박물관 유물 도록 발간

### 통도사에 이어 두번째…162점 三寶로 분류
### 초보자 이해 쉽게 사진마다 설명 붙여



*불교계에서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인 성보박물관은 유물관을 포함해서 현재 30곳에 이른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이 많지 않고, 막대한 운영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99년 10월 13일 개관이래 두 차례의 학술 세미나와 특별전을 개최했고, 학술총서를 발간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개관 3주년을 맞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최근 소장유물 400여 점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 160여 점을 담은 도록을 발간했다. 270여 쪽에 달하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도록〉은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의 삼보를 기본 주제로 해 모두 162점의 유물에 대한 컬러 사진과 해설을 실었다.

사진을 싣고 개괄적 설명을 뒤에 따로 싣는 대부분의 도록과 달리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해당 유물의 사진에 설명을 바로 단 것이 특징이다. 성보박물관이 소장유물 도록을 발간한 것은 지난 98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이어 두번째다.

불보편에는 1970년 허체보수 당시 발견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 11점과 상원사 문수동자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보물 793호) 23점 등을 실었다. 법보편은 경전과 사적기로 분류해 보물 745호인 월인석보와 월정사 팔만대장경, 국보 292호인 상원사중창권신문, 오대산 사적기 등을 수록했고, 승보편에는 강원 남부지역에서 활약한 근 현대 고승들의 진영과 한암 스님, 탄허 스님의 유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범종과 목패, 불연, 밀부 등 불교의식구들은 기타 유물편에 모았다.

이 중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에서 나온 사각수리향낭은 현존하는 자수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두 명의 아기 동자가 연꽃에 둘러싸여진 모습이 수놓아져 있다.

박물관 측은 "월정사에 전해오는 유물과 월정사 말사에서 이관되어온 유물들을 한 자리에 정리한다는 의미와 함께 강원 남부지역 불교미술의 양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5만5천원. (033)334-1817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감은사터 동탑 옥개석 일부 파손

### 풍화작용 · 복원후 구조결함, 원인 엇갈려



◇1층 옥개석 받침 이음새 부분이 떨어져 나간 감은사지 동탑 서쪽면 전경. (사진 제공= 한겨레신문)

국보 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탑이 또 말썽이다. 지난 8일 탑의 1층 지붕돌(옥개석)의 받침돌 일부가 떨어져 나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에 대한 긴급 보존처리를 18일부터 24일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1층 지붕돌의 받침돌은 각각 4개의 조각돌을 짜서 만든 것으로 5개 층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방향 지붕돌 아래 1~3층 받침돌의 이음새 부분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면서 V자 모양의 홈이 생겼다.

긴급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떨어져 나간 부분은 빗물의 영향으로 풍화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큰 돌덩어리 3개와 작은 파편들로 떨어져 나간 부재는 원상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지난해에도 탑의 제일 아랫쪽 기단부 덮개석(갑석) 부분이 들려 올라가 문제가 됐던 것을 예로 들며 탑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강우방 교수(이화여대)는 "1000년 이상을 버텨온 돌이라 워낙 약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96년 해체복원 당시 기단부를 잡석들로 부실하게 채우다 보니 힘이 가운데로 쏠려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떨어져 나간 부분이 돌출부여서 몸체 하중의 영향으로는 보기 힘들다"며 "96년 당시 신재료를 쓰지 않고 기존 부재에 보강처리를 한 돌이라 풍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강근 교수(경주대)는 "풍화와 부식이 일차적 원인이라 해도 위, 아래 몸돌(탑신)이 함께 눌러주어야 되는 구조에서 받침돌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징조"라고 말했다.

## BC2~AD10세기까지 금석문 600여점 색인 발간




기원전 2세기부터 통일신라 말(936년)까지 만들어진 금석문 600여 점에 나오는 용어를 정리한 〈한국 고대 금석문 종합색인〉(학연문화사)이 최근 발간됐다.

부산 외국어대 권덕영 교수가 8년여 준비 끝에 최근 완성한 색인집은 금석문에 나오는 1만4천개의 용어를 △인물 △지리 △직관(職官) △사찰 · 탑 · 상(像) 종 · 비 △국가 · 연호 △능묘 · 건축물 △성씨 · 가문 · 종족 △전적 · 시문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싣고 있어 연구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나다 순서로 한데 묶은 종합편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

3600여 항목에 달려 있는 각주는 이 색인집만의 특징이다. 해당 용어별로 각기 다른 판독문을 일일이 각주를 달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거나 축약된 용어는 원래 글자를 함께 수록했고, 대사, 국사, 선사나 사(寺)로만 표기된 것도 그것이 지칭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실을 찾아내어 표제어로 함께 올려놓았다. 값 3만5천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개설 · 서비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18일부터 홈페이지(www.nricp.go.kr)를 개설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개설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늦었지만, 국내 유일의 종합적인 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축적한 조사연구자료와 연구소 발간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한다.

올 초 발간한 〈고고학 사전〉과 〈문화유적발굴조사연표〉의 목록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고건축〉과 〈문화재〉는 창간호 이래 최근호까지의 모든 수록 내용을 볼 수 있다. 〈풍납토성〉과 〈무령왕릉〉 〈천마총〉 〈황남대총〉 등 각종 조사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영화와 녹취 음향자료, 슬라이드 자료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도 서비스한다.

김봉건 소장은 "현대의 문화재 보존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불교관련 박사 3명, 석사 10명

### 올 상반기 각 대학 석 · 박사 학위 논문 심사 마쳐

2002년 상반기 각 대학의 석 ·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가 끝나면서 불교 관련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은 3명, 석사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학 분야에서 2명, 미술사 분야에서 1명이 박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는 불교학 관련이 6명, 미술사가 4명이다.

불교학 분야에서는 최동순(동국대 강사) 씨가 '선관(禪觀)사상의 변천과정 연구-천태지관과 관련하여-'로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 학위를, 류승주 씨가 '원효의 유식사상 연구-심식론(心識論)과 번뇌론을 중심으로-'로 같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는다.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

동국대에서는 태경 스님이 〈화엄경〉에 나타난 계(戒)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을 비롯해 성기 스님이 먼저 양식 문제를 보자,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은 신라 하대의 전통적 양식인 팔각당 형태의 승탑이 팔각원당형 건물에서 따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연구관은 승탑의 기원을 팔각형 모양의 사리기에서 찾는다. 건물에서 따왔다면 몸돌(탑신)의 아랫부분에 받침대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현존하는 신라 하대의 승탑에 하나같이 받침대가 들어있다는 데 주목한 결과다.

최동순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은 천태종과 선종의 교류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선관 사상이 변천하는 과정을 살폈다. 그 과정에서 천태종이 선종과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 교류 혹은 비관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류승주 씨는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원효의 불교관을 고찰했다. 원효의 유식사상을 여래장 사상과 유가유식 사상을 포함하는 광의의 유식사상으로 파악한 류 씨는 두 사상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원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논리로 양자를 회통시키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석사 학위 논문 중에서는 이전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다룬 두 논문에 관심이 간다.

태경 스님의 논문은 〈화엄경〉에서는 계(戒)나 율(律), 수행과 관련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다뤘다. 대승불교 경전에는 율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화엄경〉에는 계율에 대해서도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태경 스님은 말한다. 80권 〈화엄경〉에 나오는 계와 관련된 용어 280여 개의 용례를 중심으로 주석서들의 주석을 비교함으로써 〈화엄경〉 전체에 흐르는 계관(戒觀)을 파악하고 있다.

홍병화 씨의 논문은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부속건물인 산문과 산문체계를 중심으로 일주문의 기원과 조성배경, 형식과 양식의 전개 등을 밝힌 논문이다. 일주문이 형성된 시기를 고려말로 산정한 홍 씨는 선종을 상징하는 건물물로 조성된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고 있다.

#### 박사학위 논문

### 승탑, '사리기'에서 비롯 새 주장
### 천태 · 선종 교류로 선관사상 변천 규명
### 유식사상을 바탕 원효 불교관 고찰

'화엄교학의 성기 사상 연구'로 지은스님이 '〈원각경〉의 수행론 연구', 김유미 씨가 '빨리 열반경에 나타난 불타관 연구-한역 열반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석훈 씨가 '진표, 진묵 이야기의 특질과 전승의 성격', 신명희 씨가 '고려시대 사리장엄구 연구', 강삼혜 씨가 '라말여초 승탑 탑신 신장상 연구', 고경아 씨가 '신라 고승 양지 연구'로, 글렌 최 씨가 'A Study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Vipassana Practice and Psychotherapy in America-Focus on Mark Epstein's Therapeutic Methodology-'로 각각 석사 학위를 받는다. 홍병화(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씨는 '조선시대 산문체계를 통해 본 일주문 연구'로 명지대 산업대학원 문화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다.

박사 학위 논문 가운데서는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신라 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가 흥미롭다. 소연구관은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승탑의 기원과 전래, 변천사, 양식을 밝힌 이 논문에서 기존 학계의 정설에 반하는 새로운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 직원채용공고

1. 모집직종 및 인원

| 직 종 | 모집인원 | 자 격 |
|---|---|---|
| 사회복지사 | 2명 | 복지사 2급, 3급 |
| 경리사원 | 1명 | 경력직 1명 |
| 간호사 | 1명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전기기사 | 1명 | 2급 |
| 보일러기능사 | 1명 | 보일러기능사 1급<br>위험물취급 2급(제4류) |

2.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자격증 사본 1통

3. 모집 기간
2002. 7. 1 ~ 7. 30

3. 연 락 처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85
사회복지법인성라원
전 화 : 02)743-0294/Fax 02)747-4866
E-mail : sungla@sungla.or.kr
Homepage : www.sungla.or.kr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 서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 안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 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 비용

| | 구 분 | 입주보증금 | 월생활유지비 |
|---|---|---|---|
|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 1실 1인 | 50,000,000 | 500,000 |
| | 1실 2인 | 50,000,000 | 900,000 |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 · 우물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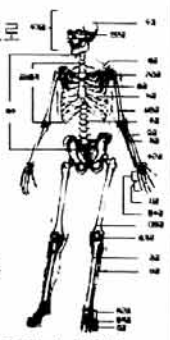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 관 절 염
↓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자신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

**자기만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를 다스려 상대를 둘로 보지 않고**
**모두를 이익되게 할 수 있으니…**

###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문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 눈먼 거북이가 물 속에서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한 채 항상 허우적거리는데 거북이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와서 바깥 구경도 못하고 항상 쏜살같이 내려가는 물을 휘젓고 빠져가면서 이렇게 산대서야 이거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하고 한탄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거북이도 수십 번을 진화해서 거북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보니까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죽어도 고만 살아도 고만 이런 목숨을 살아 뭘 하나, 물 밖도 구경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물 속에서 항상 이렇게 헤매고, 그러다 보면 남한테 잡혀 먹히기나 하는 생명이 살면 뭘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선 쏜살같이 내려가는 물 속에서 그냥 튀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튀어 올라온 그 시각에 바로 뗏목이 떠내려가다가 탁 마주쳤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격입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굴러놓고 또 거기다가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항상 굴리다가 어느 때에는 뜬금없이 뗏목을 만난다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뜬금없이 불성 기둥이 불쑥 솟는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하늘을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펄떡 나오는 동시에 뗏목이 탁 만나져서 올라서서 여유 있게 구경을 했더랍니다.

### 모든 것을 한 곳에 놓으세요

**중생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선업·악업을 그 자리 되놓으면**
**과거 업·미래 업 모두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눈뜨고 귀 열린 사람은 살기가 좀 여유가 있겠지마는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은 사는 데 여유가 없습니다. 눈 먼 거북이나 똑같죠. 허우적거리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만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건너지도 못할 걸 건너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나 코끼리로 비유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첫째, 자갈을 물려라. 둘째, 많은 식량을 욕심내지 마라, 즉 아무거나 먹지 마라 이 소리죠. 셋째, 길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라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예전에는 소나 코끼리를 다스리고 길들이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인데 너무나 더디게 돌아가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한테 즉각적으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갈을 물려라 하는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자갈을 물리게 했던 것입니다. 안으로 모든 걸 굴려놔라, 이게 자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깥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저 쏟아붓는 말을 하는 거를 금지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으로 굴려놓지 않는다면 자기를 맛볼 수 없으니까요.

밥을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안으로 공식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공식을 구하고 바깥으로 탐욕을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공식을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탐욕이나 욕망이 생기면 거기다 다 몰락 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구하라고 한 것이죠.

셋째는, 지금 현상세계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길을 올바로 들지 못해서 남의 밭에 농사 지어놓은 거를 망치게 한다면 그 얼마나 타인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고로 자기도 손해가 나는 일이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방편을 쓰되 야생마처럼 몽둥이로 때려줘라 이랬습니다. 야생 소처럼 그렇게 날뛰는 거를 두들겨 패라 이랬습니다. 올바로 길을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채찍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을 리드해나가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 없는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끌어 가는 보배인 자기 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갈을 물려서 불성 기둥에다가 묶어주는 것이나 같단 말입니다. 가다가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생각이 얼른 나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라고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 주인공은 마술쟁이인지…

문 저는 부모님께서 구독하고 계신 현대불교 신문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고 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수행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인공만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주인공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술쟁이인가요?

답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알맹이는 아닙니다. 아니긴 하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맹이에다 붙여놨으니까 그건 알맹이입니다. 누가 대신 밝혀주는 일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뺏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단 자기만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여유있게 할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다스려서 자기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모두 이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근본은 바로 자기의 전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걸 보면, 딴 이름은 잘 된다면 좋아서 가고 못 된다면 안 가고 이렇게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선부터, 근본부터 알아보고서 걸어가야 이탈이 되질 않는데 거기는 이차적으로 생각들을 해요. 생각이 아예 안 날 때도 있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름도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누가 말을 했던가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어 그 이름을 믿고, 자기 주인공을, 불성을 진정코 믿고서 거기다 놓게 했던가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천리 바깥에서도 들을 수 있고 천리 바깥도 볼 수 있고 천리안에 다, 도리천 안에 다 있는 그 자체를,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바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도, 샘물이 있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걸 마음대로 퍼서 자유스럽게, 요런 용도에는 요 한 바가지만 뜨면 되고, 저런 용도에는 두 바가지가 필요하고 이런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을 보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10년 안에 깨우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조스님도 깨우치시고도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혼합해서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자유스럽게 모두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실천을 해봐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10여 년을 그렇게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주인공을 부르면 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나 이렇게 급급해 하시지 마세요. 쉽게 그렇게 배우는 건 쉽게 없어지죠.

하여튼 신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마음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근본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조금 체험해 나가신다면 아주 신기할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맛이 날 겁니다. 하지만 모두 여러분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인공 주인공, 이름만 알지 진짜로 자기 뿌리인 주인공이 자기와 콤비가 돼서 항상 합이 없이 여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진짜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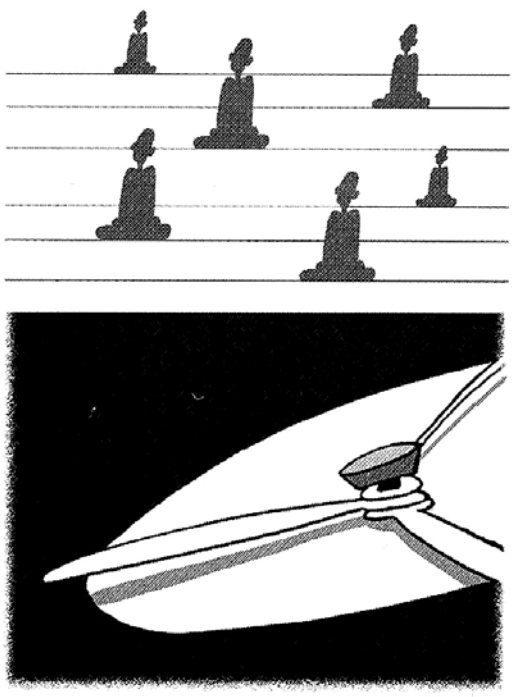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내가 부처인줄 모르고 생활하기에

**지금 진리의 말씀 들어도**
**계속 믿지 못하는 생각 들고**
**염려와 불안에 시달려**

### 거짓 나를 버려야 하는지…

문 어떤 명상단체에서는 나에게는 참나(부처)와 거짓 나가 있는데 거짓 나는 과거와 현재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원래는 없던 것이었는데, 이 몸이 거짓 나를 진짜 자기인줄 착각하고 살고 있고, 이 거짓 나를 버리기만 하면 저절로 참나가 드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나를 버리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을 찾는다는 것이 이 단체에서 말하는 거짓 나를 버려 참나를 찾는 것과 같은 내용인지요? 즉, 믿고 맡기는 것은 거짓 나를 버리는 것이고, 관하는 것은 참나를 찾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이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든지 거짓 나인 현재의 중생 모습을 버리고 주인공인 참나를 찾게되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욕심일지는 몰라도 현생에서 해탈을 하여 윤회 없는 완전함이 되고 싶습니다

답 거짓 나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입력돼 있는 내 자생 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어온 그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지금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아가면서 짓는 선업 악업은 미래에 올 것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거는 지금 나오고 미래에 올 것은 현실에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그 업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 속,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대로 나온 그 자리에다 다시 놓으면 미래에 받을 업도 없어지고 과거에 지은 것도 없어지는 까닭에, 모든 것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가 놓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공체(公體)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도 빠질 것도 없고 들여놓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유를 해서 따진다면, 진짜 진정한 마음을 선장이라 하고 자기 육신 속에 있는 그 의식의 생명들은 중생이라 하고 이 모습은 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만이 그 배에서 움죽거리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바람이 불고 뇌성벽력이 치는데도 그냥 무사히 타고 건너오기도 하고 건너갈 수도 있을까요?

자기 불성이라는 그 생명력을 선장이라고 비유한다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비가 안 올 것이고 또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바람이 안 불 것이고 선장은 선장대로 그대로 중생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장하고 배는 어떤 사이입니까? 어떠한 사이가 돼서 그렇게 조금도 해로움이 없이 오고 가게 됩니까?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들의 의식이 많으니까 중생들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내게 하는 것도 바로 선장인, 그 자기가 생각을 다스리면서 다시 되놓게 하기 위해서 맡겨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지기만 한다면 그건 빗장도 쥐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믿고 따지지 마세요. 진짜든 가짜든 거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다 가짜다, 어떤 게 나냐? 이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바꿔 가면서 하나에서 자꾸 나투는 거니까 …. 아, 금방 나무껍질이었는데 금방 물에 개지고, 물에 개지니까 금방 종이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였을 때 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전부 나무껍질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공돼서 나오는 것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나라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 아닌 거든 나든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다시 맡겨 놔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 나가는 모든 거, 그리고 그것이 다 하는 거, 거기서 작용하는 거, 거기서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 거, 거기서 만법이 나오는 거, 꿈에도 물체가 바뀌어서 자꾸 나오는 거, 모두 그냥 한 군데다가만 맡겨놓아라 이겁니다. 나를 깨달으려면 말입니다.

### 끝까지 믿고 관하세요

**주인공은 내놓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나오게 된 것도 그 자리가 있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 자리임을 믿고선 자꾸 관해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마음은 어떠한 걸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지만 진짜 마음은, 내가 그 씀씀이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쓰는 것이 진짜 공법이고 진짜 마음입니다.

### 맡겨 놓은 뒤에는…

문 주인공에게 맡겨 놓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을 청하옵니다.

답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난과 병고와 우환이죠. 자식들을 이끌어 가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움죽거리는 그 생활도 그렇고, 자기 몸을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괴로움이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이 도리를 알고 공부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런, 또는 생산적이고 개발적이면서 봄가사의한 법으로서 그대로 편안하게, 봄가사의하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편안한 자유스런 생활을 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바깥에서 유전으로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안에서도 일고 이러는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신경이 급박해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지친다든가, 이거는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든가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또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만이 그런 일들을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한다 하는 믿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말입니다. 거기서밖에 해결을 못한다 하구선 딱 맡겨놓고 지켜보는 게 관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다 말씀해 놓으셔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잘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것을 보면 그렇지들을 못합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내가 부처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진리의 말을 들어도 계속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증이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 입력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믿고 맡겨놓았다 해서 그 생각이 뚝 끊어지듯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나를 지켜보면서 관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럼 관하면 뭐가 나오나?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듯이 다시 입력을 합니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갑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시험하면서 내 주처에 맡겨놓고 지켜본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기도 하고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려서 자기네가 지혜를 낳아서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가 찾아라 이겁니다. 네 스승을 스스로 찾는다면 그 안에서 길잡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서 굴리는 도리가 지혜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을 한다면 자기가 당당해지고 늠름해지고 지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간의 자유스런 행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 얼마나 슬기롭고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 결혼생활에서의 수행방법

문 세속에 살면서 결혼을 하면 남녀가 함께 살게됩니다. 하지만 애욕이 윤회의 근본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부부관계를 하면 마음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청년 불자이오나 마음공부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부부관계를 되도록 갖지 않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를 갖더라도 주인공을 믿고 관하면 자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가정에서 살면서 불교를 믿는 이들이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서 집에 있는 식구들을 굶주리게 하고 집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백일 아니라 천일 동안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하라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다른 걸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들은 이탈이 되고 가정 파괴가 오고 한

☞ 18면으로 계속

☞ 17면에서 계속

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중요합니다. 법당에 자주 나가되 끈질기게 날짜와 시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백일만 지구가 돌아가나요? 그러면 기도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나요? 한날 한시, 일분 일초도 떠나지 않게 되는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걸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여여하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 여북하면 여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그대로 컴퓨터에, 과거의 입력이 된 컴퓨터에다가, 주인공이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 편리하게 맡겨놓고 여여하게 사는 마음법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참선을 한다하고 그냥 꿇어앉아서, 지금 일분 일초가 바쁜 세상인데 구부리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아, 가서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똥누는 것도 참선, 자는 것도 참선, 사랑하는 것도 참선 아, 모두 참선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면 잘 이끌고 살아 나가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를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서로 다복하고 아무리 나쁜 형편이라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라 이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높은 것도 높고, 얕은 것도 높고, 풀 포기는 풀 포기대로 높고,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독존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만이 높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하고 그러면서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길이 바로 불법이다는 것을 진실히 믿고 실천해 나가신다면 내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 성형수술에 대해서…

**문** 저는 군복무 중에 스님의 책을 보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스님께 질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어릴 때 장난을 하다 다쳐 흉이 생겨서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 자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어떻게 다시 수술을 해서 저의 콤플렉스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에서 벗어나 남들과 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여쭙니다

**답** 어느 난장이가 스님이 되려고 한생각을 내서 입산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난장이라고 안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주니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뭘 하나, 모습이 이래서 중도 될 수 없는 몸이라면 차라리 죽어야겠다.' 그러고 죽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죽은 그 자리에서 오 백년이 지난 지금도 난장이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난쟁이가 스님을 보더니 쫓아와서 하는 말이, "스님, 제발 저의 모습을 벗겨주십시오. 저는 오 백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습을 벗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하고 매달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왜 오백년 전 난장이의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있나?"하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 붙들고 있던 마음은 홀연히 놔지고, 그 모습을 다시금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천도가 됐다 이 소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수술을 정말로 해야할 것은 바로 '남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하고 당당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떠한 장점도 단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외모에 치우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깎고 다듬고 조성을 한다해도 허망한 욕심에 지나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나의 마음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도 절대 긍정할 수 있는 대장부다운 성품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세상은 더욱 더, 외모보다는 마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품이나 능력으로 대우받는 시기라는 것은 법우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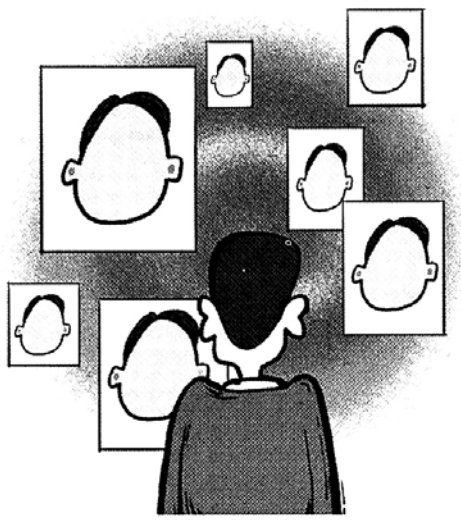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나의 근본에 맡기세요

## 모든 것 대치하며 살려면…

**문** 모든 것을 대치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사시는 걸 보면, 소승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는데 좀 넓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지 않는 게 됩니다. 만약에 윗사람들이 나를 자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편의 마음을 조절하질 못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윗사람들의 마음과 둘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주인공에 맡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통신이 돼야, 즉 말하자면 줄을 그냥 탁 대는 대로 전력이 흘러서 탁 불어서 불이 번쩍 들어오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평소에 전화 코드를 끼워 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려니 통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항상 자나깨나 전화 코드가 끼워져 있어야,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 금방이라도 닥쳐오는 것을 해결하려면 전화에다 대고선 통신을 해야 통화가 돼서 그걸 전부 다 알아듣고 소임을 제대로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죠? 우리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고요. 스스로 짊어진, 과거에서부터 누적돼서 입력된 거는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서 넣는 입력이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대로 자꾸 나오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또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찰나찰나 살아나가는 생활 아닙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살림살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을 뛰어넘으면 그대로 여여합니다. 한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대로 중생의 모습이라고 했으니 바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모두 여러분의 사량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느니, 이렇게 돌아가느니 저렇게 돌아가느니 하면서 사단이 많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하등 상관이 없이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앞뒤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문득 옆의 사람이 쓰러질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서 들어올려 주는 그것이 바로 중생들을 살리는 것이요, 또 저 먼 산을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비가 오게 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해서 비가 와서 저절로 꺼지게끔 한다면 또한 보살행이죠. 누가 비를 내리게 해서 누가 꺼뜨렸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네들은 좋아할 거다 이겁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도리의 법칙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고등동물로서 첨단을 넘어서야 될 사람들이, 앉아서 세상을 다 굴리고 세계를 다 굴리고 우주를 다 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비천하게 자기 한 발짝 떼어놓으라는데도 못 떼어놓는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 가정 잘 이끌어 가는 게 종교
## 한 생각 뛰어 넘으면 여여함이…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꼭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힘을 기르기에 전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길어야 백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설사 수천만 억의 재산을 모으고, 수 백만 명의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한들 자신의 근본을 놓치고 산다면, 진정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몸의 편안함을 줄 수 있고 허영심을 한때 충족시켜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물질의 허망함을 좇지 말고 영원한 마음의 세계로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해서 사라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모든 생활하는 것을 근본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해야 만이 나오는 모든 의식들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법우님에게는 지금 현재 닥친 외모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 가슴 속 깊이 새겨듣기 바랍니다.

> 보는 것·듣는 것·말하는 것
> 만나는 것과 가고 오는 것
> 모두가 고정된 것 하나 없이
> 찰나찰나 化해 돌아가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
圓 梵 音
범종! 범종! 자명(自鳴)범종!!

귀의삼보 하옵고,
諸方寺庵 주지스님께 이 기쁜 소리가
메아리 되사이다. 小人이 十餘年前에
부처님의 生死解脫法이 세상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발원!!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불암사 범종에
자동시스템을 설치. 춘하추동 사계절
조석예불 시간과 정오에 인적이 있고 없고,
크나큰 종에서는 치는 이 그림자도 없이
원범음이 삼세를 뚫어 오늘 지금까지
또 다함없는 미래까지 울려 퍼져
모든 중생고는 사라지고 해탈의 법열이
충만함이여!! 사중외호와 불사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거룩하신 스님들께
작으나마 편의를 드렸으면 하고!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구리3반 48번지
부영공업사 대표 신 현 직 두손모음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금세기 최초공개
고차원 치유에너지 활용법전수생 모집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암,난치의 제질병 비만 피부 및 피부미용 등 비정상 세포를 부작용 없이 체외로 배출시키고 변형된 체세포를 복원시키는 비젼의 학문과 능력이 전수 된다.

자 격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서 일반인, 주부, 남여 직장인, 가족의 난치병 관리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해외 이민 희망자

강좌개설 타시도 거주반, 속성반, 직장인반

교육과정 및 능력전수
약, 약초, 뜸, 침, 수술, 氣등의 도움없이 고차원 치유에너지 활용법 종교와 전혀무관함.

본 학문을 전수받고 난 후의 당신의 능력은?
예1) 중증의 비만인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하루 1~2시간씩 6일을 교육시키면, 제아무리 뚱보라 할지라도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며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기 시작한다 부작용도 없다. 요요현상도 없다. 오히려 피부가 아름다워진다
- 믿어지시겠습니까? 기적같은 일입니다 -
예2) 난치병까지 상대가 원상회복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수있다
※ 이학문을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선택된 희망자에게 전수하는 것임.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8-1315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研究學會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음테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어시어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련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인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림사)

* 오라진동센션 (미국 오라시스템사 주문OEM)
* 광안경(투명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림사)
* 타이베릭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림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론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편식 고치는 방법**

1.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한다.
2.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3. 편식하는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본다.
4.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도한다.
5. 조리법을 바꾸어 본다.
6. 함께 요리를 해 본다.
7. 가끔 같은 또래들과 모여 식사를 한다.
8.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칭찬해준다.

**효과적 조리 방법**

▶ 고기를 싫어할때
고기를 골라낼 수 없도록 다져서 동그랑땡이나 튀김 또는 만두로 만들어준다.
▶ 생선을 싫어할때
다져서 생선까스로 만들어 본다. 카레가루를 뿌려 튀기면 생선냄새가 없어진다.
▶ 우유를 싫어할때
우유에 달걀을 풀어 입힌 프렌치토스트를 만든다.
▶ 야채를 싫어할때
잘게 다져서 튀김으로 만들어준다. 으깬 감자와 섞어 튀겨 크로켓을 만든다.

어린이 편식

# 이렇게 고쳐요

## 간식 양·시간조절 규칙적인 식사 유도
## 예쁜 그릇 등 즐거운 식탁분위기 조성
## 지나친 꾸중 반발·심리적 부담만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다. 특히 식욕을 잃기 쉬운 여름에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음식을 가리는 아이들도 다른 집에 가서 식사할 때나 도시락은 곧잘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편식 습관이 가정의 식생활 방법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식사하는 기회가 많은 방학을 이용해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보자.

편식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간식의 양과 시간을 조절해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일수록 간식의 횟수와 양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먹어달라는 심정으로 간식을 주는 것은 식습관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 또 음식에 대한 잔소리나 꾸중을 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즐거운 식탁 분위기를 만든다.

잘 먹지 않는 음식은 적은 양부터 먹도록 한다. 예전에 가렸던 경험이 있는 음식이라면 기분이 좋고 배가 고플 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이가 싫어하는 야채나 곡물은 조리방법을 다르게 해서 먹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야채를 다져 넣어 으깬 감자 크로켓이나 야채 만두를 만들어 준다.

그래도 먹기를 꺼려한다면 단계를 나누어 도전해 본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아보게 한 후 조금씩 맛을 보고 나중에는 입에 넣고 씹어보는 순으로 음식을 접하게 한다. 시선을 자극하기 위해 보기 좋게 조리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양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권하는 것은 반발감이나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져다주므로 삼가야 한다. 아이 스스로 음식을 관찰하고 식욕이 생기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부모나 아이가 음식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함께 요리를 하며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당근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당근을 만져보게 하거나 직접 요리하게 하면 자신이 만들었다는 즐거움을 느끼며 먹는데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소중함과 영양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덩달아 그 음식을 즐겁게 먹게 된다. 때문에 또래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이 편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도움말 서울시 학교보건원(02-3999-567)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 연습"

## 4박 5일 해인사 사찰수련회를 다녀와서



◇제19회 해인사 여름수련회가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의 현장이다'를 주제로 열렸다. 수련회 참자가들이 발우공양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당분간 단무지를 먹지 않을 것이다"

해인사 여름 사찰수련회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남긴 글에는 한결같이 이런 구절이 실려 있었다. "다들 왜 이러지? 해인사 사찰수련회에서는 단무지만 주나?" 하는 의문은 해인사에서의 첫째 날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소되었다.

'화장 금지' '흡연 금지'

사찰수련회는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로 시작됐다. 4박5일간의 단기출가 입재식을 위해 회색 법복으로 갈아입은 160여 명의 참가자들이 보경당에 모였다. 묵언과 차수, 안행 등의 기본 수칙과 새벽 3시 기상, 아침예불과 108배, 암자순례, 참선, 사경, 마지막 날의 1080배까지 하루하루 일정들을 발표될 때마다 한숨이 터져 나왔다. 모두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결국 입재식이 끝나자마자 '산사에서의 여유로운 휴가'를 기대했던 남녀 한 쌍이 퇴소를 했다. 역대 최단시간 퇴소 기록이다.

더욱 혹독한 '신고식'은 밥 먹는 일, 즉 발우공양으로 이어졌다. 앞뒤 순서도 헷갈릴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는 그래도 나았다. 공양 후 발우를 단무지로 깨끗이 씻어 그 물(다들 '설거지물'이라고 불렀다)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에 다들 기가 막혀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발우를 씻은 물인 퇴수물에 음식 찌꺼기가 많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조가 퇴수물을 나눠 마셔야만 했다. 덕분에 다음날 여기저기 빈자리가 늘어났다.

새벽 세시, 새벽 예불로 시작된 둘째날, 경험 많은 습의사 스님들은 족집게처럼 신통하게 계속 머물 사람들에게는 적응력을, 탈락자에게는 퇴소를 결심할 용기를 주었다. 셋째 날부터는 산사에서의 생활에 한결 익숙해졌다.

힘들고 고단했던 사흘 동안의 일정이 '즐거운 추억'으로 바뀐 것은 그동안의 감회를 나눈 '차한 잔을 나누며'란 프로그램 때문일 것이다. "해인사를 나서자마자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서 커피랑 다 먹었다"는 2기 참가자 후기를 포교국장 스님이 읽어주자마자 가다렸다는 듯 묵언을 풀고 모여 앉은 참가자들이 소감을 털어 놓는다.

"사찰에서 며칠 편히 쉬고 오라던 부모

## 혹독한 신고식 … 고통스런 발우공양
## "안 졸았는데 죽비" 자랑 섞인 하소연들

님의 말에 속아서 왔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발우공양 때 스님들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소화가 안됐다" "분명히 안 졸았는데 '죽비난타'를 당해 억울했다" 등 자랑 같은 하소연이 쏟아졌다. 자신이 사찰수련회에 참가한 것은 아내밖에 모른다는 한 기독교인은 "참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의 현장'이라는 수련회 주제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다시 태어나면 꼭 불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 아쉬움 속에 회향식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산사를 깨우는 우렁찬 독경소리와 법고소리, 동틀 무렵 성혈 스님 부도탑에서 진행된 참선, 2시간에 걸친 1080배를 끝낸 후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시원한 물 한잔을 권하던 일, 계곡에 모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을 나눠 먹었던 일 등 잊지 못할 추억들을 나누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여수령 기자

## 육자진언 들려주는 해탈전경륜

'마니차'는 경전이 새겨져 있는 원통형 법구로 티베트인들은 손으로 돌리며 진언을 외우는데 사용한다. 티베트인들은 마니차를 돌리는 것은 불경을 외우는 것과 같은 공덕이라고 여겨, 길을 걸을 때나 앉아서 쉬면서도 항상 이를 돌린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이러한 마니차를 응용해 만든 상품이 '해탈전경륜'이다. 티베트어 경전이 들어있는 몸통은 머리부분에 설치된 음향장치에 의해 육자진언인 '옴 다니반메훔'이 흘러나오며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오방을 상징하는 청록적황백의 등이 밝혀진다. 48Cm 20Cm, 값 19만8천원.

여성 단신

### 무창포 갯벌 참가자 모집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진행하는 '엄마와 함께 하는 교실 밖 역사공부' 가 27일 '무창포 갯벌 체험'을 실시한다. 무창포 해수욕장에서의 갯벌체험과 보령석탄박물관 관람, 성주사지 답사 등으로 꾸며진다. 성주사지에서는 성주사지 5층석탑과 서삼층석탑 등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참가비는 어른 3만8천원, 어린이 3만3천원. 02)725-1284

*방학중 쉽고 재미있게 읽을*

## 부처님 가르침 2권

### 물, 뱀이 마시면 독…

손승현 외 지음



### 님의 침묵

유지현 엮음



방학을 맞은 자녀들이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책 두 권을 소개한다.

전국교법사단(단장 박영동)이 펴낸 〈물, 뱀이 마시면 독, 소가 마시면 우유〉(손승현 외 지음, 조계종 출판사)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엮은 본연부의 경전 가운데 새겨볼 만한 가르침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들의 삶과 관련해 설명하며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포교 일선에서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얻은 경험과 안목이 담겨 있어 보다 친근하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님의 침묵〉(유지현 엮음, 청동거울)은 십대들이 한용운 스님의 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짜여졌다. 90여 편의 시를 싣고 어려운 주요 시어를 풀이하고 한용운의 문학세계, 문학적 의의, 연보 사진자료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한용운의 시를 교과서적 해석이나 입시 위주의 죽은 지식이 아닌, 시에 담긴 참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엮어졌다.

**본연부경전 가르침**
**포교 경험으로 녹여**

**만해詩 90편**
**연보·자료와 함께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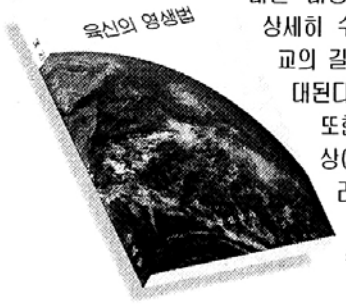

#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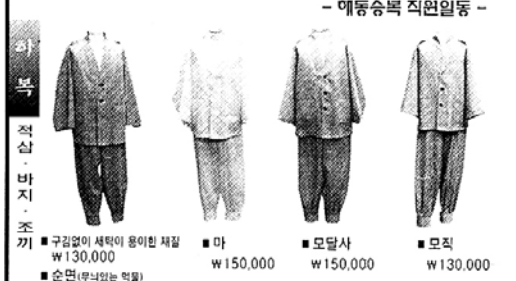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 락 처 : 031)532-6661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구김없이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순면(무니있는 역할) ₩130,000
■ 마 ₩150,000
■ 모달사 ₩150,000
■ 모직 ₩130,000
■ 마 ₩130,000
■ 모달사 ₩140,000
■ 모직 ₩120,000
■ 마 ₩130,000
■ 모달사 ₩130,000
■ 모직 ₩110,000
₩50,000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 의류는 맞춤 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등
이중에서 50~60%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이상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567-6820, 567-6822

# 당뇨·고혈압

##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곱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 복더위 … 1년중 가장 덥고 체력소모 심한 때

# 채식으로 '보신' 한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중복(7월 21일)과 말복(8월 10일)사이인 요즘은 일년중 가장 무더운 때다. 기운이 빠진다. 속도 허전하다. 입맛 잃고 찬 것만 들이키니 속은 더부룩하고 등허리엔 땀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양식을 찾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복날만 되면 삼계탕을 찾을까. 또 '보신' 하면 보신탕만 떠올릴까?*

## 팔보약밥 + 수박나박김치 여름철 영양식
## 인삼·대추 등 약재 넣어 氣·탈진체력 보충
## 수삼 구기자 찜·단호박밥도 여름 별미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닭고기를 '속이 허(虛)하고 냉(冷)한 사람들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음식' 으로 분류하여 비장과 위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특히 소화가 잘 되면서 속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몸이 마르고 차가우며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의 사람들에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삼계탕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먹으나마나' 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삼계탕은 따뜻한 성질이라 몸이 찬 음(陰) 체질에 맞다. 속에 열이 많아 유난히 더운 것을 못 참는 양(陽)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삼계탕 먹는 것을 삼가는 게 좋다. 소양인들이 삼계탕을 먹으면 대개 화와 열을 더 많이 일으켜 답답증이나 고열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한방에서 닭은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풍을 일으킨다' 고도 해 주의를 요한다. 때문에 중풍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다. 송암한의원 김승수 원장은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먹었다가 탈이 나는 수도 있다" 고 조언한다.

특히 육식을 금하는 수행자나 불자들에겐 삼계탕이나 보신탕 대신 보양식으로 대체할 음식이 필요하다. 사찰음식전문가 이여영씨는 인삼과 버섯, 더덕, 밤, 대추, 은행 등을 넣고 찹쌀에 찐 '팔보약밥' 에 열을 식혀주고 이뇨 효과가 있는 '수박 나박 김치' 를 곁들이면 여름철 영양식으로는 제격이라고 추천한다. 또 "인삼은 기(氣)를 보충해 주는 약재로 땀흘려 탈진한 몸의 진액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밤과 대추는 위를 보호하면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밭에서 금방 캔 수삼에 원기회복 기능과 강장 효과가 있는 구기자를 넣어 찐 '수삼 구기자 찜' 과 수삼에 녹말가루를 입혀 튀겨 그위에 오미자 우린 소스를 뿌린 '수삼 오미자 탕수' , 수삼과 단호박을 넣고 찐 '수삼 단호박밥' 도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사찰 보양식이라고 소개한다.

☞도움말 김승수 한의학 박사, 이여영 사찰음식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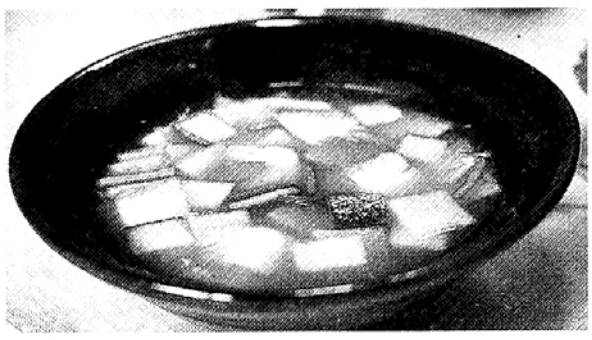


△재료: 찹쌀 5컵, 표고버섯 3개, 인삼 2뿌리, 더덕 2뿌리, 죽순 100g, 밤 10알, 대추 10알, 은행 10알, 호두 10알, 생땅콩 3큰술, 다시마물 반컵, 진간장 3큰술, 참기름 반컵, 구운 소금

△만드는법

찹쌀을 두시간 정도 불린 다음 김이 오른 찜기에 담아 15분동안 찐다 ⇨ 표고버섯, 인삼, 죽순, 더덕은 1㎝ 크기로 썰고 모든 견과는 껍질을 벗겨놓는다 ⇨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모든 재료를 넣고 볶아 진간장과 다시마물을 부어 한 소끔 끓으면 불을 끈다 ⇨ 고슬하게 찐 찹쌀을 뭉치지 않게 주걱으로 잘 저어서 그릇에 담고 볶은 재료를 넣어 고루 섞는다 ⇨ 찜기에 젖은 베보자기를 깔고 모든 재료에 버무린 찹쌀을 담아 약 15분동안 촉촉하게 찐다.

팔보약밥 — 만드는 법 — 수박나박김치



△재료: 수박 1통, 무 1개, 배추 2분의 1통, 미나리 2분의 1단, 마른 고추 10개, 홍고추 2개, 구운 소금

△만드는법

수박의 속을 파내어 씨를 발라낸 후 믹서에 갈아 고운 체에 받쳐 즙을 만든다 ⇨ 마른 고추도 믹서에 갈아 고추물을 만든 후 수박즙과 섞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 수박의 겉껍질을 벗긴 다음 무, 배추와 함께 나박썰기를 해 소금에 살짝 절인다 ⇨ 미나리는 줄기만 다듬어 3㎝길이로 썬다 ⇨ 모든 재료를 살살 버무려 섞은 다음 고추물을 부어 간을 맞춘다.

건강 ·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이선옥의
## 선무 건강법 ㊵· 끝

**• 강삼세명왕 수인 익히기 •**



1. 단전의 위치에서 강삼세명왕인 수인법을 취한다.
2. 강삼세명왕인을 취한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가 심장 쪽으로 가져온다.
3. '이' 소리를 내며 손을 오른쪽으로 가져간다.
4. 오른쪽에서 다시 손을 심장 부분으로 서서히 당겨 오면서 단전과 정수가 같은 선에 놓이게 하며 척추를 똑바로 한다.
5. 다시 '뭐' 소리를 내며 손을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져온다.
6. 왼쪽에서 다시 손을 심장 부분으로 서서히 당겨온다.
7. '꼬' 소리를 내면서 반복하여 연습한다.

**강삼세명왕인 상태서 손을 상하좌우로 이동**



## "방학 · 휴가때 환경을 생각하자"

### 두레 생태기행 '환경휴가 시민약속' 캠페인

중고교 환경 생물교사와 환경 운동가들이 만든 시민환경단체 '두레생태기행' 이 두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환경휴가를 위한 시민약속' 을 발표했다. 특히 '두레생태기행' 은 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에게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휴가를 떠날 때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현장 주변의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자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가지 말자.
▲현지 취사를 삼가고 지역의 향토 음식을 먹자.
▲지역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사이좋게 지내자.
▲현지의 동식물을 훼손하거나 갖고 오지 말자.
▲주차장이 없으면 현장에서 가능한 먼 곳에 주차하자.
▲아무데서나 함부로 세차하거나 용변을 보지 말자.
▲생태보전지역이나 금지된 구역을 지키자.
▲단체행사라도 앰프나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자



◇신비스런 분위기가 풍기는 '마이산 탑사' 전경.

## 새 고속도로 주변 사찰안내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볼게이트를 빠져나오면 5분거리에 해미읍성이 있다. 해미읍 반대편 국도 45호선을 타면 수덕사, 647번 지방도는 개심사로 연결된다.

△서김제IC=국도 29호선~702번 지방도를 타면 망해사, 백제 때 세워진 고찰로 심포 갯벌이 한눈에 들어온다.

△줄포IC=채석강을 찾으려면 부안보다 줄포가 빠르다. 국도 30호선을 타고 가다보면 내소사를 찾을 수 있다.

△선운사IC=국도 22호선을 타면 선운사에 도착한다. 특히 선운사에서 도솔암에 이르는 약 2.5㎞의 숲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져 가벼운 산행에도 적합하다.

△무안IC=일로에서 811번 지방도를 타면 화산연꽃방죽에 갈 수 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6회 무안연꽃축제' 가 열린다.

△목포IC=강진과 해남가는 지름길. 미황사, 대둔사, 백련사를 갈 수 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IC=청평사가 가깝다. 춘천에서 국도 56호선을 타면 소양호 가는 길. 국도 46호선을 갈아타면 소양호 선착장이 나온다. 배를 타면 청평사까지 갈 수 있다. 소양호까지는 30분정도 걸린다.

△홍천IC=홍천 주변에는 팔봉산과 수타사가 있다. 홍천읍내 쪽으로 가다 춘천방면 국도 5호선을 타면 팔봉산 방향. 86번 지방도로 다시 내려가면 팔봉산이 나온다. 홍천읍내에서 444번 지방도를 타면 수타사다.

△남원주IC=치악산권 여행의 관문. 남원주에서 내려 원주시를 통해 소초면으로 들어가면 치악산 구룡사가 나온다. 구룡사까지 약 30분이면 도착한다.

△신림IC=치악산 상원사, 영월 서강 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나들목이다. 신림IC를 빠져나오자마자 좌회전하면 88번 지방도. 왼쪽으로 상원사 가는 길이 나온다. 88번 지방도로 계속 직진하면 주천강을 지나 영월 법흥사로 이어진다.

△남제천IC=충주호의 관문. 나들목을 빠져나오면 충주호로 이어진다. 82번 지방도를 타고 가다 20여분 거리에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근처 정방사를 갈 수 있다.

△풍기IC=소백산, 희방사, 소수서원, 부석사가 가깝다. 풍기에서 국도 5호선으로 갈아타면 곧장 소백산으로 들어설 수 있다. 즉령 쪽으로 돌아서면 희방사 지역. 풍기에서 931번 지방도를 타고 40분 정도가면 부석사가 나온다.

△남안동IC=남안동에서는 고운사가 가깝다. 고속도로를 나와 국도 5호선과 만나면 우회전해 조금 더 달리면 고운사 방면 79번 지방도. 고운사는 최치원의 호를 따서 지은 고찰이다.

△다부IC=79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팔공산 도립공원, 파계사로 이어진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덕유산IC=덕유산 국립공원 안에는 안국사, 백련사가 있다.

△장수IC=진안 마이산 탑사를 갈 수 있다.

△진주IC=남해고속도로로 갈아타면 하동 쌍계사와 남해 보리암을 갈 수 있다.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사찰음식의 대중화 선언!

이여영의 새롭게 선보이는 358가지

# 자연 건강 사찰 음식

—자연 건강 사찰음식 제9기생 모집—




전권 값 38,000원

문의전화 02)747-8734 H·P 018)236-8734

자연건강사찰음식 연구소
소장 이 여 영

"이여영님은 30여년 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하고 생활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노고와 정진에 대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을 통해 맑고 건강한 몸과 생활을 가꾸어 가기를 기원드리며 그 공덕으로 우리 사회와 자연이 똑같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正大

"사찰음식의 특징은 어육류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있다.
이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 수련의 승화된 경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제월 통광

**자연 건강 사찰음식 제9기생 모집 안내**

■ 일 시 : 8월 6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과 정 : 6개월 과정
■ 장 소 : 대학로 (이화장 후문 옆)
전철 4호선 혜화역하차 2번출구 (문예진흥원 방향)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

강원도 정선의 조그만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3)378-8793~4
011)378-72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보림사
02)914-61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 (인 천)
032)522-8131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1) 462-7374
018) 523-73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있고 성실하신 분
▷40 ~ 60세 사이
054)272-4633
017)502-7451

공양주,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봉구, 월 100만원 지급
02)3491-4848
019)254-4883

부전스님 구합니다
▷마산 성진사
055)248-2644

제사, 천도재, 불공, 의식 및 법회
신심으로 봉행
각종 의식이나 법회에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주십시오.
(스님없는 빈 토굴이나 사찰 원합니다)
011)556-8541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 모십니다 ◎
무료 양로원에서 입소할 독거 노인을 모십니다 (만 65세 이상)
천혜의 자연조건, 깨끗한 환경
●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30분거리
● 순천시에서 30분거리
● 주소 :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873번지 홍산 보금자리
전화 061)363-8898
팩스 061)363-8897

사찰, 사무실 女 경리 직원 구함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한 자
급여 상담 후 결정, 고졸 이상
30대~40세 주부 가능
055)648-0419, 0427
011)558-845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 877-7514

『모십니다』
섬진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운산 자락 무등암에서는 함께
수행정진할 행자와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무등암
전화 061)772-4109/772-5401
휴대폰 011)351-6067

법납 5년 미만 행자 또는 비구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북한산 선봉사
02)387-8445
016)381-1319

심야전기 온돌난방
▶ 축열식 심야전기 히트온돌난방(M.I CABLE)
▶ 축열식 전기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 온수 바로바로 히팅케이블 보급 시공
스노우멜팅 주차장, 출입구, 언덕, 안전도로
동파방지 및 히팅케이블 냉온수배관, 송유관, 유체라인 등의 보호
한전승인업체
남 강 기 전 02)338-0400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사찰을 찾습니다.
016)857-450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 사무원을 '급' 구합니다
▷분당 불국사
032)719-0408~9

하늘과 산만 보이는 사찰입니다
행자스님 모십니다
50세~60세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 운 사
033)482-3382~4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진해
055)552-5111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산에 있는 암자입니다
051)518-6150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법당 · 표교원) : 영가 찾는 법 등
◆ 취미반 : 보살님, 직장인(월 5만원)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6호선 신당역)

행 자 모 집 ( 남 )
조계종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1. 도심사찰의 신기원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생, 7만의 동문신도
2. 민주적 교육에 의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 배출 목표
3. 수계 후, 모든 지원함.
4.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감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기거할 수도 있음
조계종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우학(주지 겸 학장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www.TVbuddha.co.kr
행자원 011)9852-0075 [T. 053)474-8228]

남 · 여 모집
사찰에서 거주하면서 의식공부를 하여 스님이되고자 하는 참신한 분
▷ 자격 : 30 - 45세 사이
▷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 인원 : 약간명(후계자 양성)
숙식일체 제공 · 수강료 없음
면접 후 개별 통지함
055)286-1779 (오봉사)

구 인 공 고
종무소 사무원 여 1人
법당보살 1人
조계산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061)754-5247
061)754-5953

산세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 보장
불사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의정부 • 위 치 : 서울 • 위 치 : 춘천
• 법 당 : 15평 • 법 당 : 16평 • 법 당 : 10평
• 요 사 : 40평 • 요 사 : 60평 • 요 사 : 35평
• 부 지 : 1600평 • 부 지 : 110평 • 부 지 : 6300평
• 가 액 : 7억 • 가 액 : 3억 5천 • 가 액 : 3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대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옆
• 건물 : 5층 건물 중 4층(53평)
• 특징 : 시설완벽 포교당 최적지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868-5997
051)761-1573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 교통체 유지
• 4층건물 중 3층, 50평 법당, 주방, 방3개, 주차장완비, 즉시 법회가능, 시설완벽
• 보증금 3000만원 월 46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55)336-5691
017)556-5691

사찰 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암자용도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암자 · 토굴 · 공부터안내
• 지리산 전경과 강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 평 수 : 잡종지 100평, 축사 2동
• 전 2000평, 과수원 500평 • 가액 : 6천만원
• 임 야 : 10,000평, 평당 : 일만원
• 잡종지 : 400평, 평당 : 10만원
• 도로완료
055)963-8167/011)863-8167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충남 서산 소재
• 부지 : 3000평
• 법당 : 25평
• 명부전 : 25평, 요사 : 50평
• 양도가 : 2억(융자가능)
• 산세 좋은 도량 임
• 위치 : 인천시소재 (지하철역 200m)
• 법당 : 65평, 방 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3,000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면적 : 실 면적 약 34평 지층 방2개 사무실1개 주방1개 법당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217-221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 3리 902번지
• 대지 : 202평(자터) 산밑 기도도량, 산신각 10평 본당 30평, 요사채 30평, 법당에는 삼불부처님, 산신각에는 칠성부처님, 탱화일체, 범종 20권, 인등 30개짜리
• 옥수그릇, 공양그릇 모두 도자기
• 가액 : 7천 5백만원
031)531-5328

토굴 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법당겸 요사채 50여평 산신각 7평
※ 종중땅임(400여평 사용) 절앞소방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년이면 차량진입이 가능 심야보일러 온수보일러 설치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
011)9770-659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소재 영호남 기차역 10분거리 고속 IC 20분거리
• 등기이전 830 실제사용 1300
• 법당, 산신, 요사채 8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뒷산과 대로변에 강이흐르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장기도 도량으로 불사중에 있음
011)381-1102

사찰 안내
• 위치 : 춘천시내에서 10분거리 50년된 산속 사찰
• 부지 6300평, 종교용지 1600평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50평(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011)366-4047

사찰 안내
• 위치 : 수산에서 밀양사이
• 면적 : 170평
• 법당 : 23평, 요사 : 20평 (마을과 인접한 아담한 사찰)
• 양도가 : 1억 5천
• 위치 : 밀양에서 청도사이
• 면적 : 379평
• 인법당 : 20평 (풍수만점의 완벽한 토굴)
• 양도가 : 1억 5천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 위치 : 군포 전철역 10분 거리 주택밀집지역
• 대지 : 58평 단독 3층 건물
• 특징 : 삼존불(임법당), 방 3개, 주방별도 현대식건물로 포교 최적지임
• 가액 : 1억 7천만원 (전,월세가 아닌 자가 건물 임)
031)397-4160
017)337-41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요사 : 40평
• 산신각, 부지 : 7000평
• 특징 : 계곡을 끼고 바위와 산세 절경 기도도량
• 가액 : 3억 9천만원
017)856-3617
011)831-4712
055)854-0733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북부동 부근
• 건물 : 30평 방 2칸, 주방 1개
• 가액 : 600만원, 월 50만원
055)385-8605
011)9500-880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사 찰 양 도 안 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 평수 : 종교부지 97평
• 대지 : 94평
• 법당 : 목조건물 15평
• 지장전 : 1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43)853-47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역곡 남부역 앞 3분거리
• 법당 : 삼존불, 20평, 방 2개 (요사채)
• 보증금 · 권리금 : 1,000만원
• 월세 : 35만원
• 도로변에 위치
017)232-3389

토굴 및 사찰터
• 경남 하동군 화계면
• 대지 220평
• 건평 30평
• 신축 전통황토한옥 두채
• 준농림지 605평
017)356-941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쌍문동 근교 일광사 포교원
• 건물 30평, 법당 20평, 방1, 부엌1 삼존불(부처님 동물로 모셔져 있음) 후불 신중 산신 탱화
• 쌍문 전철역에서 도봉 보건소 앞(마을버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8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98-0940
017)372-0940

사 찰 안 내
• 위 치 : 수원 • 부지 : 90평
• 법당 : 27평 • 요사 : 35평
• 가액 : 2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 (심야보일러)
건물 2동 벽돌집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심야보일러)
건물 3동 육각정
암자 또는 토굴로 사용할 경우 2층은 법당으로 사용가능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생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래미콘 등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
011)509-0124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포교당 안내
• 시설 임법당(삼존불) 주방 따로 거실, 다용도실, 다락(총12평)
• 대전역 10분거리로 도로변 포교장소로 최적지
• 가액 : 시설비 450만원 보증금 : 무, 월세 28만원
042)222-5387

수련원(전원주택)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산 국립공원 내
• 대지 : 200평
• 건물양옥 40평(큰방2, 작은방5, 사워장) 별채 1 : 15평(작은방 4개) 별채 2 : 25평(큰방2, 주방, 식당)
• 특징 : 산새수려하고 야외시설도 겸비하고 대지의 사용부지가 많음
• 가액 : 1억 7천만원
055)932-7317
011)546-7708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트여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소태동 제2순환도로 무등산 진입로 부근
• 임 야 : 4천 20평
• 대형차량 진입가능
• 대지 : 400평, 전환가능
• 평당 : 14만원
016)471-8758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맨 오른쪽)이 19일 오전 송광사 삼일암에서 일본 조동종 관장 이타하시 고슈(맨 왼쪽)스님 일행과 법담을 나누고 있다.

# "한국불교 수행전통 부럽습니다"

## 日 이타하시 고슈 조동종관장 일행 송광사 사찰체험

### 새벽예불 동참…방장 보성스님과 법담
### 보림·쌍봉사 참배, 강원스님과 좌담도

### "10년간 청정비구 30명만 배출해도 일본불교 수행체계 바로서게 될 것"

선원에서는 수선납자들의 하안거 수행이, 강원에서는 학인들의 간경 삼매가, 사자루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여름수련대회가 영글어 가는 조계산 송광사에 손님이 찾아 왔다.

일본 최대 종파인 조동종 관장(종정에 해당) 이타하시 고슈(板橋興宗) 스님과 전 조동종 청년승가회 회장 아라키 세이쇼 (荒田淸降) 스님, 발행 10만부를 자랑하는 계간 〈조동종 그래픽〉 사장 후지끼 류센(藤木降宣) 스님과 젊은 소장파 스님 8명이 18일 저녁 송광사에 도착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어김없이 예불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울려 퍼진 19일 새벽 3시. 사부대중이 모두 대웅전에 모이자 예불문, 이산혜원선사 발원문, 금강경, 그리고 108배가 이어졌다. 이타하시 고슈 스님은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단아한 자세로 절을 올리며 수행자의 꼿꼿함을 내 보였다.

아침 공양 이후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이 이타하시 고슈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잠을 청하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일본 총지사에서 이타하시 스님과 인연을 맺은 보성스님은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안부를 물었고 두 고승의 눈빛은 따뜻하기만 했다.

이타하시 고슈 스님은 3년 전 백양사를 방문했을 때 가부좌를 틀고 참선 삼매에 빠져 있는 한국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는 현재 선종계통의 종파에서는 안거 등 수행체계가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님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기에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소장파 스님들에게 안거 등 부처님 당시의 수행체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조계종 승가의 수행을 체험시키기 위해 송광사 방문을 주선했다. 고슈 스님은 "일본 강점기 이후 한국불교가 일본 불교화 되고 세속화 되어 수행체계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조계종이 이렇게 수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럽기 그지없다"며 한국불교의 수행풍토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했다.

두 나라 스님들이 차 향기 은은한 삼일암(방장스님 처소)에서 마주 앉았다. 아라키 세이쇼 스님이 보성스님에게 질문했다.

"일본불교는 납골당을 중심으로 한 당까제도(조상의 시신을 화장해 사찰에 안치하고 자식들은 대대로 그 사찰을 원찰로 하는 일종의 평생신도 개념)를 통한 재정으로 사찰을 운영하는데 송광사 같은 큰 사찰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한국스님들은 대부분 무소유를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직접 채소밭을 일구기도 하지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입니다."

보성 스님은 또 "10년 동안 조동종에서 결혼하지 않은 청정비구 30명만 배출한다면 앞으로 일본 불교에 수행체계가 바로 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이쇼 스님의 질문이 이어졌다. "9 11 테러 이후 세계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불교는 어떤 입장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계승해 인류 사회에 삶의 지표를 제시할 때 불교가 비로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조동종 스님들은 사시 예불, 참선 등 한국 스님들의 수행을 체험하고 보림사와 쌍봉사를 참배했다. 저녁에는 강원 스님들과 좌담회도 가졌다. 20일에는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을 순례하고 귀국했다.

순천 송광사=김두식 기자

### 선교 겸비한 선사
### 일본 조동종 관장 이타하시 고슈스님



이타하시 고슈 스님은 1927년 궁현성에서 출생하여 동북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승사전문승당 당장을 역임했고 현재 일본 최대 종단인 조동종 관장에 재직중이다. 관장이란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정에 해당된다.

이타하시 고슈 스님은 〈불교수상〉등 많은 저술을 통해 선교를 겸비한 선사로 추앙받고 있다.

# 고속철 금정산통과 반대 급물살

## 안상영 부산시장 말바꾸기 항의, "환경장관 고소 불사"

### 시민토론회·범불교도 부산결의대회 개최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 노선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던 안상영 부산시장의 태도가 경부고속철 조기완공으로 바뀌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운동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고속철 천성산 관통반대를 주도해온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은 15일부터 부산시청 정문앞에서 안상영 시장의 말바꾸기에 항의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 같은 날 부산환경운동연합도 집회를 열고 안상영시장의 조기완공 입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14-1공구(부산 금정구 구서동~경남 양산 동면 계곡리) 시공자로 두산건설과 삼우, 동일건설 공동 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사실상 기존 노선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율스님은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환경부 장관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정산 고속철 관통반대 범시민대책위'에서는 26일 오후 2시 범어사 경외주차장에서 '금정산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부산 결의대회'를 열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원사의 비구니 스님 50여명은 24일 부산시청앞에서 고속철 노선 변경을 위한 3보1배 정진으로 부산시와 고속철의 공사강행에 맞서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이 15일부터 부산시청 정문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은 솔리나 수녀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히딩크 감독 등 한국 대표선수단 21명의 사인이 새겨진 괘불탱.

## 월드컵 태극전사 사인 새긴 만다라 괘불탱 통도사 보존

월드컵 신화를 창조해낸 태극전사 21명의 사인이 새겨진 만다라 괘불탱이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된다.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이 만다라 괘불은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2002불로 구성되어 있다. 2002명이 직접 채색을 하고, 완성된 후에는 자신이 그린 불상 옆에 이름과 국적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히딩크감독과 박항서 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텝들과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안정환, 김태영, 설기현, 이운재, 최진철, 박지성, 김남일 등 21명의 대표선수단이 서명한 불상도 포함되어 2002명의 동참이 완료되면 배접과 점안의식을 거쳐,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의 상징물로 역사에 남게 된다.

현재 2002불중 500불이 완성된 만다라 괘불탱은 휴가철을 맞아 공개되며,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단과 내방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면 2003년 3월경 통도사성보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 목탁소리

김 원 우 (취재1부 차장)

## 조계종 기획실의 언론관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홀로 청빈의 삶을 살고 있는 법정(法頂, 길상사 회주)스님이 15일 북한산 울대리 '철마선원'을 찾았다.

스님은 철마선원에 도착하자마자 20여분 간, 터널이 뚫릴 장소에 세워진 10m높이의 망루와 법당 그리고 마구 파헤쳐진 현장을 둘러본 뒤 "개발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사회에 던지는 '할'을 하고 강원도 토굴로 돌아갔다.

환경운동의 선구자인 노스님의 철마선원 방문은 분명 북한산 관통도로저지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불교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씁쓰레한 뒷맛을 숨길 수 없다. 여론환기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준비됐던 이번 법정스님 철마선원 방문에 조계종 기획실이 불교언론을 따돌렸다는 사실을 알고서다.

철마선원 수경스님으로부터 불교계와 일간지의 홍보를 위탁받은 조계종 기획실은 '교계언론까지 가면 북적거려 법정스님이 그냥 가버릴 우려가 있어서'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불교계를 배제' 한다는 입장으로, 일간지 출입기자들에게만 연락하여 현장으로 데려가는 이해 못할 일을 행했다.

그간 일반언론 어디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북한산 관통도로문제의 이슈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재 이 순간까지 밤낮으로 철마선원과 조계사를 오가며 현장을 놓치지 않았던 불교계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따돌린 것이다.

불교계 기자는 수많은 불자를 대신해 보고 듣고 기록하기를 발원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 기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계언론을 통해 불교뉴스를 접하는 신심 있는 불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산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기사화 해온 불교계언론을 배제한 이유가 단순하게 '교계언론은 매체 영향력이 없다'는 거라면 그렇게 단정짓는 근거가 뭔지, 조계종 총무원의 해명을 듣고 싶다.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 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꼭 확인하십시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0047

최면 수련생 모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면-전생을 통하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전생(前生)의 문을 열면 당신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① 타인최면유도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
③ 원격최면
④ 전생퇴행최면
⑤ 파동(波動)요법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문 의 처 : 051)806-8500, 051)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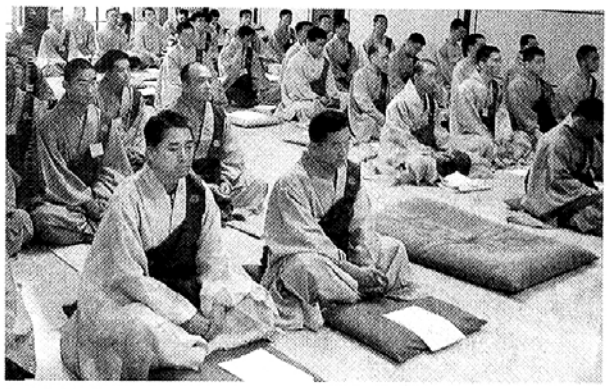
법운 선생님 약력
■ 2001년 SBS 호기심천국 출연
■ 2002년 KBS 'VJ 특공대' 출연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97년 PSB 이침 특종뉴스 출연 (운명학)
■ '98년 PSB 출발새아침 출연 (관상학)
■ 대한 초능력협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아미파 기공협회 회장
■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동방최면전생연구소

# 1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 추진

## 군승들 하계수련회서 결의

## 군승회의 초대의장에 장성화 법사



◇군승들은 15~17일 양양 호국충용사에서 수련회 및 총회를 열고 군포교 진흥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군승들이 성광스님의 법문을 듣고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를 '군포교 진흥의 해'로 선포하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군승들이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5~17일 강원도 양양 호국충용사에서 군승 하계수련회 및 군승총회를 개최하고 1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 맺기 등 군포교 진흥을 위해 매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는 조계종 포교원이 군포교 의지를 수차례 천명한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승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지난해 11월 군승단을 조계종 군불교위원회로 전환한 이후 처음 열린 총회에 거의 대부분의 군승이 참여함으로써 군포교 진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110여명의 군승들은 군신도 교육, 1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군법당 등록 및 신도증 발급사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군법당 현황 파악 및 군신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관학교, 신병교육대, 병과학교 등 37개 교육관련 부대를 조계종 교구본사 및 수말사와 결연시켜 법사 및 예산 지원 정기법회 지원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또 임시의장 체제로 유지했던 군승회의 초대 의장에 장성화 법사(3군 사령부 · 인터뷰 4면)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한편, 전창응 법사(7군단)를 사무국장에, 손상훈씨(조계종 포교원)를 사무계장에 임명하고 10명의 상임위원을 위촉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 군불교위원회는 이번 군승회의 의장 선출 등 조직정비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불교위원장 성광스님은 "조계종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포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임지 부대에서 장병들을 직접 대하는 군승들이 종단 시책에 부응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양양=박봉영 기자

## 대구경북 영상포교

### 불교TV 대구지사 현판식

불교TV 대구지사가 1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구 경북 지역의 영상 포교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서 불교TV 박정석 대구지사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영상 포교와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역의 신행 뉴스와 행사소식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덕 불교TV 사장은 "경영자가 불자인 대구지역 종합유선방송업체 서대구 케이블 TV에서 방송 장비를 적극 후원할 예정이어서 신속한 신행 뉴스 전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사 개소의의를 설명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사옥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불교TV 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前 주지 신허 스님, 이수덕 사장, 대구 선재림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 국제 잼버리대회 불교관 운영

### 불교스카우트 지도자회

전국 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최종규)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패트롤 잼버리 대회 기간동안 불교관을 운영한다.

24일부터 29일까지 제주로 오라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잼버리 대회는 30개국 1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잼버리 기간을 청소년 포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불교관은 '청소년 꿈을 부처님 품으로'라는 주제로 사찰예절, 기초교양, 단주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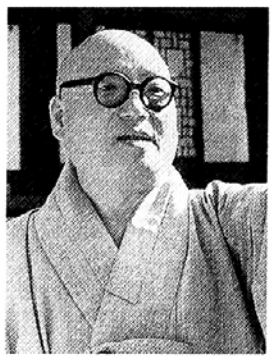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 서울포교원 고려사 개원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서울 강남지역 포교를 담당할 서울포교원 고려사를 개원한다. 개원법회는 8월 8일 오전 10시 봉행된다. 고려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고속터미널 75-13 반포상가 2동 4층에 마련된다. (02)3476-7303

박봉영 기자

## '탄허닷컴' 8일 오픈 유물·저술 코너 등 운영



◇탄허스님

탄허닷컴(www.tanheo.com)이 8일 오픈됐다.

탄허닷컴을 방문하면 '생애 · 사상'과 '사진'에서 탄허 큰스님의 생전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스님이 남긴 물건들을 통해 스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물' 코너엔 스님이 항시 지니고 다니던 나침반과 원고 10만매를 집필한 만년필 등이 방문자들을 반긴다.

'내가 만난 탄허스님' 코너에서는 방문자들이 직접 스님과의 인연담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탄허스님 시봉일기' 역시 스님과 인연있는 스님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

탄허닷컴의 핵심 메뉴는 스님의 저서와 서간문 등을 볼 수 있는 '저술' 코너. 이 코너는 〈발심삼론〉 등 스님의 저서 4권을 볼 수 있는 '전문', 각종 저서의 서문과 서간문 등을 접할 수 있는 '서문', 스님의 저서를 사진과 함께 만나보는 '관련도서', 각종 비문의 사진과 해석을 담은 '금석문', 스님의 친필로 꾸며진 '묵향'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꾸며져 스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적지 순례'는 탄허스님과 관련 있는 곳들을 찾아가며 소개하는 곳이다. 현재는 오대산 상원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향후 계속 업그레이드될 계획이다. '육성듣기'에서는 앞으로 스님의 강연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조선 초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시 석굴암 극락전 앞 탑신석.

## 북한산 석굴암서 조선초 부도 발견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은 석굴암(주지 지본) 극락전 앞뜰에 세워져 있는 탑신석이 조선 초기에 조성된 부도의 일부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극락전 뒤편 50여m 지점에서는 같은 부도의 기단석으로 보이는 석재 한 점이 발견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석굴암 극락전 뒤편 골짜기 옆에서 탑의 일부로 보이는 석재가 방치돼 있다는 한 불자의 제보를 받고 16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팔각형 모양의 이 석재는 부도의 기단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석재의 사진을 본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부도의 기단석이 분명하다"며 "연꽃문양의 꽃잎마다 도톰하게 테를 두르는 기법 등을 볼 때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 연구관은 또 "극락전 앞뜰에 세워져 있는 1층 탑 역시 부도의 탑신석이며 조성 시기는 조선초기"라고 밝혔다. 팔각형 탑신에 사천왕상과 문살무늬가 돌아가며 새겨져 있고, 상륜부의 우동마루마다 귀꽃이 돌아가는 수법 등이 조선 초기 양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소 연구관은 "두 유물 사이의 거리나 양식, 크기 등을 볼 때 같은 부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굴암에 따르면, 경내의 석굴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기도했던 곳으로 전해온다. 또 극락전 뒤편 산골짜기는 지금도 '무학골'이라 불리는데 무학대사가 수도했다는 석굴이 있다.

권형진 기자

## "외국인 전문도량 건립해야

### 청아스님, 한국불교 폐쇄성으로 정착 어려워"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 총림의 사격을 갖춘 외국인 전문도량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청아스님(수원 공소사 주지)은 '불교와 문화' 7 · 8월호를 통해, "한국불교의 '개별성', '폐쇄성', '비합리성', '자기중심성' 때문에 외국인 스님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써 '외국인 전문도량 설립'을 주장했다.

즉 한국 스님들이 지극히 개별적인 차원에서 국제포교를 하고 있고, 문중 중심의 폐쇄적 사찰운영으로 외국인 스님 스스로도 폐쇄적으로 변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본말사 주지 임명 등 사찰의 살림이나 종단운영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외국인 스님들에게 폐쇄성이나 불합리성조차 배우고 익히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아스님은 "외국인 전문도량은 독자적인 자치운영권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한국 스님 혹은 문중이나 계파에 관계없는 공동체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외국인 전문도량이 운영되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를 영어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외국 각지에서 단기간 한국불교를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수련장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전문도량을 '특별교구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 대불청, 속초서 불교청년대회

### 통일 손도장찍기 · 미군장갑차 참사 진상규명 서명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 제21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가 1천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속초 한화 리조트에서 열렸다.

'준비된 불청의 대도약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한반도 북쪽지역은 남쪽 청년들이 찍고 남쪽 지역은 북쪽 청년들이 찍어 통일염원을 기린다는 취지의 '청년 만해 통일 손도장 찍기'가 열렸으며, 지난 6월 발생한 두 여중생 장갑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서명운동도 펼쳐졌다.

또 우수 법우 및 지구 · 지회 시상식에서 백호열씨가 불청 대상을, 조계사 청년회가 최우수 지구상을, 충북지구 옥천지회가 최우수 지회상을 수상했다.

남동우 기자

## 해외 국제포교사 등 대상 한국역사문화답사 실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파견예정 국제포교사와 해외거주 국제포교사의 한국역사문화답사 프로그램이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남지역 일대에서 실시된다.

역사문화 답사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파견예정인 국제포교사 45명과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30여명이 참여해 무위사,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익산 미륵사지, 원불교 총본부 등을 돌아보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

##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성황

### 첼리스트 법현스님 · 풍물패 · 합창단 공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보탑사(주지 지광) 산사음악회가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통일대탑 앞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가 네 번째인 음악회에는 가수 이은하, 김태곤, 해바라기, 장사익씨 등이 출연해 대중가요와 국악을 선보였다. 또 첼리스트 법현스님의 첼로 연주와 오느름 실내악단의 공연, 풍물패 공명의 사물놀이, 삼선포교원 합창단과 부르나 솔리스트 앙상블 중창단, 가톨릭 현승회 합창단의 가곡 연주 등이 이어져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았다.

진천=이상우 충북지사장

## 아시아드 주경기장내 화장실 48곳에 꽃장식

(사)밝고 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15일 아시아드 주경기장내 화장실 48곳에 꽃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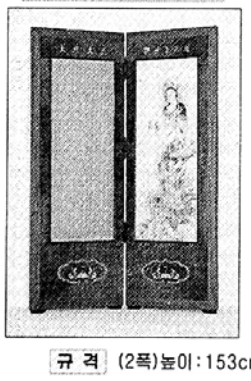
이날 꽃 설치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개최와 부산을 찾는 외국인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보여주기 위해 200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온 사업으로 이날 봉사활동에는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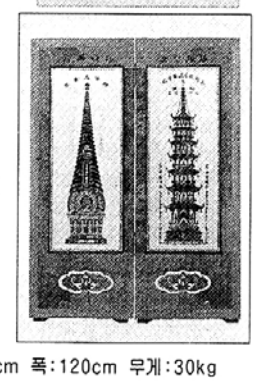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回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진공대사 부도(보물 제365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세워져 있다.

# 佛法 다시 흥할 그날은…

성하(盛夏)의 들녘을 헤집고 다니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악초꾼 마냥 풀섶을 뒤지며 영험있는 것들을 찾다가 보면 엉겅퀴 꽃잎이 손등에 묻기도 하고, 풀벌레 소리가 발끝에 밟히기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강산 낙화유수인가. 옛 절터에 핀 능소화 꽃들은 주인이 없어도 몸단장을 하고, 돌담 밑 풀벌레들은 함부로 허물을 벗으며 이 땅에 오롯이 사는 법을 사자상승(師資相承)하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장마비 속에 때아닌 하안거(夏安居)에 들었다가 혜설피우는 휘파람새 소리에 황망히 해제를 하고 개망초꽃 핀 섬강 기슭을 달린다.



◇흥법사터 전경. 아직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지 대부분이 민간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석탑(보물 제464호)이 쓸쓸히 주인없는 폐사지를 지키고 있다.



제시주 | 장지현의

## 잊혀진가람 탐험

원주 지정면 흥법사 터

발걸음이 곧장 섬강 자락으로 내닫는 것은 아마도 이 일대에 아직 이름조차 거명 못하는 무수한 절터들이 널려 있고, 그 무너진 자리마다 함따라 능소화 고목이 법등인양 심지를 돋우기 때문일 것이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절 집 마당에는 으레 능소화나무 한 두 그루씩을 가꿨으니, 능소화나무는 부귀와 존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진공대사 부도탑비의 귀부.

원주 땅 3대 폐사지 중의 하나로 아직 발굴의 삽날이 닿지 못한 흥법사 터로 가는 길은 문막, 간현(艮峴) 협곡을 지나 능소화 꽃잎이 똑똑 지고 달맞이꽃과 개망초꽃들이 디리부터 진을 치고 손님맞이로 부산을 떠는 그 길을 지나야 한다. 섬강의 맑은 물과 기암절벽, 울창한 수림으로 원주 제일의 절경을 자랑하는 간현 국민관광단지에서 영봉산(靈鳳山) 자락을 향해 4km 정도를 들어서면 고즈한 정감이 넘치는 양지바른 언덕이 있다. 이름하여 안창 마을. 선조의 장인으로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의민공 김제남(金悌男, 1562~1613)의 고향이기도 한 그 마을이다.

흥법사지는 폐사된 뒤 숙종 19년(1683)에 도천서원이 세워졌다가 고종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사라졌으며, 간단치 않은 마을의 내력을 말해주는 듯 동리 곳곳에는 어깨 큰 느티나무와 밀뚱 굵은 대추나무들이 눈에 띈다. 누대에 불법이 흥왕하라고 고려 태조 왕건이 제국을 열며 진공(眞空, 869~940)왕사를 모셨던 흥법사. 그러나 법은 흥하지 못하고 옛 영화를 밑거름 삼아 1만여평 절터에는 고추대궁만이 주저리 주저리 여물어 가고 있다.

흥법사지는 일제시대 무렵 우리 문화재에 눈독을 들였던 일인들의 발길음이 빈번했으나, 석탑 근처에 있던 철불(鐵佛)이 없어지고 진공대사 부도탑도 경복궁으로 옮겨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멀어지게 되었다. 원주시는 1984년 5월 흥법사지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하고, 부론 법천사지, 정산리 거돈사지와 함께 3대 폐사지로 지정, 복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드넓은 사지 가운데 삼층석탑 1기(보물 제464호)와 진공대사부도탑비의 귀부와 이수(보물 제163호)가 남아있는 주변만을 정비하여 안내문과 철책을 둘러놓았다. 법천사지 보다 민가가 적고 농토가 많아 상대적으로 발굴작업이 쉬울 것 같으나 안창마을의 터가 센 탓인지 쉽게 법접을 못하는 느낌이다.

## 고려초 진공王師 주석한 선종 가람

## 원주 3대 폐사지중 하나…발굴 아직 손못대

진공대사에 관한 안내문도 역사적 사료와는 사뭇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답사객들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는 진공대사 법호는 충담(忠湛)이며, 신라 계림의 귀족출신으로 당나라에 유학하고 918년에 돌아와 고려태조의 왕사가 된 것으로 전하나, 현장의 문화 게시판에는 진공대사가 855년에 출생하여 937년에 입적한 신라 말 선승으로 양양 진전사에서 수도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고려 태조가 그의 설법에 감동, 가까이 머물기를 청했으나 사양하여 소백산 수도암으로 갔다고 기술되어 있다. 역사를 살피는 세심한 주의력이 모자란다기 보다는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탓이라 여겨진다. 답고 깨어진 채 그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진 진공대사 부도비의 비신만큼이나 금가고 천대받는 역사의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진공대사의 미묘한 행적만큼이나 흥법사지에는 또 한가지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국보 제104호인 원공국사(?~844) 염거화상탑이 이곳에 있다가 1914년 탑골공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 역시 일제시대 일본인의 기술에 의한 것으로 분명치가 않아 염거화상탑 명에는 '전 흥법사 염거화상탑'이라고, '전(傳)'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염거화상은 양양 진전사 도의선사의 법맥을 이은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의 제2대 조사이니, 염거화상탑이 실제로 이곳에 있었다면 흥법사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불교 변혁의 산실이었던 설악산 진전사와 연관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흥법사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심재옥씨 집 안마당에 놓여있는 장대석과 석물들.

흥법사가 언제 창건되고 멸실되었는 가는 알 수 없으나 진공대사 부도비문으로 미루어 통일신라 말기의 사찰로 추정되며,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초기까지 법등을 밝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법사지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고려 태조와 진공대사의 각별한 운우지정(雲雨之情)이다. 진공대사가 대당 유학승이었던, 아니면 양양 진전사에서 무사(無師) 득도한 선승이던 그는 곧 태조의 왕사였으며, 그 사실만큼은 녹슨 문화재 시판의 내용이든 먼지 덮힌 역사의 기록이든 일치하는 것이다.

태조는 이 곳 흥법사를 중건하여 진공대사를 머물게 한 후 극진한 예우를 다하였다. 그로부터 흥법사는 흥법선원으로 불렸고, 전국에서 선 수행을 위해 수많은 운수납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고려 태조는 진공왕사가 열반하자 그 비문을 몸소 지었고, 비문 뒤에는 또 진공대사가 태조에게 올린 글을 새겼으니 태조와 진공국사의 도타운 인연은 천년의 풍상이 스쳐간 뒤에도 탑비를 장엄한 운룡(雲龍)으로 남아 함께 삼계의 시공을 노니는 것이다.

중문지 안쪽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이 머문 자리는 협책을 둘러쳤어도 개망초 꽃 군단이 들어가 진을 치고 있다. 석축, 문지 초석들은 무표정한 석탑보다는 여의주를 입에 문 귀부가 그래도 의지할만 했던지 슬그머니 돌 거북 뒤로 가 웅색하게 자리를 비집고 누웠다. 현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법당자리는 대웅전 대신 지금은 숨을 헐떡이는 폐가 한 채가 무슨 보물인 듯 녹슨 경운기 한 대만을 보듬고 있다. 폐가는 메꽃, 강아지풀, 쑥부쟁이들이 엉켜 한창 풍화로 다비 중이다.

폐가 위쪽에는 제법 가세가 번듯해 보이는 민가 한채가 더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심재옥(60세)씨이며, 사지의 대부분이 그의 소유라고 한다. 그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심재옥씨 집 안마당에는 장대석과 석물들이 볼모로 잡혀온 듯이 모로 누운채 꼼짝을 못하고 있다. 푸성귀들 자리는 마땅히 부지런한 농부의 소유일 것이나 만고에 불변인 불법이야 어찌 범부의 소유일 수 있겠는가.

절 터 주인인 심재옥씨를 공양하느라 얼굴에 주름살이 밭이랑 보다 깊어진 그의 아낙의 말로는 석탑 서쪽 100m지점에는 속칭 '중샘'이라 불리는 샘터 3개가 있는데 그 물길이 사지를 가로질러 마을의 농지를 적신다고 한다. 또 진공대사탑이 있었다는 북쪽 산기슭은 잡석들만 수북한데 지금은 담배밭 둔덕이 되어 있으니 진공대사의 자비는 입멸 뒤에도 세세생생 중생들의 심전(心田)을 윤택하게 하는가 보다.

수행 환경은 지켜져야 한다고 북한산 터널 일부 구간의 관통공사를 중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던 날인 7월 16일, 한강 상류의 한 자락인 원주시 섬강 어귀 영봉산 흥법사지 길목에는 늙은 능소화나무 한 그루가 또 한송이 황금빛 꽃잎을 찬찬히 펼치고 있었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홍천 물걸리절터 편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여시아문"할인
- 불교전문쇼핑몰"마하몰"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